

# **총공급과 총수요**

Aggregate Supply and Aggregate Demand

K Ch.27, 조남운

<mailto:namun@snu.ac.kr>

# Keywords

- 총공급(Aggregate Supply)
- 총수요(Aggregate Demand)
- 승수(Multiplier)
- 총공급-총수요 모형(AS-AD model)
- 통화정책과 재정정책(Monetary Policy and Fiscal Polity)

# 총공급

## Aggregate Supply

# 개요

## Outline

- 단기 총공급 곡선(Short-Run AS Curve)
  - 곡선의 이동요인들
- 장기 총공급 곡선(Long-Run AS Curve)
  - 단기 총공급 곡선과의 관계

# 총공급곡선

AS curve

- 물가(세로축)와 총생산물의 공급량(가로축: rGDP) 간의 관계
- 물가 이외의 총공급요인 변화요소를 고정했을 때 물가와 총생산간의 관계를 관찰하여 도출
- 주의!! 대부자금시장의 수요-공급곡선과 혼동해서는 안됨
  - 대부자금시장: “이자율”과 “대부자금량”的 관계

# 단기|AS곡선의 도출

## Deriving SRAS curve

- 단기의 기준: 생산비용(특히 임금)이 경직적인 기간
- 생산비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(= 경직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)
  - 물가상승  $\rightarrow$  이윤상승  $\rightarrow$  총생산증가
  - 물가하락  $\rightarrow$  이윤하락  $\rightarrow$  총생산하락
- 즉, 물가와 총생산은 정(+)의 관계에 있음

# 물가와 이윤

## Price level and Profit

- 총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**이윤성**(profitability)
- [이윤] := [수입] - [비용]
- [총이윤] := [총수입] - [총비용]
- 비용이 고정되어 있다면:
  - 물가상승  $\rightarrow$  총수입증가  $\rightarrow$  이윤증가
  - 물가하락  $\rightarrow$  총수입하락  $\rightarrow$  이윤하락

# 명목임금의 (하방) 경직성

## Rigidity of Nominal Wage

- 명목임금은 주기적인(1년) 임금협상에 의해 결정
- 기업은 임금 삭감/상승(특히 삭감)에 대해 부담: 노동자의 압력에 직면 --> 하방경직성
- 충분히 긴 시간을 통해 조정: 장단기의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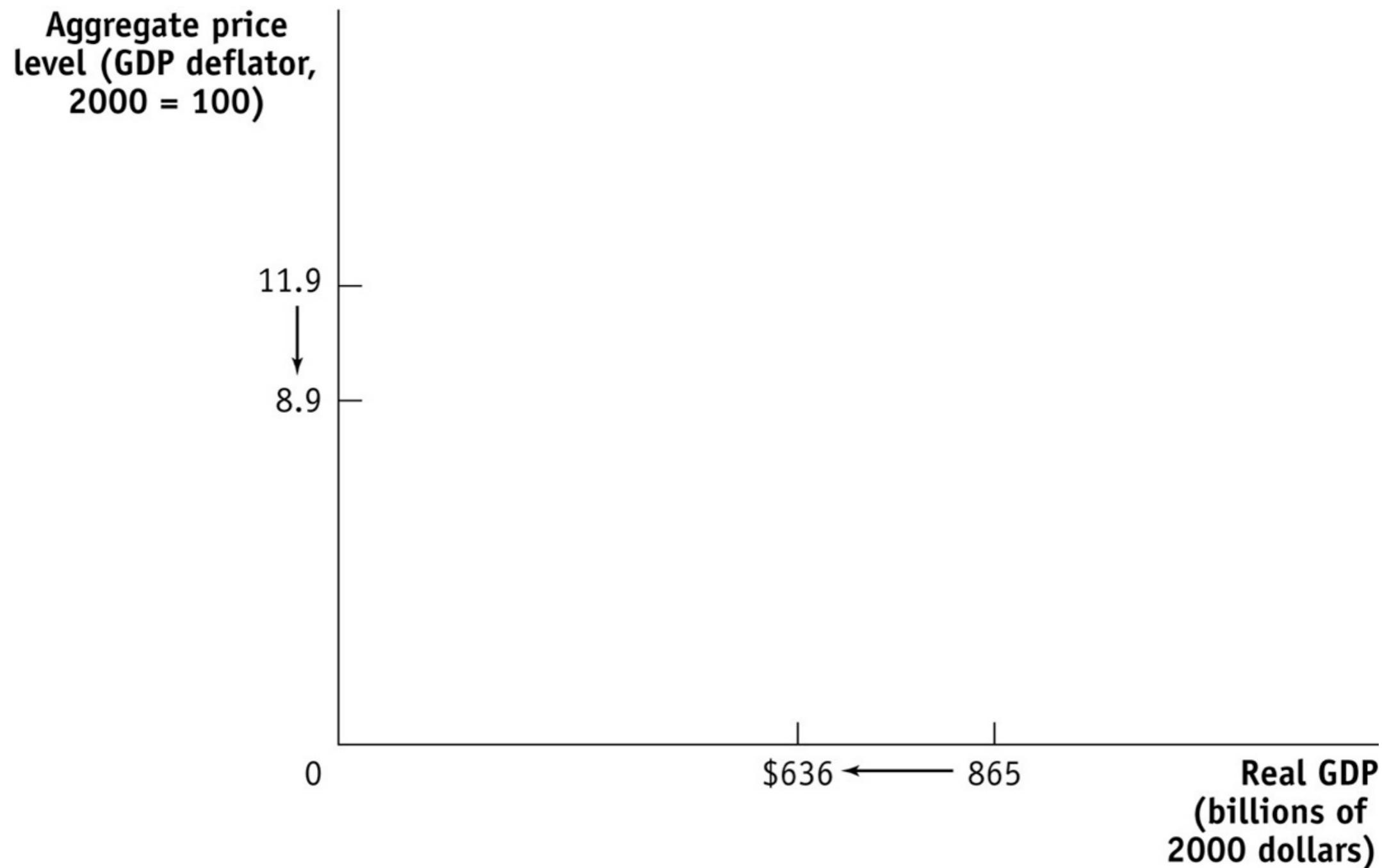
# 임금 외의 요인들

## Other causes

- 가격 자체의 (하방)경직성:
  - 짧은 기간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은 최종 생산물의 가격보다 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선호(수량조절)
  - 특히 가격하락에 대해 경직성이 더 심함
  - 수량조절 역시 SRAS곡선을 우상향하게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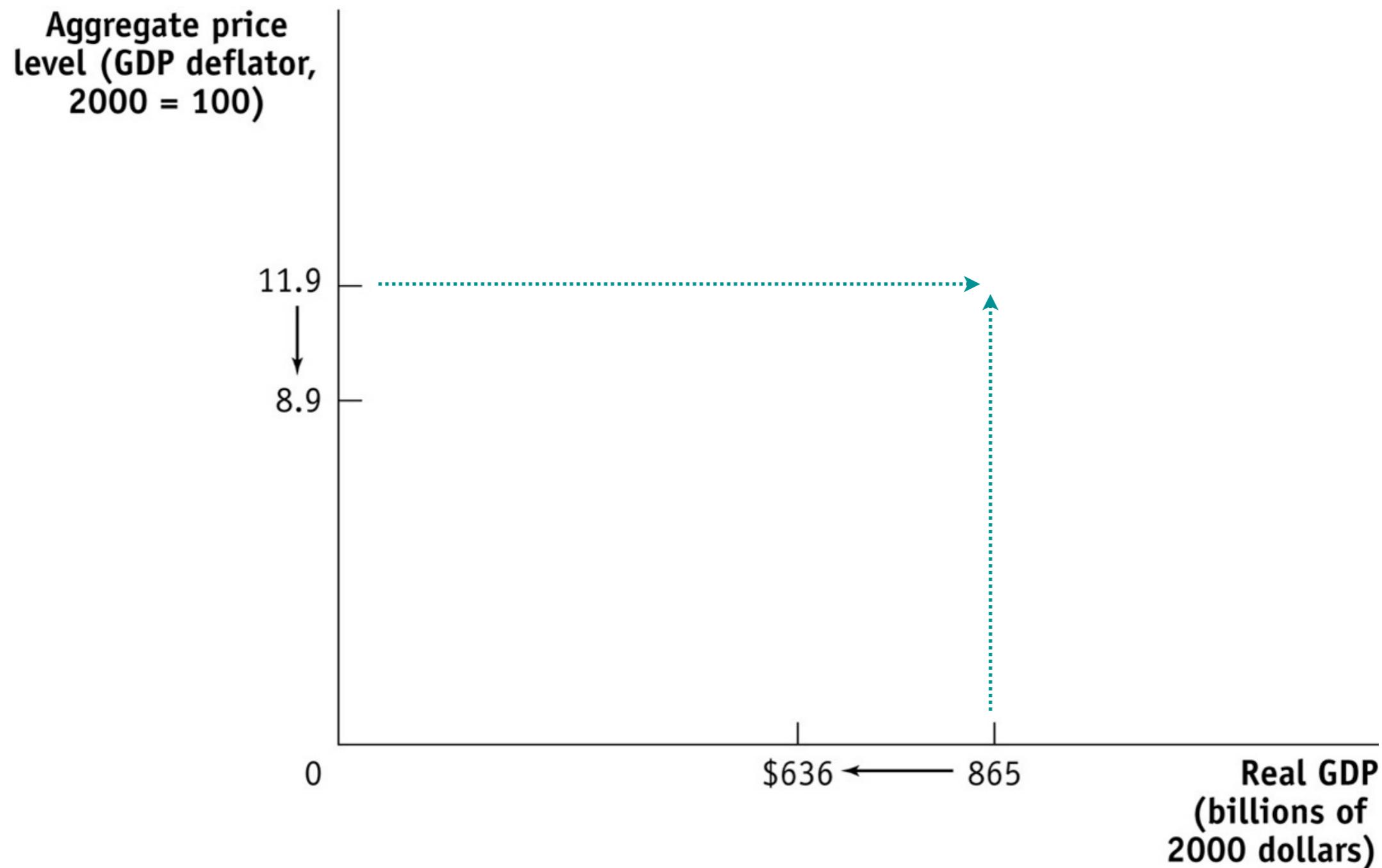
# Moving on the SRAS curve

## USA: 1929 ~ 193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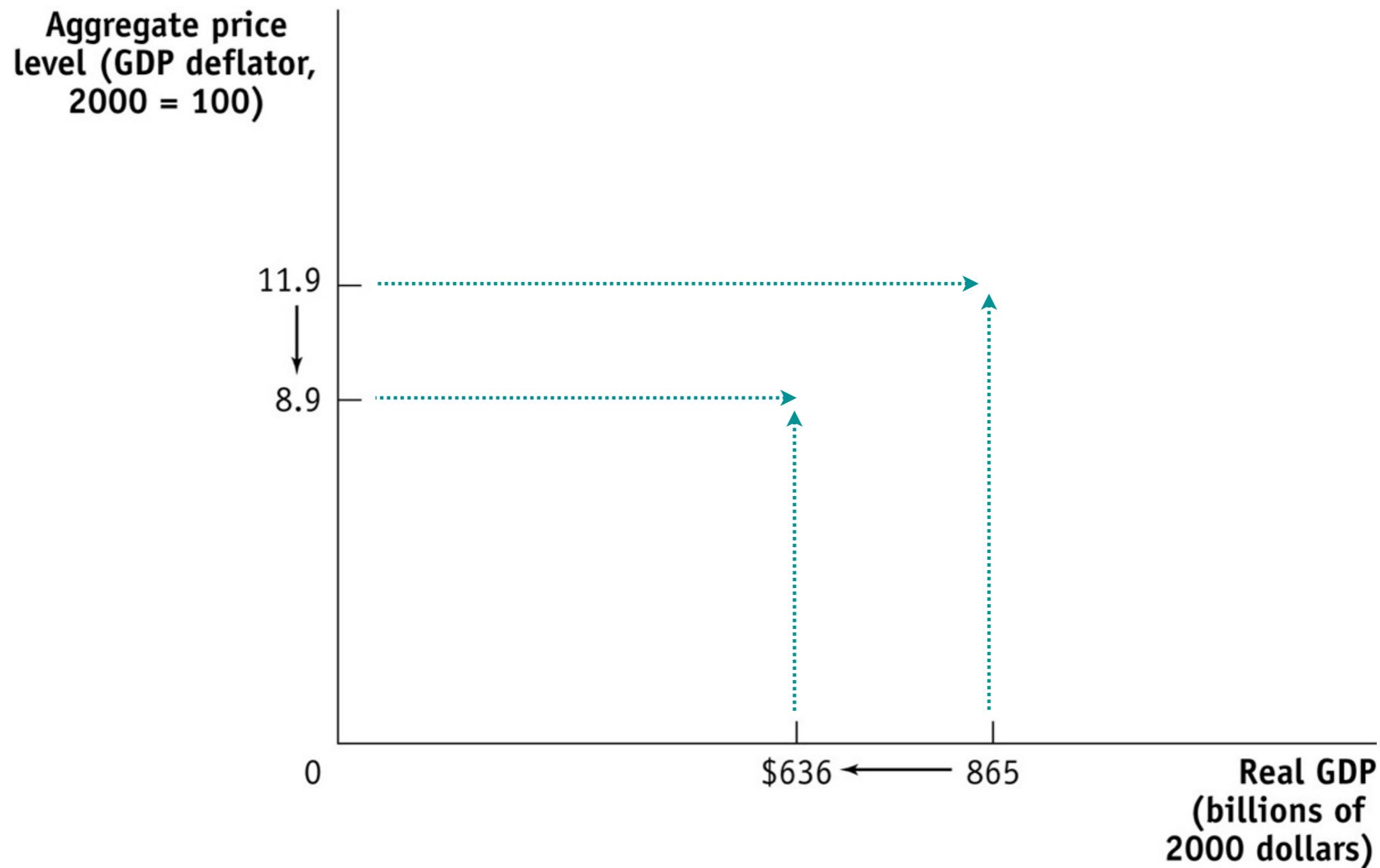
# Moving on the SRAS curve

## USA: 1929 ~ 193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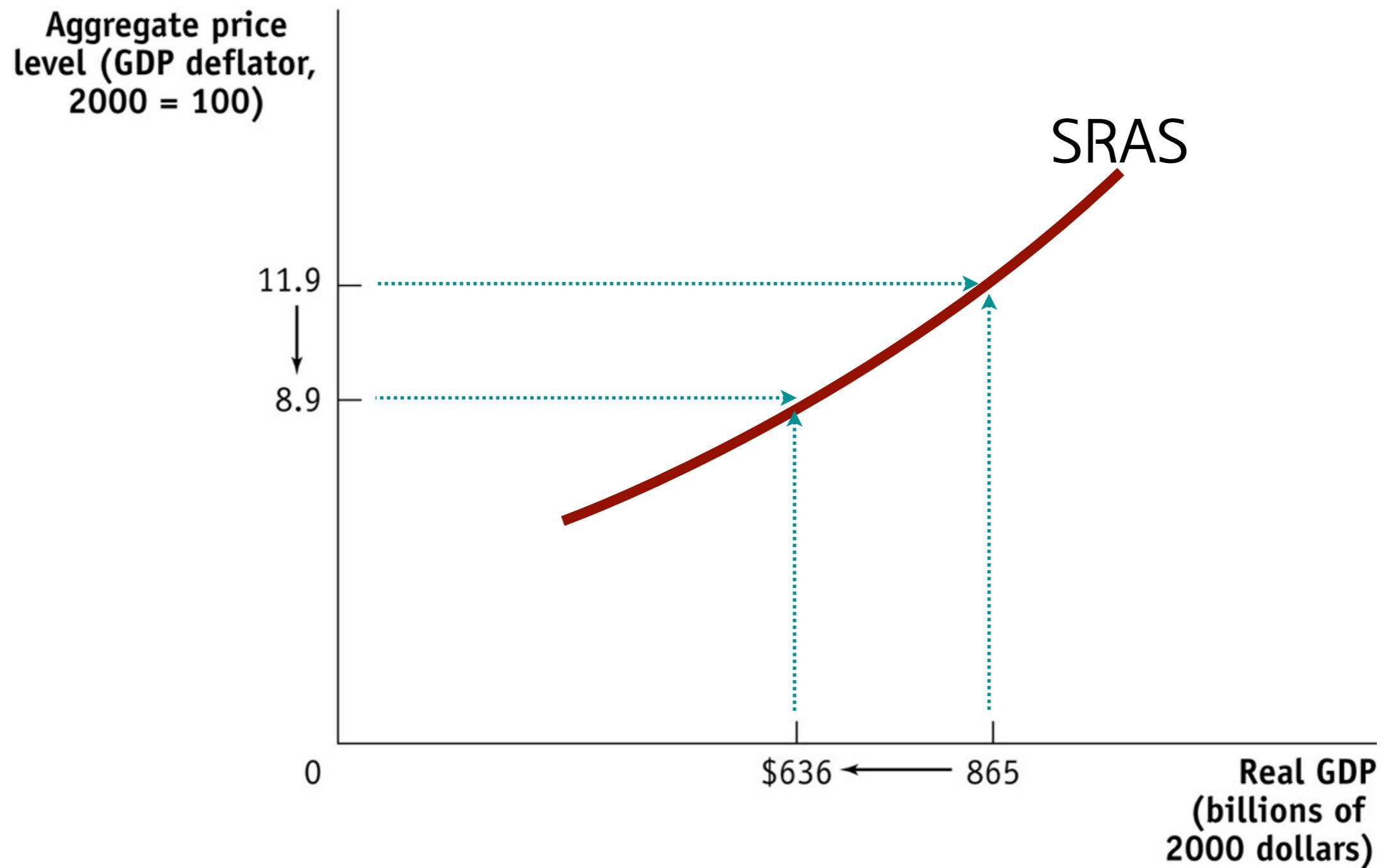
# Moving on the SRAS curve

## USA: 1929 ~ 193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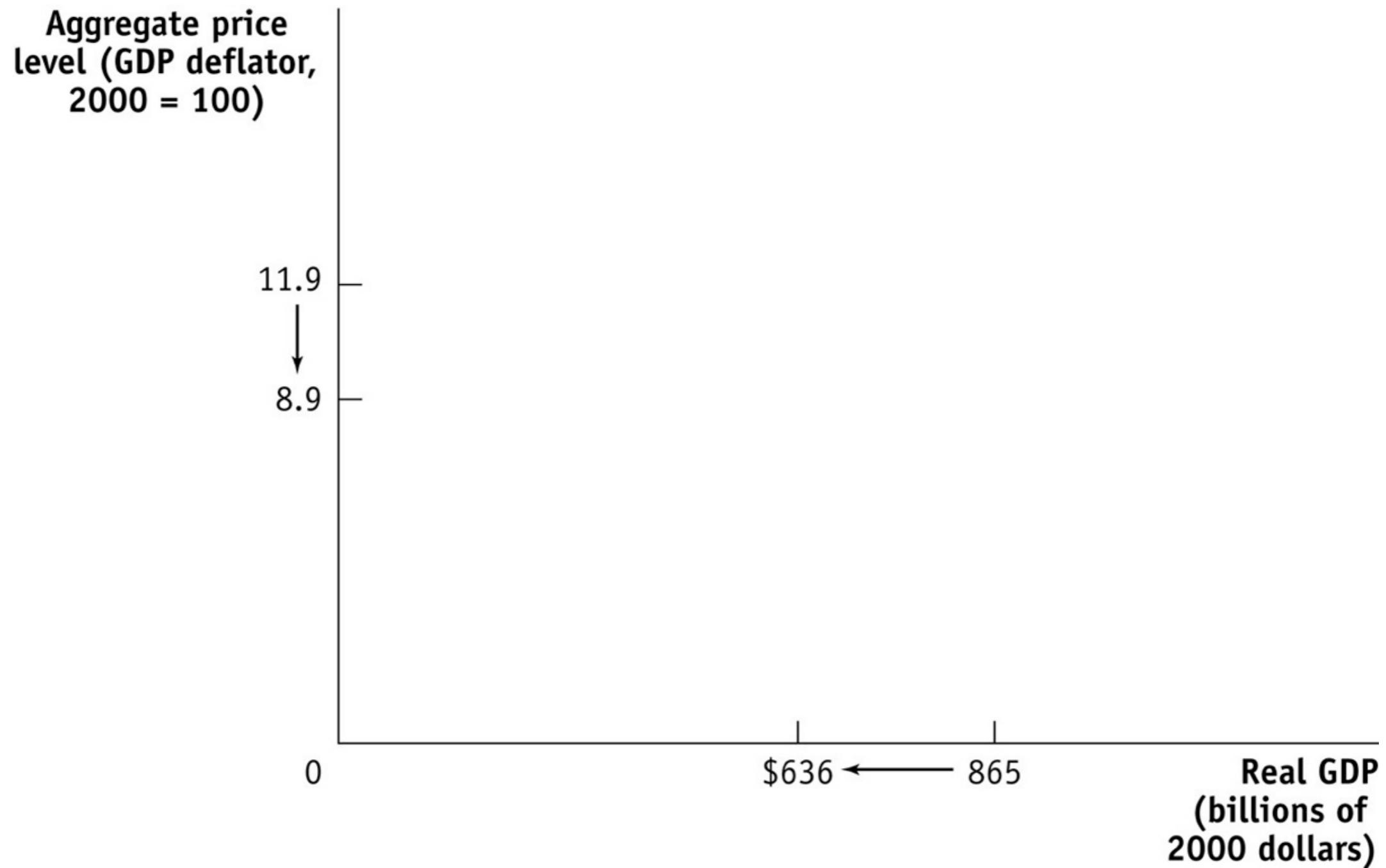
# Moving on the SRAS curve

## USA: 1929 ~ 193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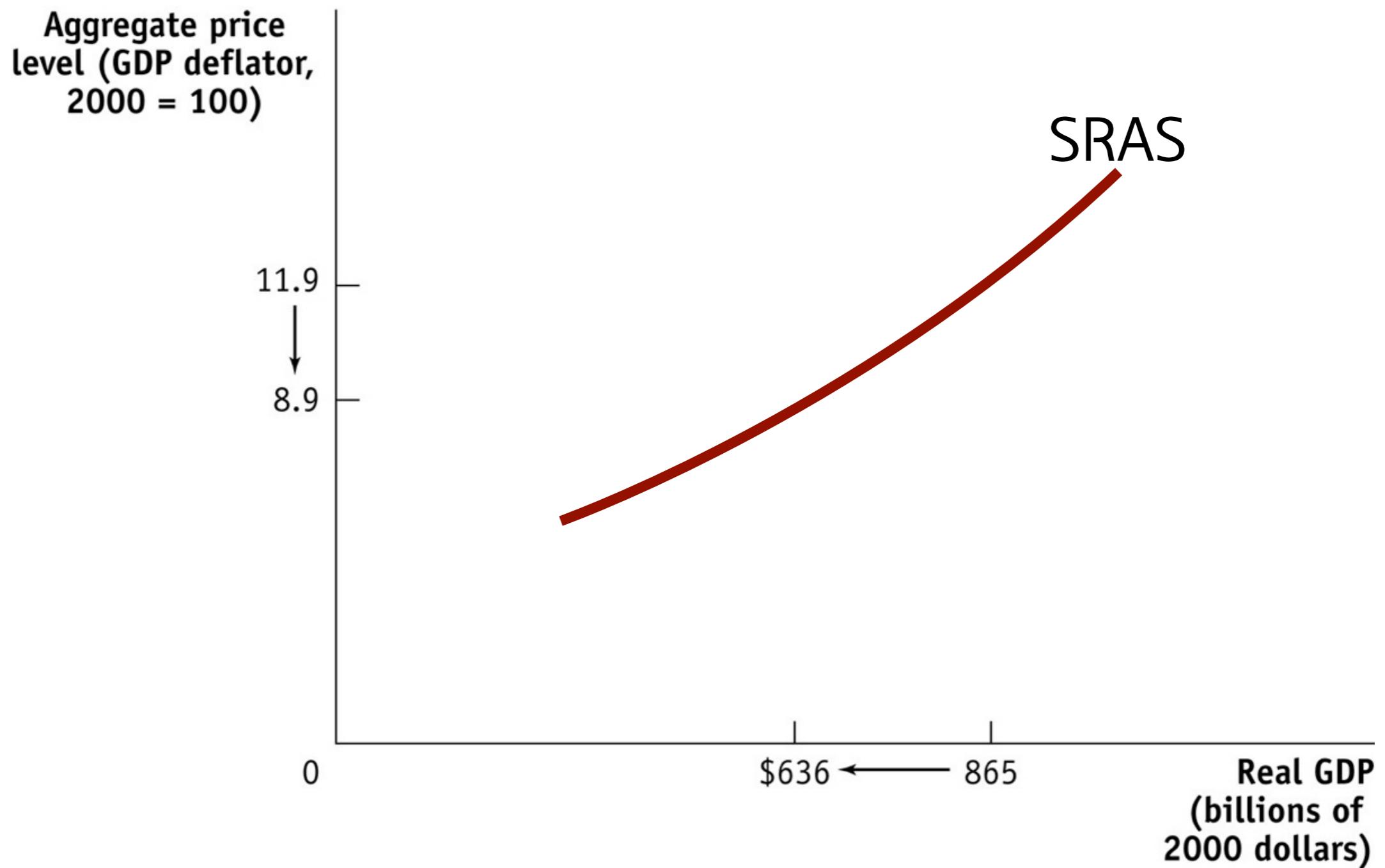
# Movement of SRASC itself

## Ex: Oil price dow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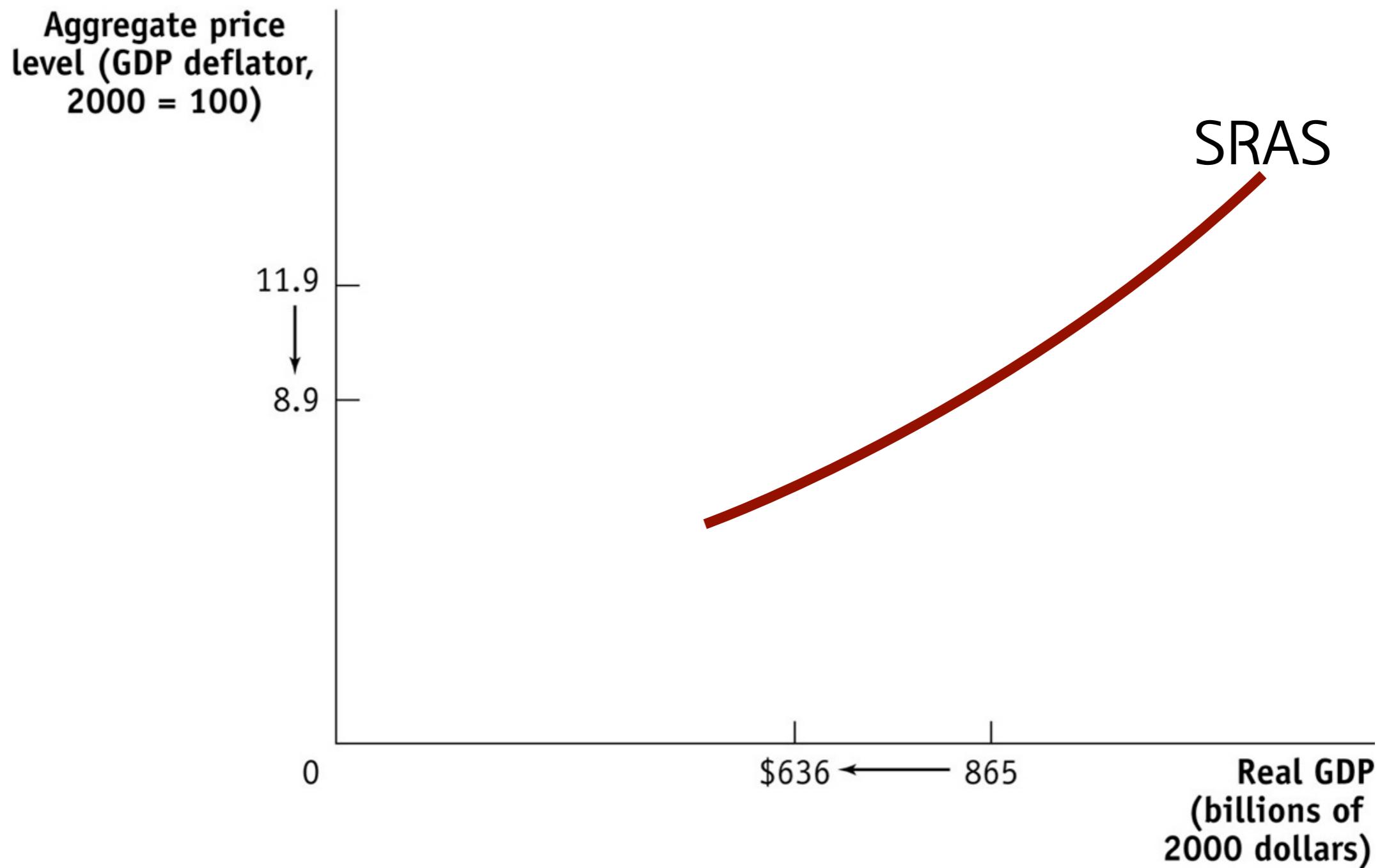
# Movement of SRASC itself

## Ex: Oil price dow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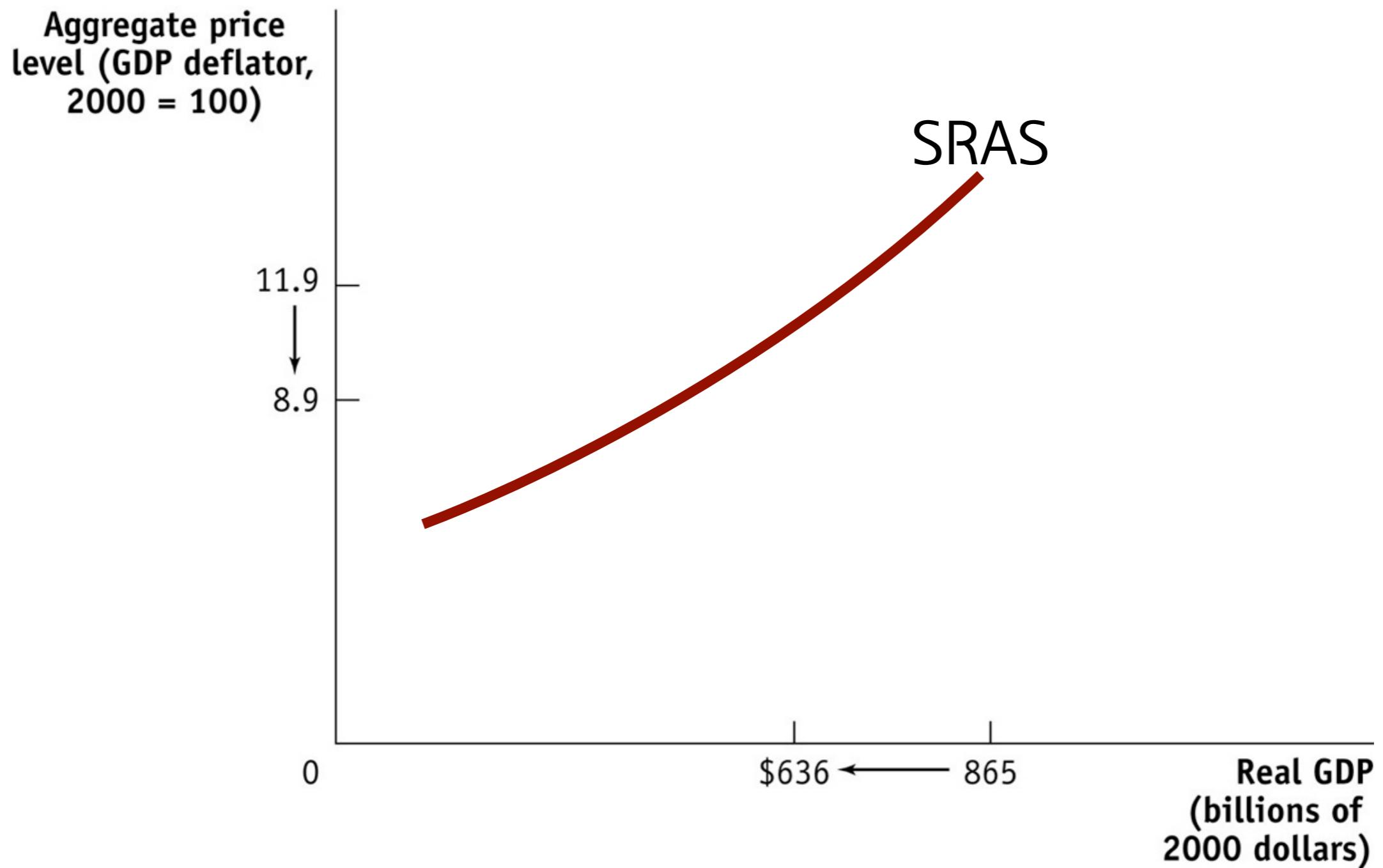
# Movement of SRASC itself

## Ex: Oil price down



# Movement of SRASC itself

## Ex: Oil price down



# SRAS곡선 자체의 이동 Movement of SRASC itself

- 물가 이외의 요인이 **이윤구조**에 변화를 미칠 때 발생
  - 중간재가격의 변화
  - 명목임금의 변화
  - 생산성 변화

# 중간재 가격 변화

Change of Intermediary Commodity Price

- 공급충격: 중간재 가격의 급상승을 일으키는 요인  
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(ex. 유가상승)
- 중간재가격 상승 → 생산비용 증가 → 총생산 감소

# 명목임금변화

## Change of Nominal Wage

- 명목임금 수준(level) 자체의 변화
-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생산성변화와 무관한 것도 있음
  - 예: 복지수준의 상승, 비교역재 임금상승 등
- (생산성 대비) 임금수준상승 → 이윤하락 → SRASC 상승 (혹은 왼쪽이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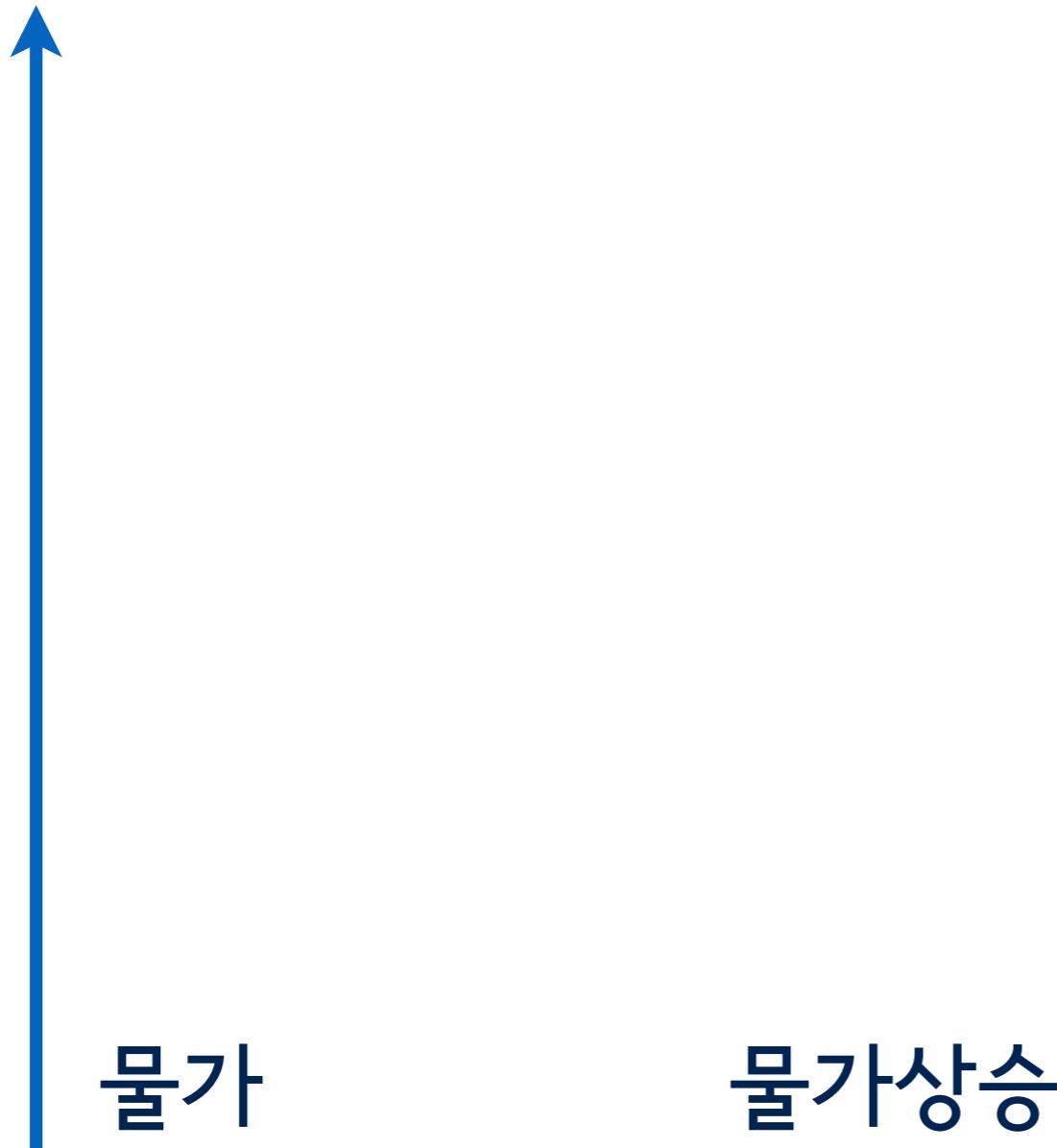
# 물가 - 임금 나선

## Price - Wage Spiral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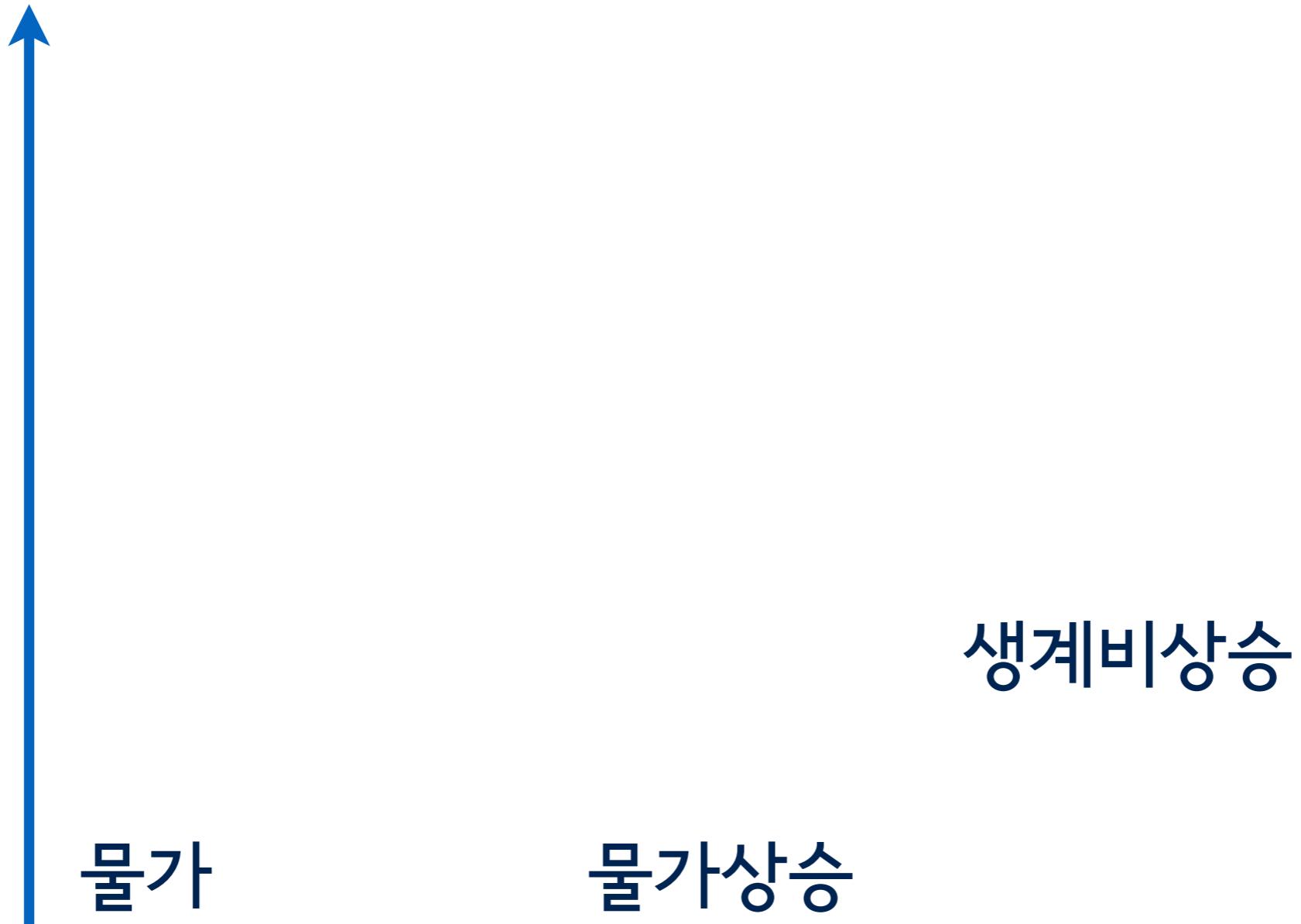
# 물가 - 임금 나선

## Price - Wage Spiral



# 물가 - 임금 나선

Price - Wage Spiral



# 물가 - 임금 나선

Price - Wage Spiral



# 물가 - 임금 나선

Price - Wage Spiral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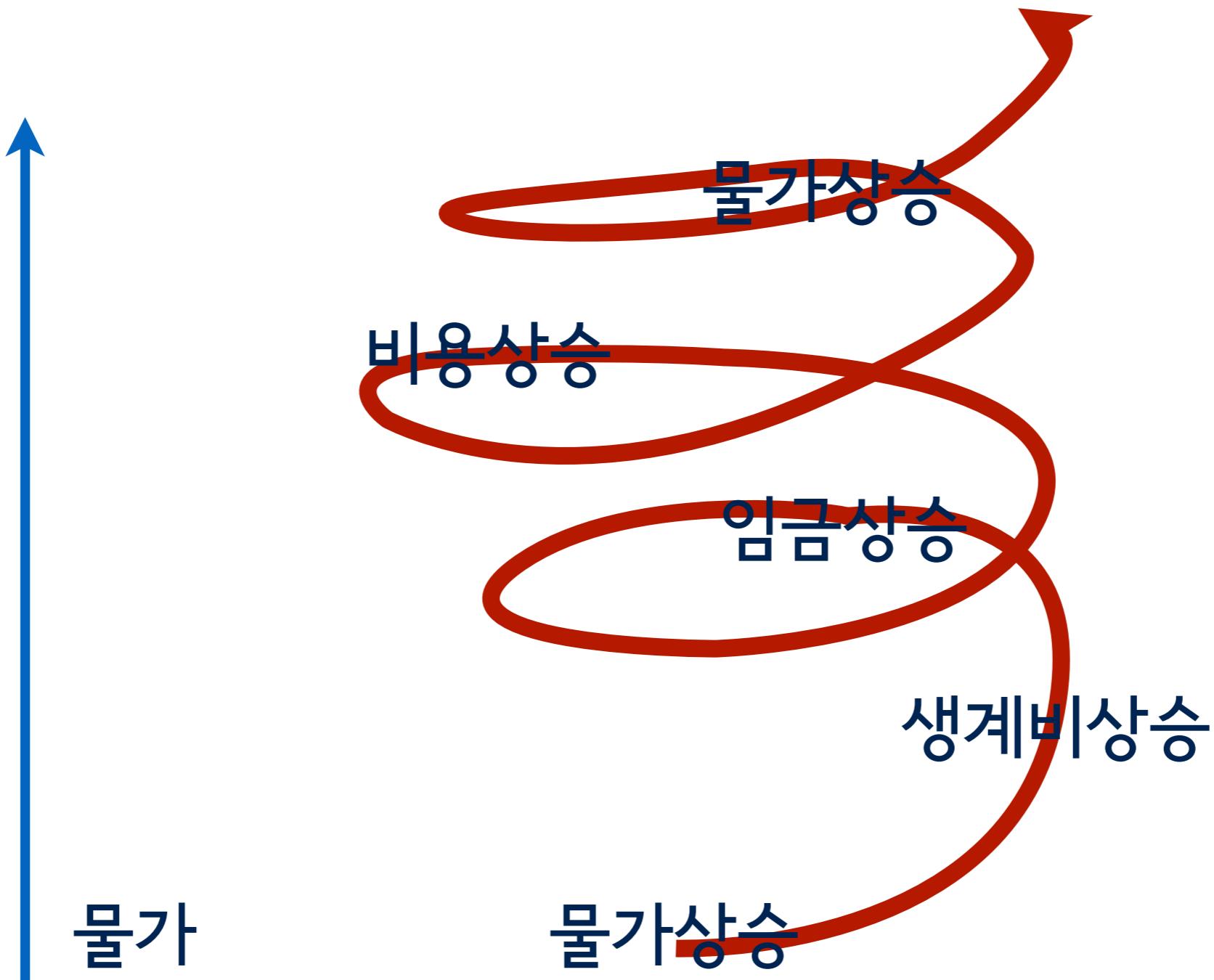
# 물가 - 임금 나선

Price - Wage Spiral



# 물가 - 임금 나선

Price - Wage Spiral



# 생산성 변화

## Change of Productiv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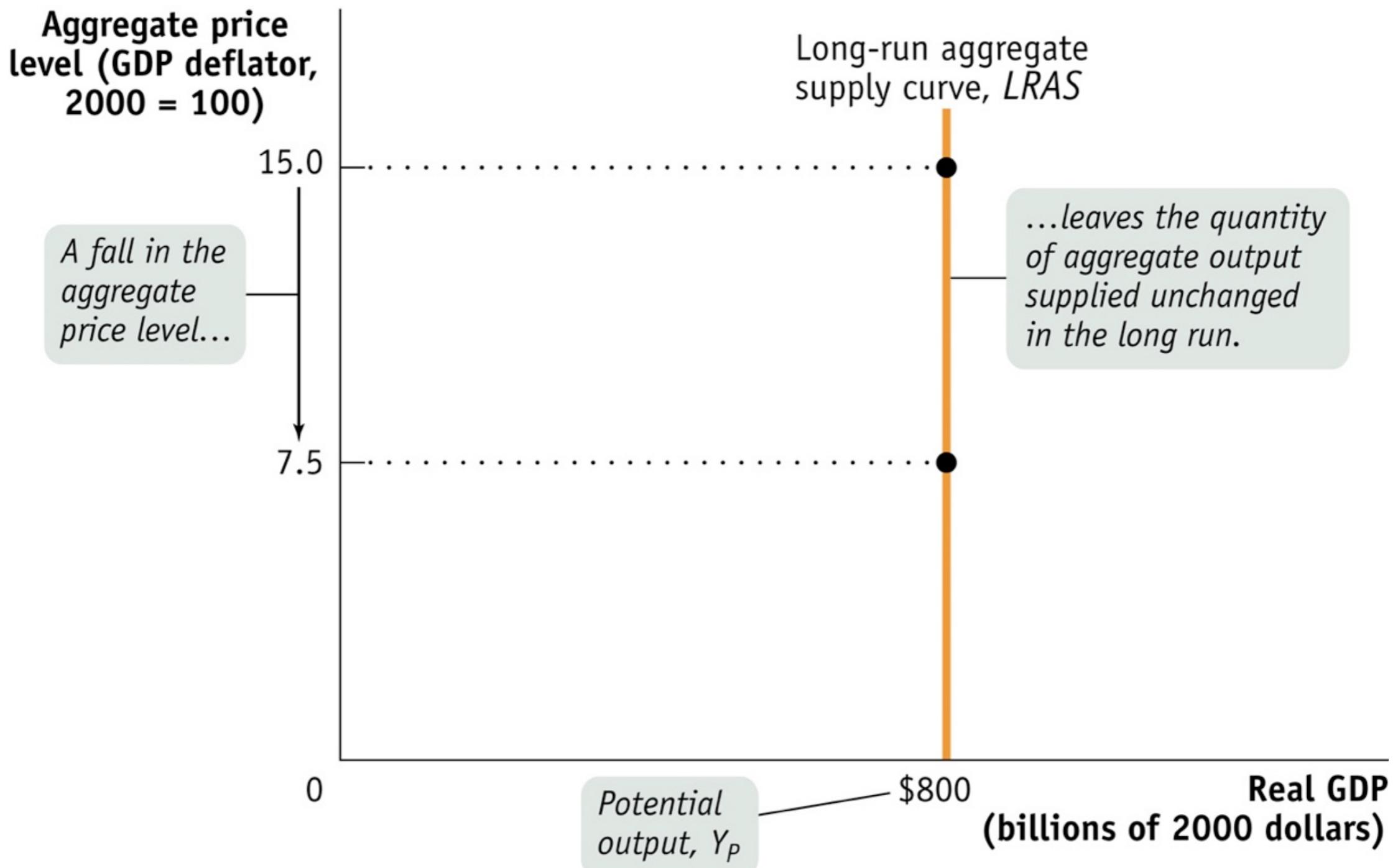
- 결국 공급곡선의 이동은 생산성 변동요인으로 귀결됨
  - 생산성 증가  $\rightarrow$  이윤증가  $\rightarrow$  공급곡선 오른쪽 이동
  - 생산성 하락  $\rightarrow$  이윤감소  $\rightarrow$  공급곡선 왼쪽 이동

# 장기 총공급곡선

## Long Run ASC: LRASC

- 충분히 긴 시간상(장기)에서는 모든 비용이 경직성을 뒷임(= 신축적이 됨)
- 모든 비용이 신축적일 경우 물가는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음
- [이윤] := [수입] - [비용]
- 가격증가[감소]  $\rightarrow$  수입증가[감소] + 비용증가[감소]  $\rightarrow$  실질이윤 동일
- 결론: 가격증감은 생산량에 변화를 주지 않음  $\rightarrow$  물가수준과 관계없이 생산량 수준 결정

# 장기 총공급곡선 LRAS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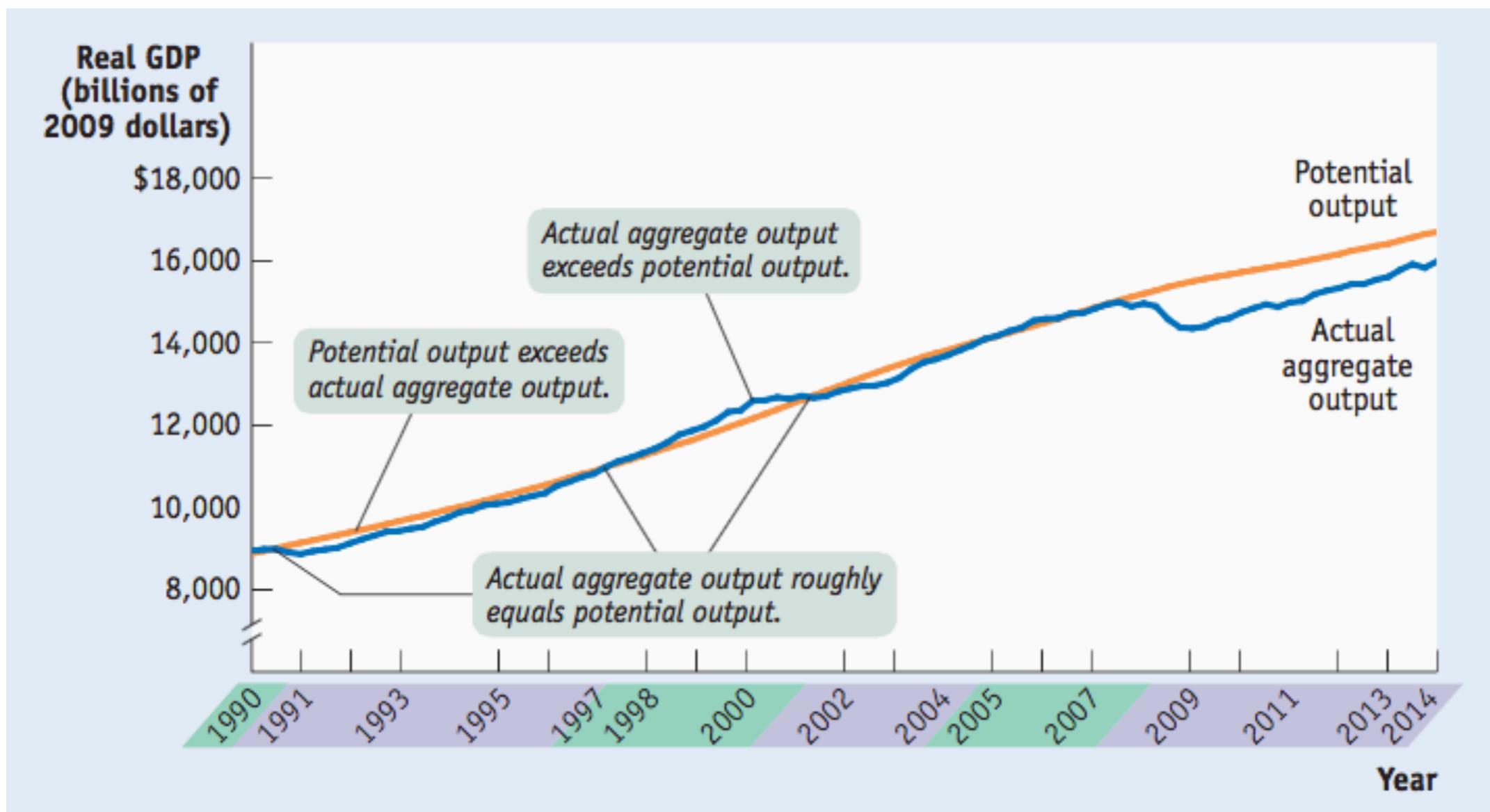


# 잠재생산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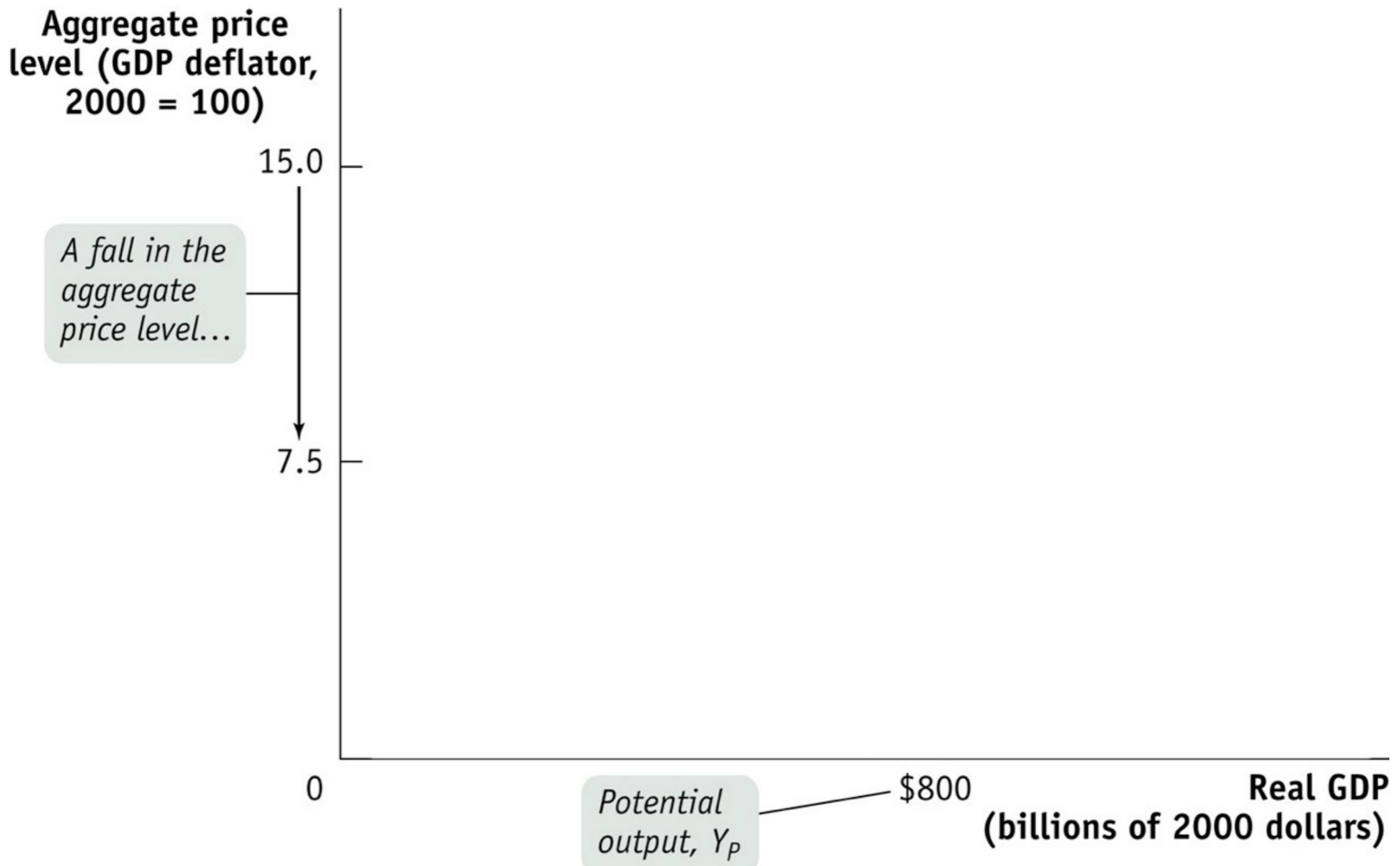
## Potential Output

- 모든 상품의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일때 한 경제가 생산할 rGDP
  - 경기변동이 중립일 때의 rGDP
- 실제 총생산은 잠재생산량을 중심으로 변동의 중심
- 잠재생산량 증가의 그래프적 의미: LRASC의 오른쪽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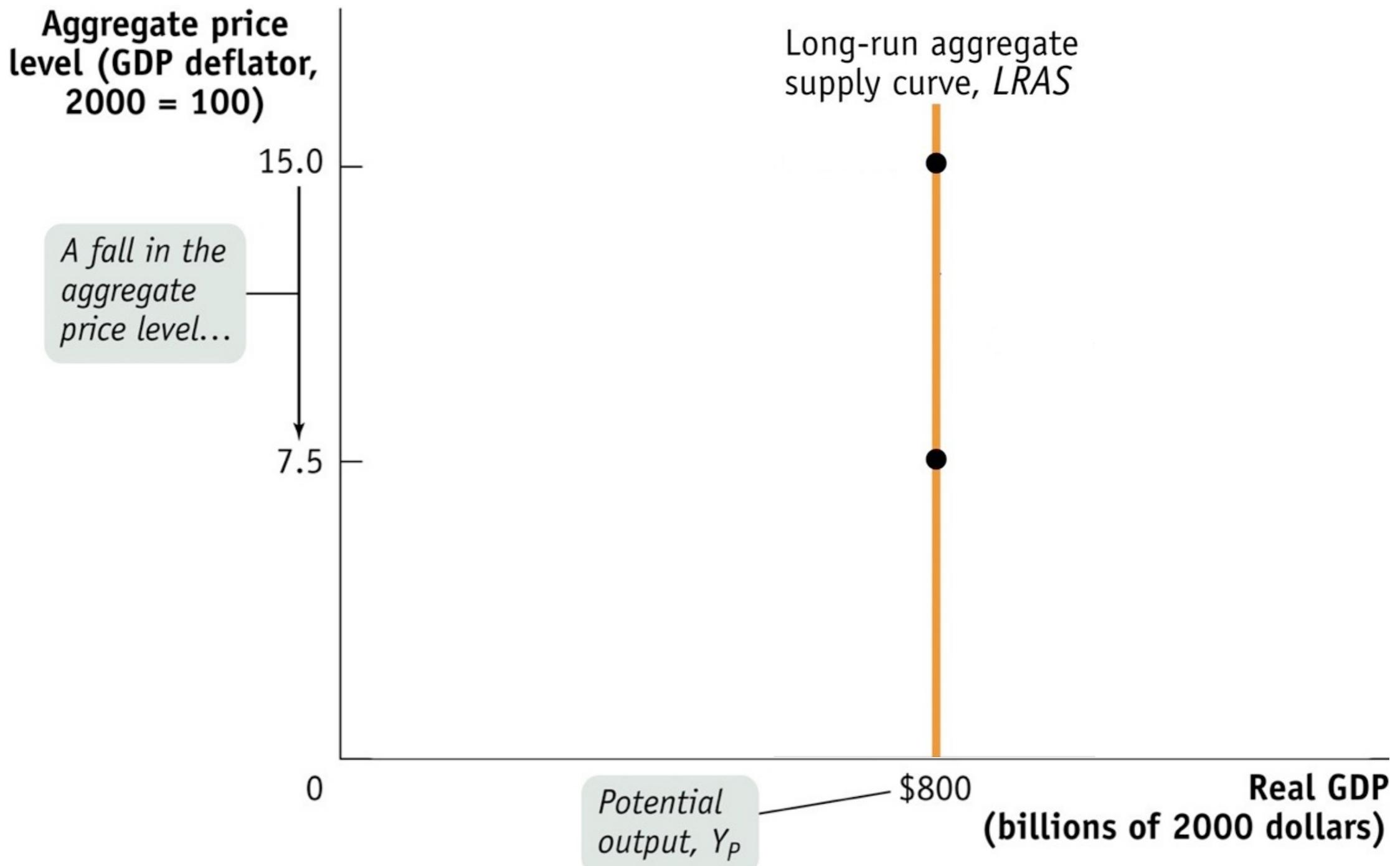
# The Potential Output of USA: 1990~201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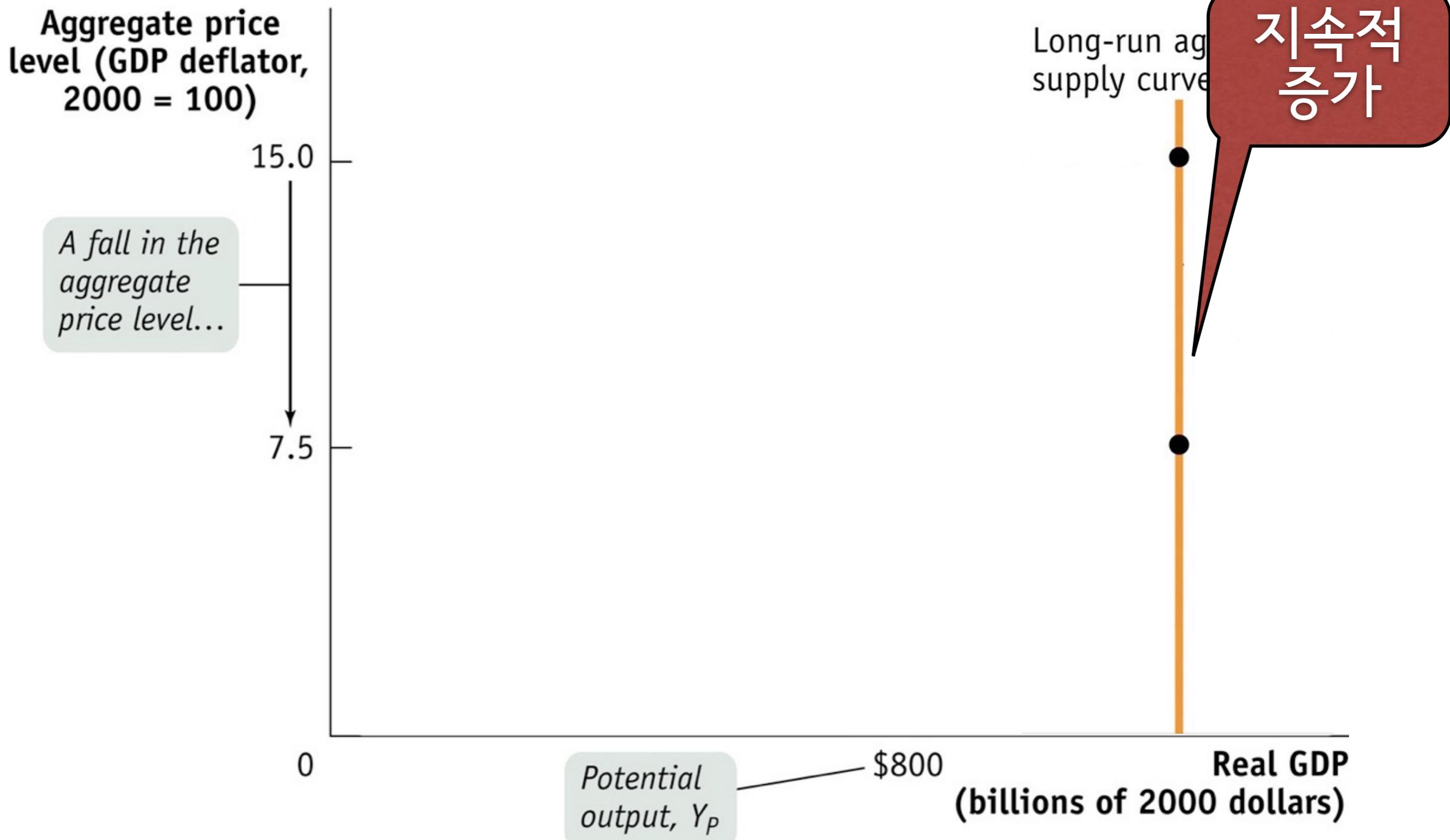
# 장기 총공급곡선 LRAS<sup>C</sup>



# 장기 총공급곡선 LRASC



# 장기 총공급곡선 LRAS<sup>C</sup>



# 잠재생산량의 지속적 증가원인

## Causes of Gradual Increase of P.O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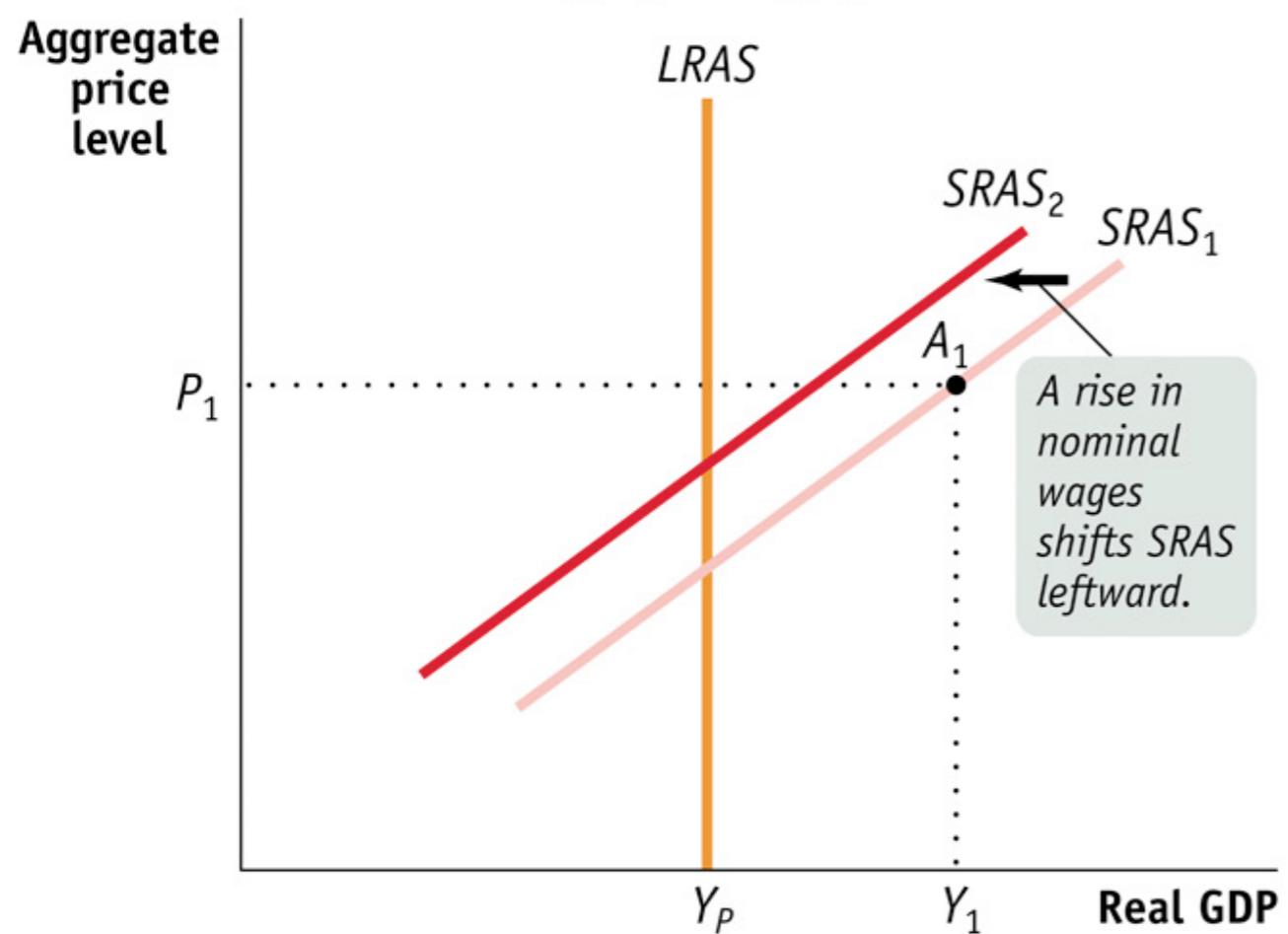
- 장기성장의 요인과 동등 (equivalent): 생산성 증가
  - K/L 증가
  - H/L 증가
  - 기술진보

# 단기 공급곡선의 장기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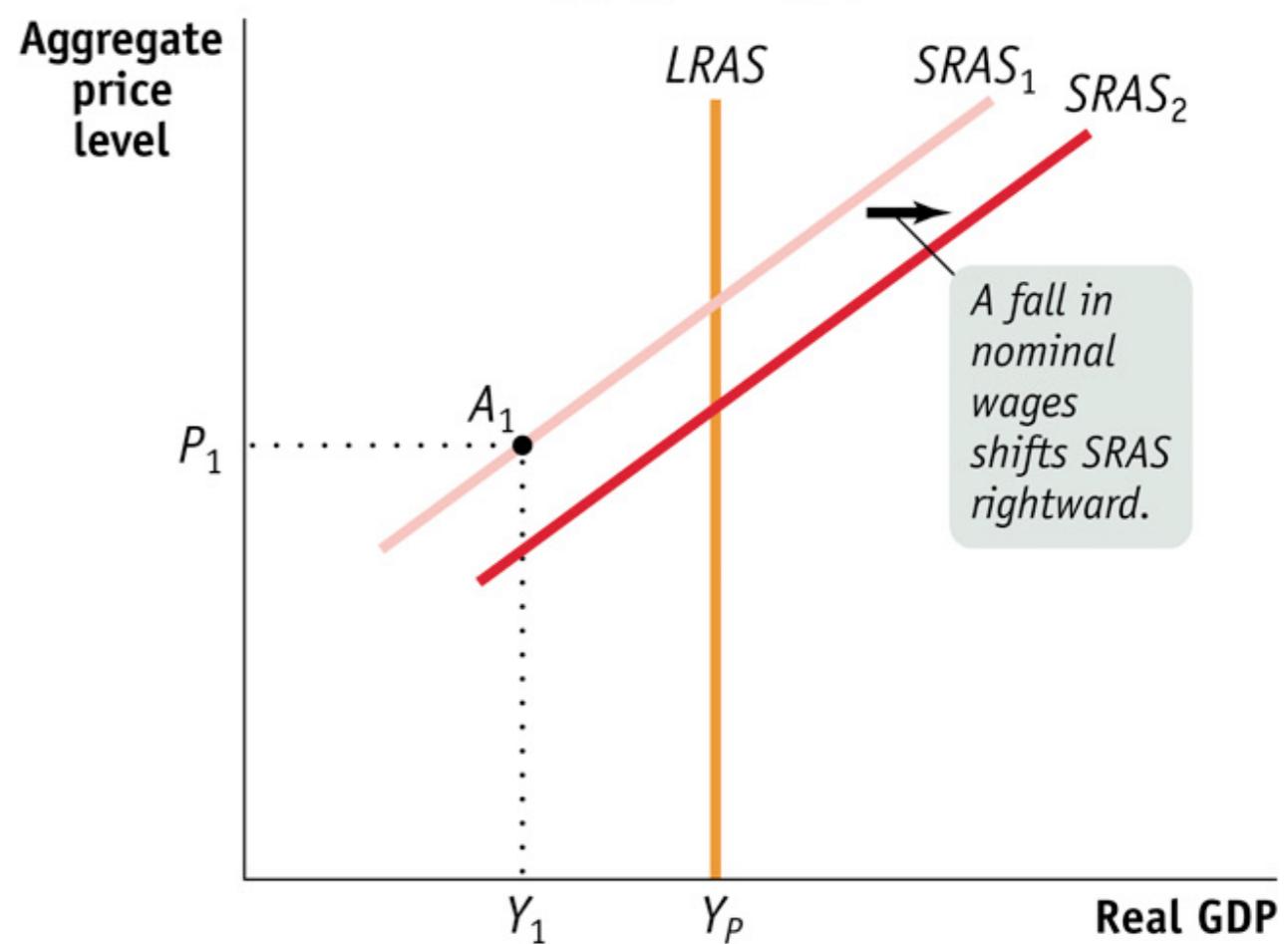
## LR Adjustment of SRASC

- $Y$ ; Output,  $Y^*$ ; Potential Output
  - $Y > Y^*$  : SRASC shifts left
  - $Y < Y^*$  : SRASC shifts righ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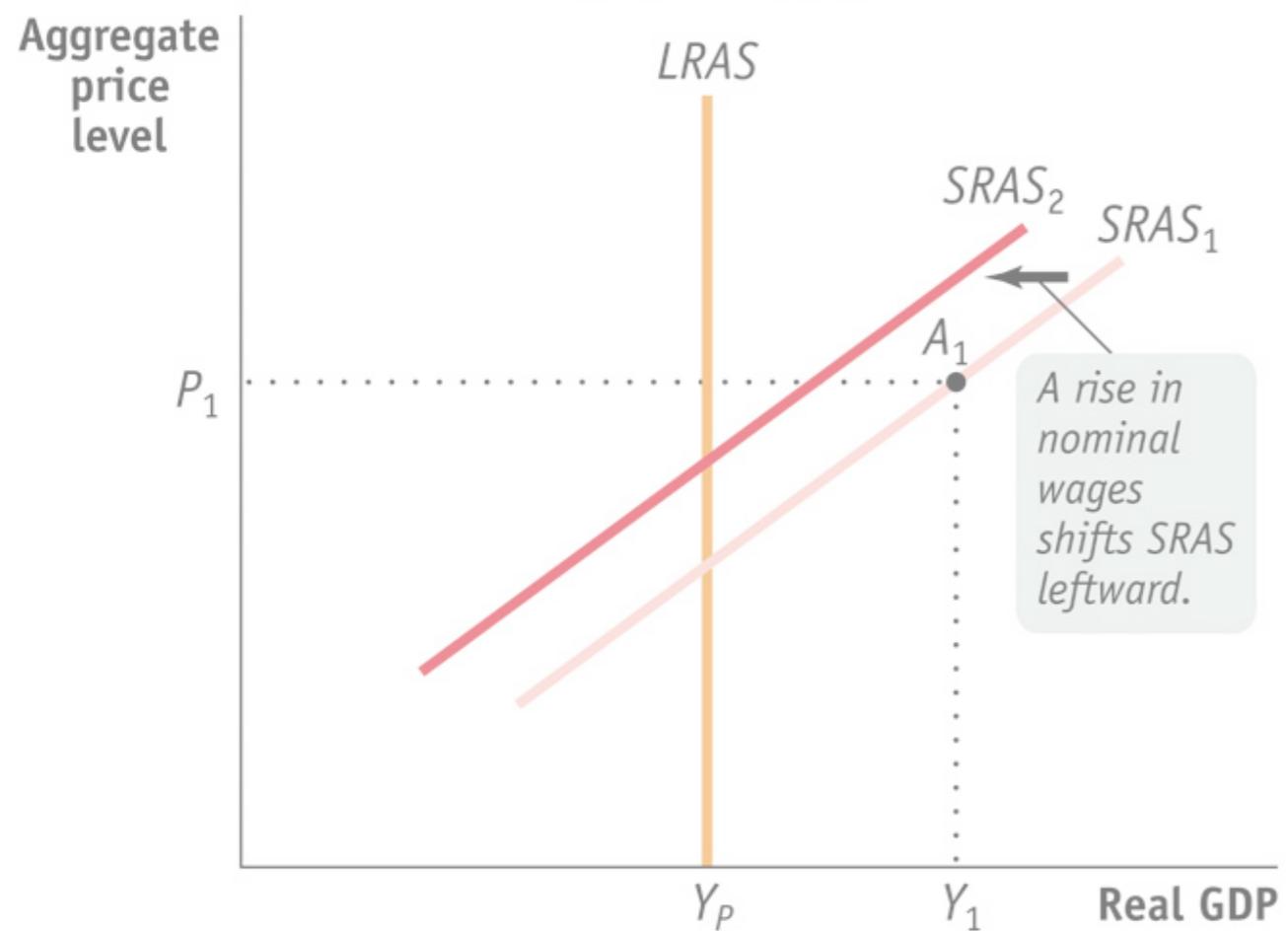
(a) Leftward Shift of the Short-run Aggregate Supply Curv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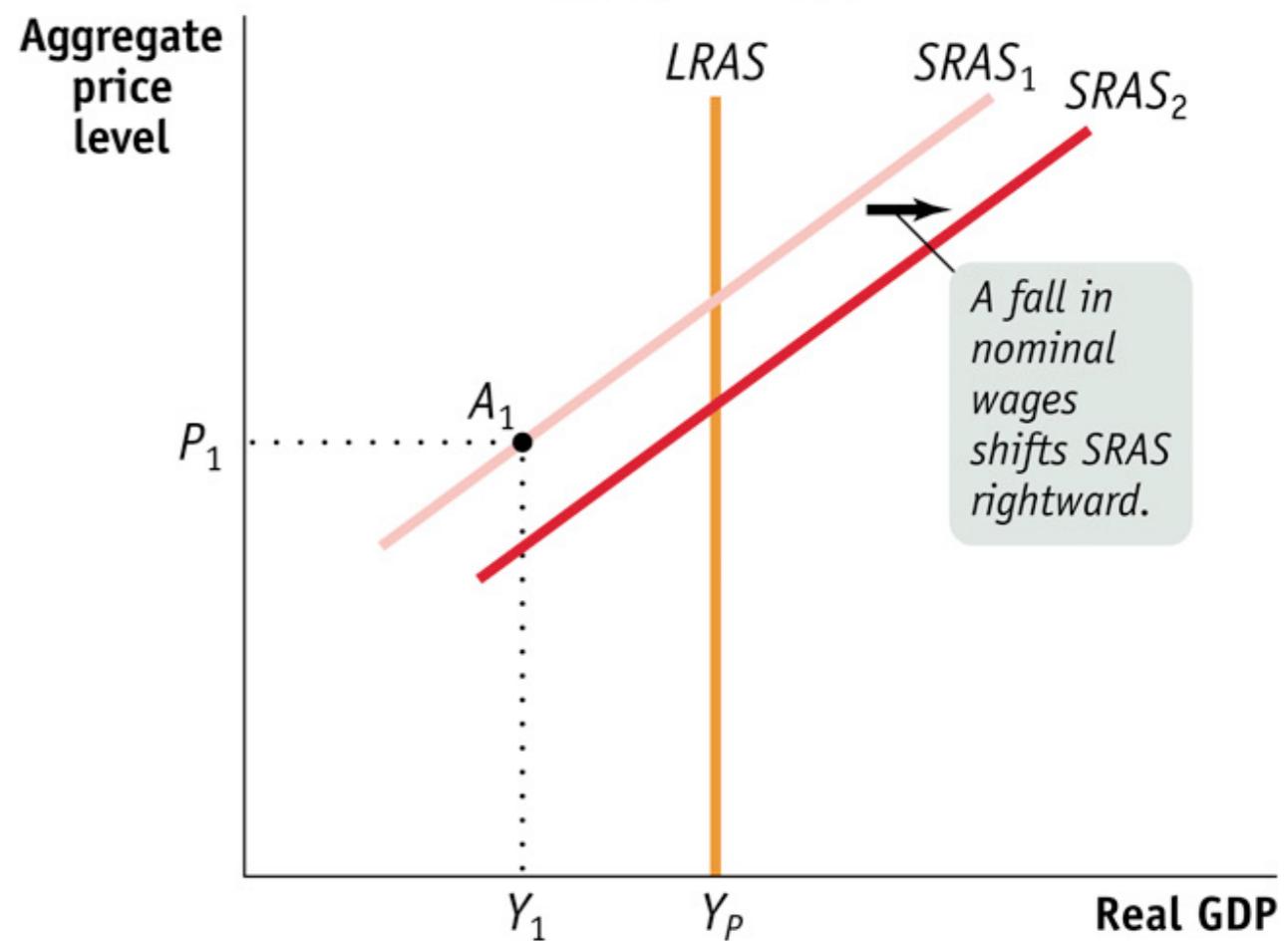
(b) Rightward Shift of the Short-run Aggregate Supply Curv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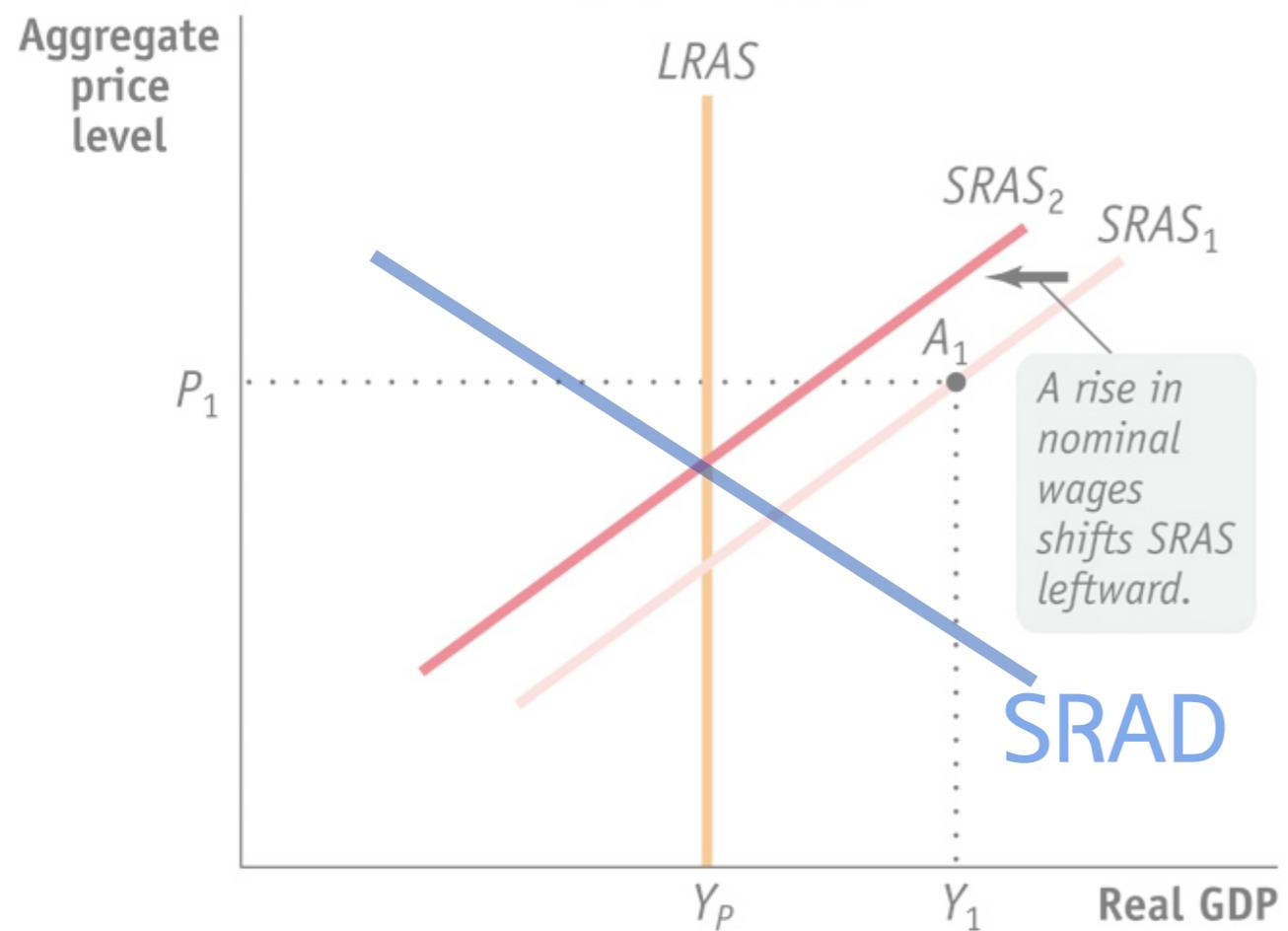
(a) Leftward Shift of the Short-run Aggregate Supply Curv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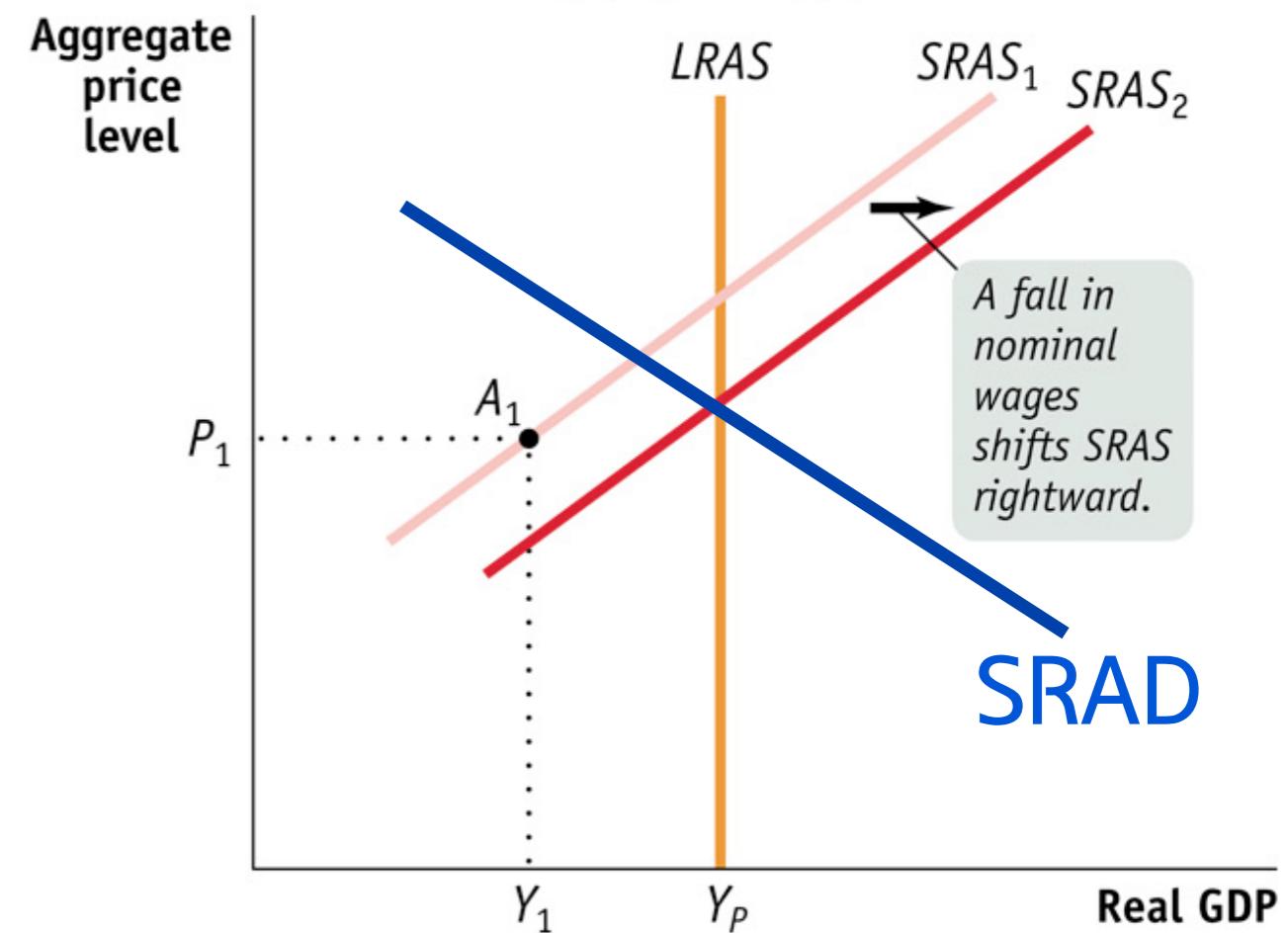
(b) Rightward Shift of the Short-run Aggregate Supply Curve



(a) Leftward Shift of the Short-run Aggregate Supply Curve



(b) Rightward Shift of the Short-run Aggregate Supply Curve



# **총수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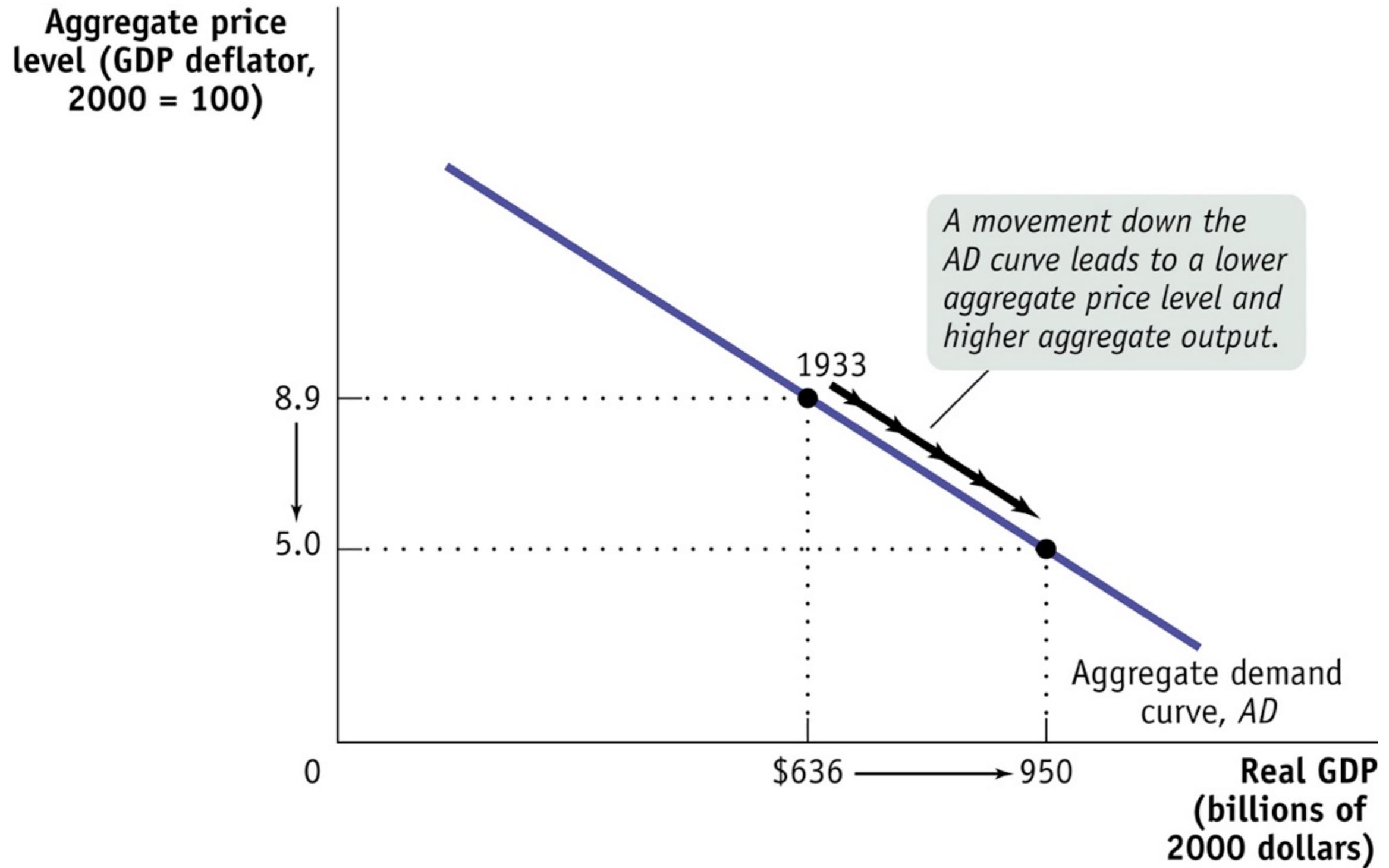
# **Aggregate Demand**

# 총수요곡선

## Aggregate Demand Curve

- 총생산물에 대한 수요량과 물가간의 관계
-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(*ceteris paribus*), 물가가 상승할 경우 총생산물의 수요량은 감소한다.
- **자산효과**: 물가하락[상승]이 가져오는 보유화폐의 자산증가[감소] 효과 → 수요증가[감소]
- **이자율효과**: 물가하락[상승]  $\rightarrow$  보유화폐감소[증가]  $\rightarrow$  자금수요감소[증가]  $\rightarrow$  이자율하락[상승]  $\rightarrow$  투자지출 증가[감소], 소비지출 증가[감소]

# AD curve



# AD curve 도출

## Deriving AD curve

- $GDP := C + I + G + X - IM$ 
  -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 $G$ 는 무시 (차후 재정정책에서 다룸)
- 물가 변화에 따라  $C+I+G+X-IM$ 의 움직임을 도출하면 됨.
- 주의!! 개별 수요곡선의 단순합  $\neq$  ADC
  - 개별 수요곡선의 가격은 상대적 가격
  - 거시 수요곡선에서의 가격은 절대적 수준

# 물가와 최종생산물 수요

##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AD

- 물가변화의 자산효과(wealth effect)
- 물가변화의 이자율효과(interest rate effect)

# 자산효과

## Wealth Effect

- 물가 변화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 
효과
- 물가의 변화는 보유자산의 구매력 변화를 수반함

구매력

**짜장면가격  
5000원**

**구매력**

**짜장면가격  
5000원**



**구매력**

**짜장면가격  
5000원**



**구매력**

**짜장면가격  
5000원**



**구매력**

**짜장면가격  
10000원**

**짜장면가격  
5000원**



# 구매력

**짜장면가격  
10000원**



**짜장면가격  
5000원**



# 구매력

**짜장면가격  
10000원**



# 자산효과의 영향

## Influence of Wealth Effect

- 물가상승 ➡ 보유자산 하락효과 ➡ 소비지출(C)  
감소

# 이자율효과

## Interest Rate Effect

- 화폐: 현금+현금등가물 (당좌예금, 보통예금, 만기 3개월이내의 유가증권/단기금융상품)
- 개인이던 기업이던 항상 일정량의 화폐는 보유할 필요가 있음(실질기준)
- 물가상승  $\rightarrow$  보유화폐상승  $\rightarrow$  금융시장 공급감소/수요증가  $\rightarrow$  이자율상승  $\rightarrow$  하락, C 감소(S 상승)

# 이자율효과: 해외부문

## Interest Rate Effect: Foreign Sector

- 이자율 상승은 환율에 영향을 미쳐 (환율 하락) X 를 줄이고 IM을 늘리는 효과를 발생시킴.
- 34장 (Open Economy)에서 상술

# AD곡선의 이동요인

## Causes of AD curve Movement

- 기대변화(Change of Expectation)
- 자산증감(Change of Asset)
- 실물자본변화(Change of Physical Capita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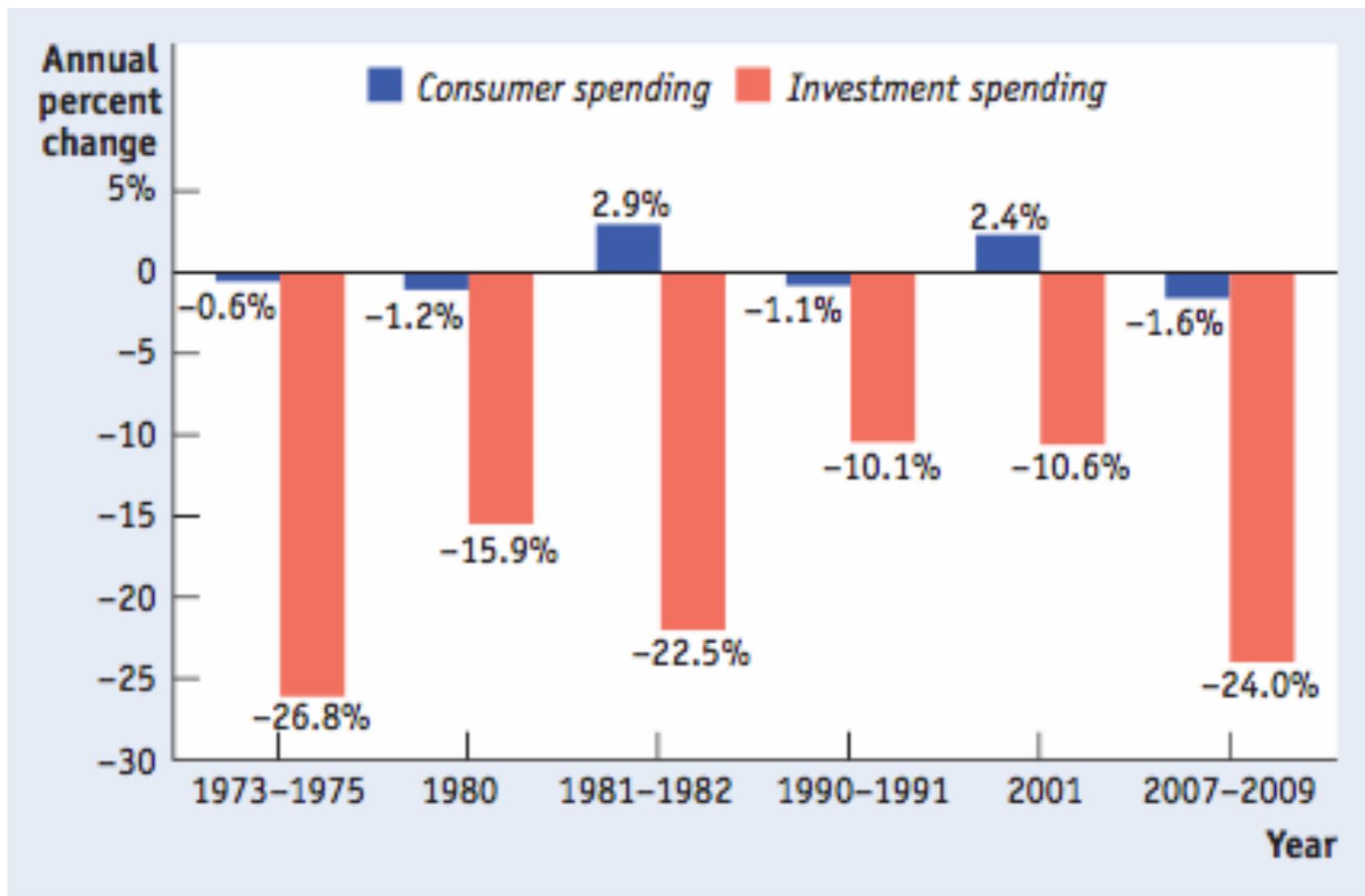
# 기대변화

## Change of Expectation

- C와 I, 특히 I는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
  - 시장상황이 악화[개선]될 것이라는 기대가 근거 없더라도 실제로 대다수가 그렇게 기대한다면 총 생산이 저하[증가]될 수 있음 (자기실현적 기대 Self-fulfilling Expectation)
- 소비자신뢰지수(CCI) 등으로 측정

# Fluctuations in I, C

I가 C에 비해 민감함



# 자산의 변화

## Change of Asset

- 비화폐 자산의 실질가치(명목가치가 아님!) 상승 ➔  
자산의 구매력 증가 ➔ C 증가
- 예: 주가상승, 부동산가격 상승

# 실물자본의 변화

## Change of Physical Capital

- 보유 실물자본의 과다할 경우:
  - 투자지출을 줄여 대응
  - ⇒ | 감소

# 정부정책과 총수요

## Government Policy and AD

- 정부가 총수요곡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: 수요정책
  - 재정정책
  - 통화정책
- 깊은 내용은 28, 30장에서 다름

# 재정정책

## Fiscal Policy

-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(G) 이전지출을 하기 위해(TR) 정부재정을 사용하는 정책
- 정부의 재화/서비스 구매총액  $G$ : 총수요곡선에 직접 영향을 행사
- 정부구매 증가[감소]: 총수요곡선을 오른쪽[왼쪽]으로 이동시킴
- 이전지출 (TR):  $C$ 를 상승시킴으로써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킴

# 통화정책

## Monetary Policy

-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정책
- 총 화폐량과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
- 화폐량증가  $\blackrightarrow$  이자율하락  $\blackrightarrow$  C, I증가  $\blackrightarrow$  총수요곡선 오른쪽 이동
- 현대 통화정책은 이자율 (기준금리) 조정정책이 대세

# 다음 주제

## next topic

- 승수이론(multiplier theory)
- 총공급 - 총수요 모형(AS-AD model)

# 수고하셨습니다!



# 수고하셨습니다!



승수  
Multiplier

# 승수효과

## Multiplier Effect

- 투자지출이 가령 10억\$ 증가하고,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수요곡선은 얼마나 오른쪽으로 이동할까?
- 10억\$만큼만 이동할까?
- $|++ \rightarrow$  가치분소득 $++ \rightarrow C++ \rightarrow |++ \rightarrow \dots$
- 과연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?

# Assumptions

- $\Delta C, \Delta I \uparrow \implies GDP \rightarrow GDP + \Delta C + \Delta I$  directly  
(no price change)
- Interest rate as given
- $G=0, T=0$  (no Government spending)
- $X=IM=0$  (no Trade)

# 한계소비성향

MPC;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

- 가처분소득 1단위 증가할 때의 소비지출 증가액
- 가처분소득(Disposable Income)
  - $DY := \text{세후소득} = Y - T$
  - 단순화를 위해 정부부문 제거;  $G=T=0$
- $MPC := \frac{\Delta C}{\Delta DY}$
- $0 < MPC < 1$

# 한계저축성향

MPS; Marginal Propensity to Save

- 가처분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의 가계저축 증가액
- $S \equiv Y - C$ ,  $DY = Y - T = Y$  ( $T=0$ )이므로
- $MPS \equiv \Delta S / \Delta DY = (\Delta Y - \Delta C) / \Delta DY = 1 - MPC$
- 매기 추가적 소득중 MPS만큼의 양이 저축으로 들어감

# 투자지출의 증폭과정

## Amplifying Sequence of I

$$\Delta GDP = (1 + MPC + MPC^2 + \dots) \Delta I = \sum_{n=0}^{\infty} MPC^n \Delta I = \frac{1}{1 - MPC} \Delta I$$

- YEAR0:  $\Delta I = 100 \longrightarrow \Delta DY = 100$
- YEAR1:  $\longrightarrow \Delta C = MPC \Delta DY \longrightarrow \Delta I = MPC * 100$
- YEAR2:  $\longrightarrow \dots \longrightarrow MPC^2 * 100$
- ..
- YEARn:  $\longrightarrow \dots \longrightarrow MPC^{(n-1)} * 100$

# MPC=0.6, $\Delta I = 50$

$$\Delta GDP = \frac{1}{1 - MPC} \Delta I = \frac{1}{1 - 0.6} * 50 = 125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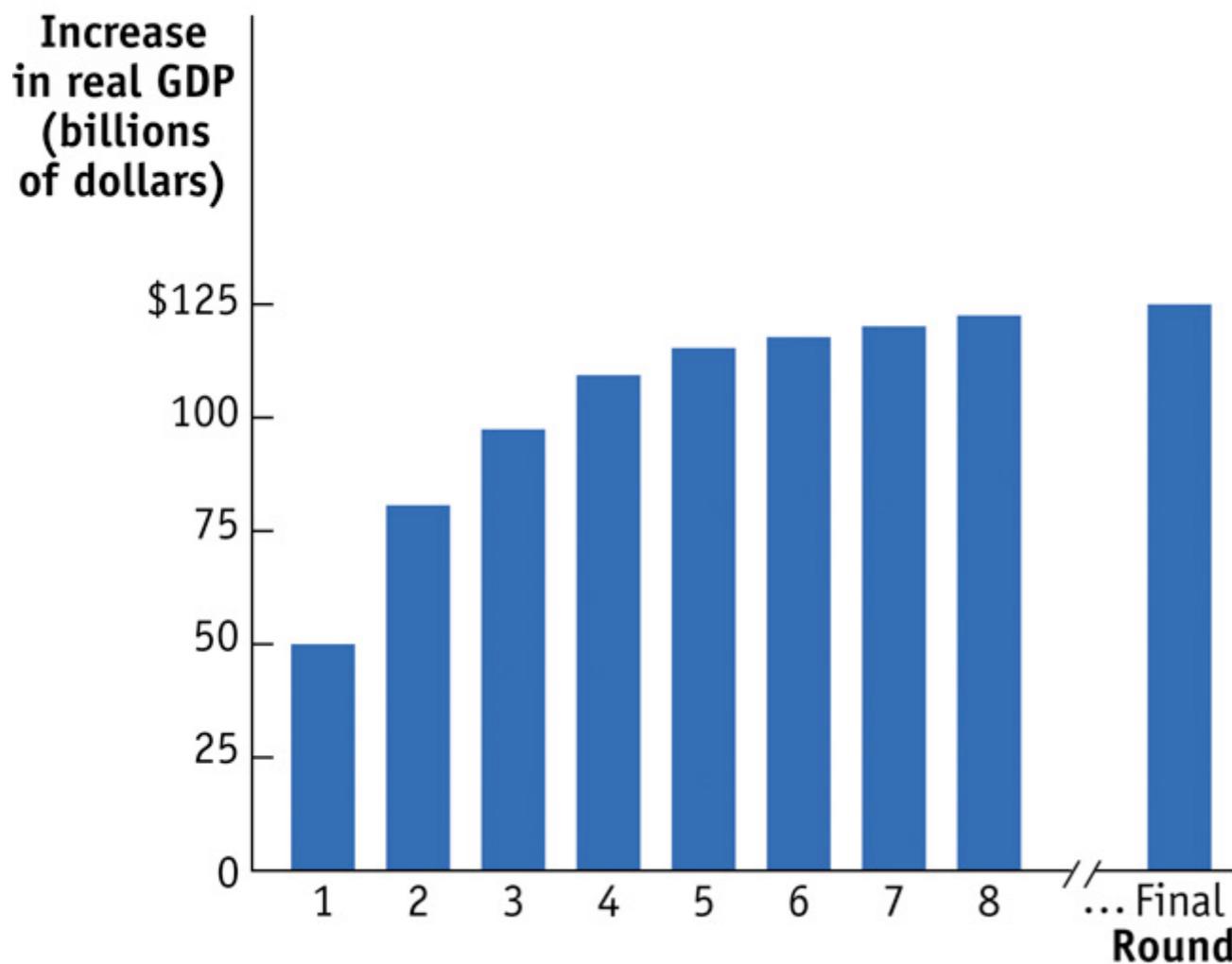
TABLE 10-1

### Rounds of Increases of Real GD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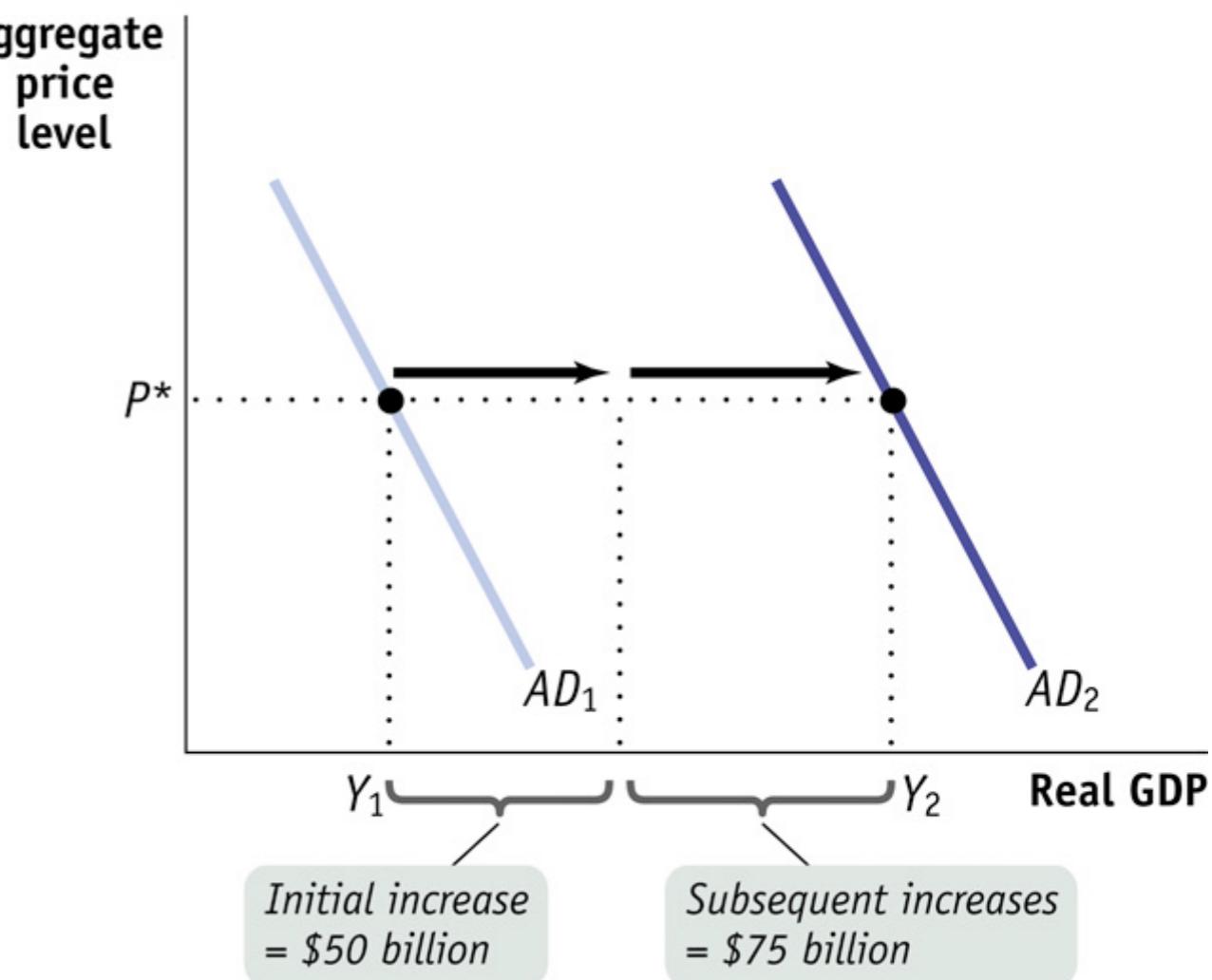
	Increase in real GDP (billions of dollars)	Total increase in real GDP (billions of dollars)
First round	\$50	\$50
Second round	30	80
Third round	18	98
Fourth round	10.8	108.8
...	...	...
Final round	0	125

# Graphical Explanation

(a) Rounds of Cumulative Increases in Real GD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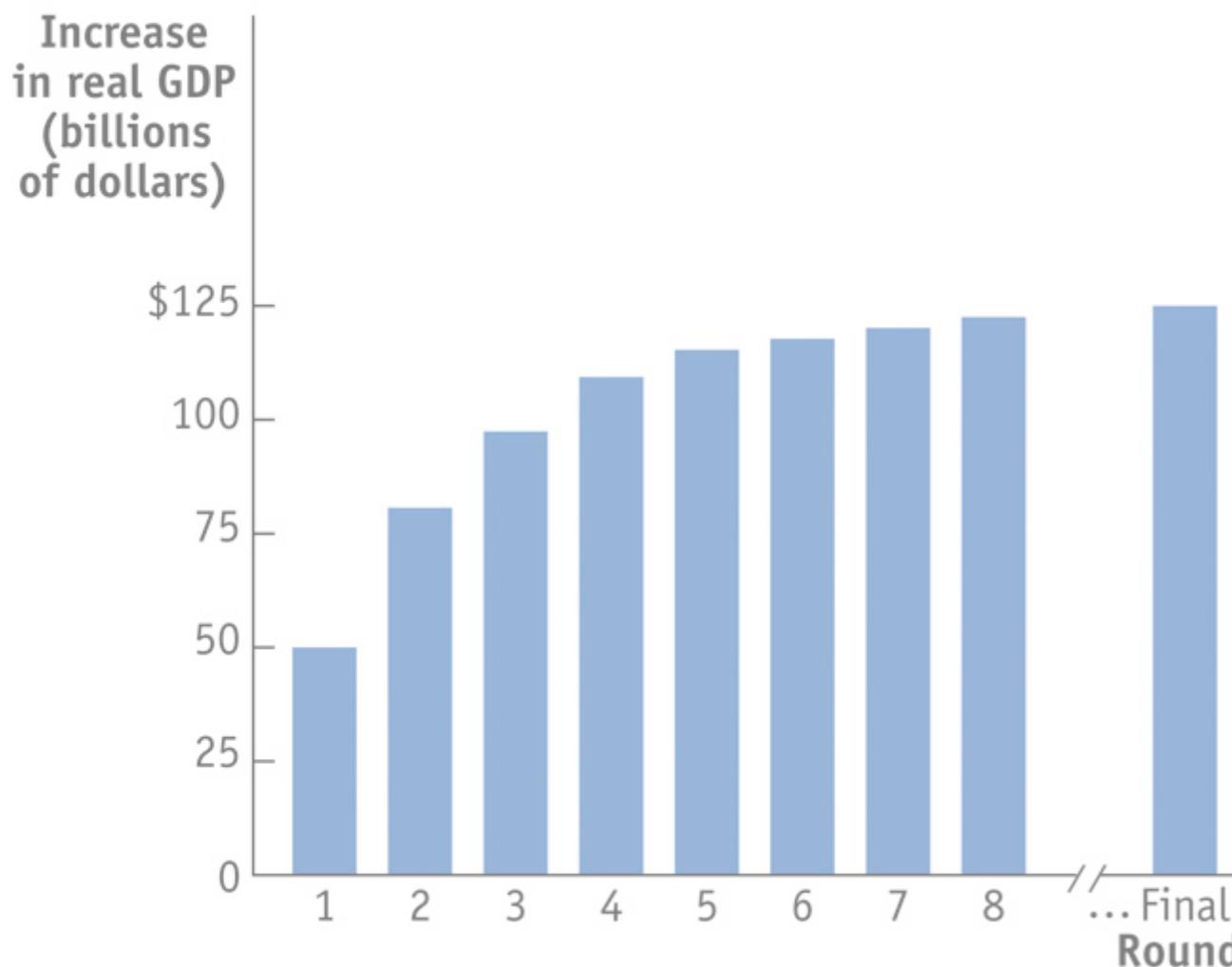


(b) The Corresponding Effect on Aggregate Dema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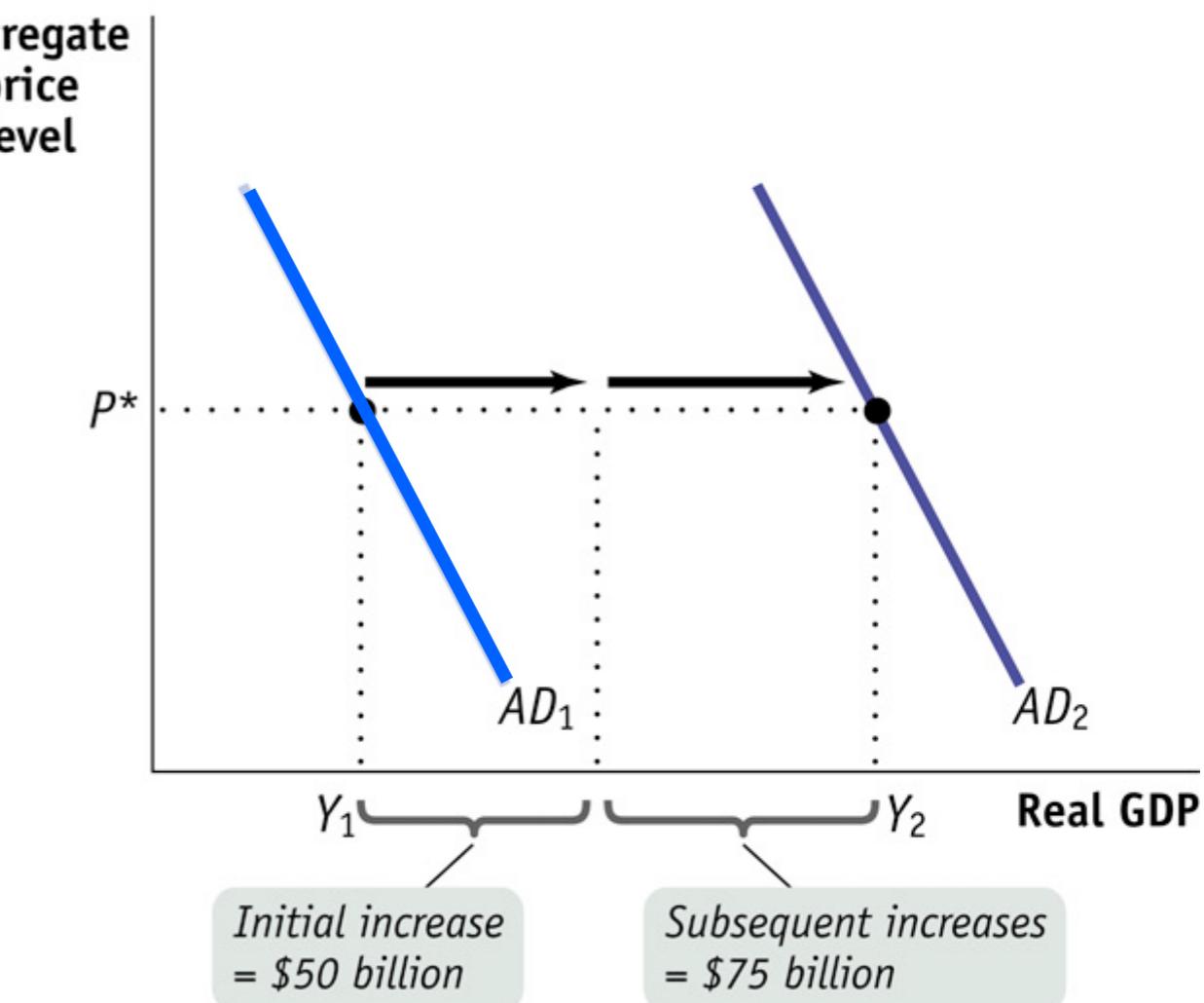


# Graphical Explan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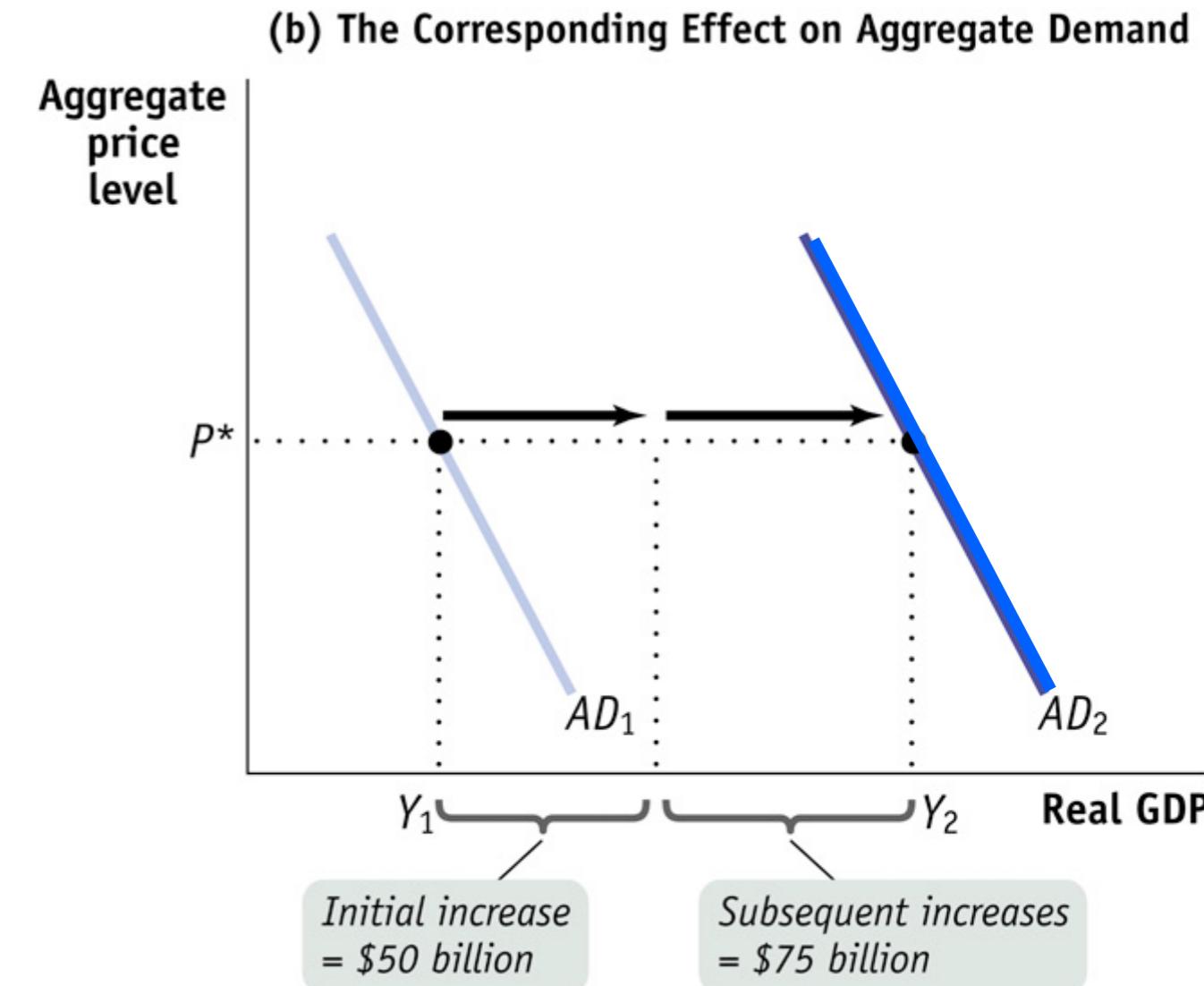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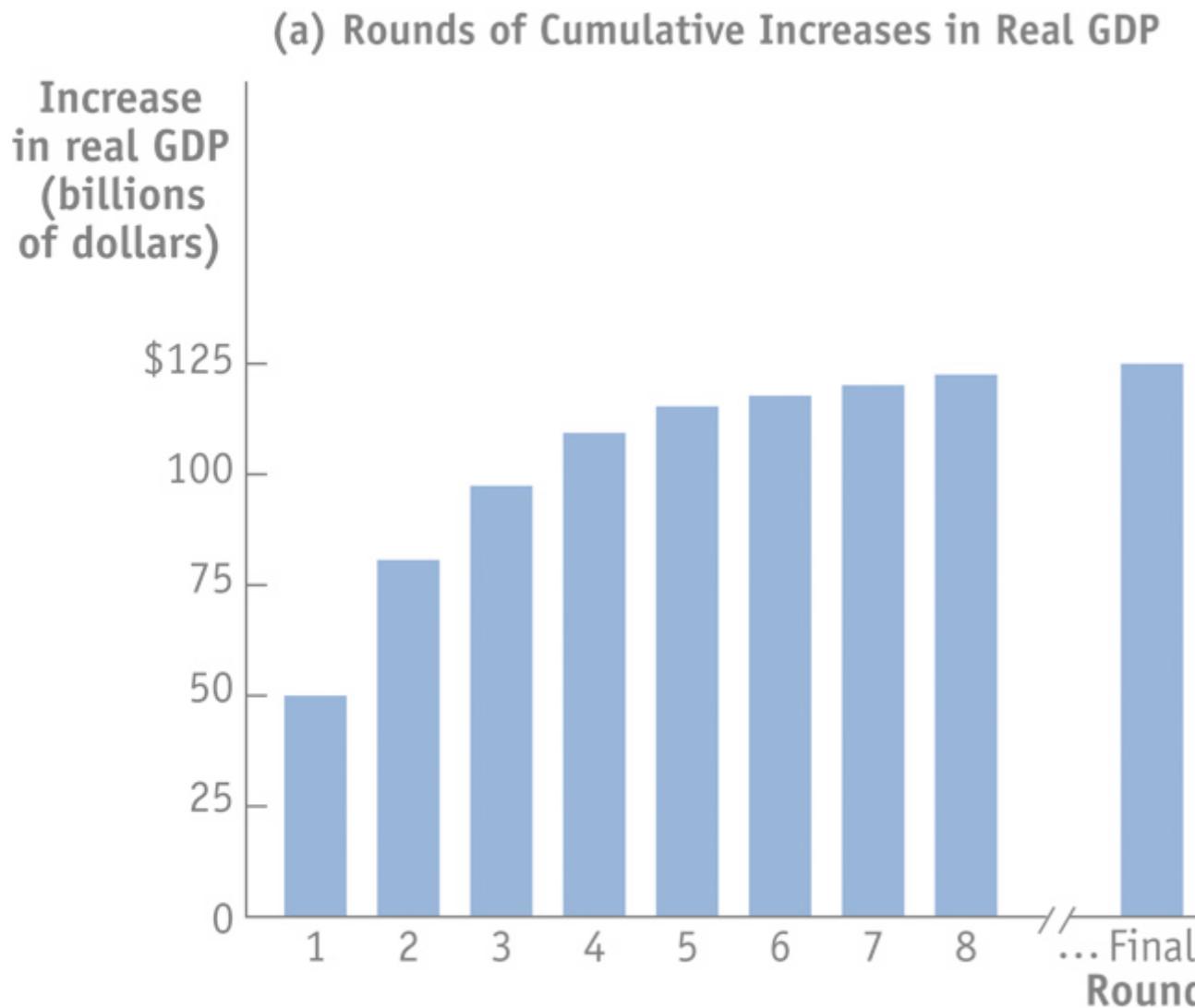
(a) Rounds of Cumulative Increases in Real GDP



(b) The Corresponding Effect on Aggregate Demand



# Graphical Explanation



# 승수효과

## Multiplier Effect

- 승수효과: 최초의 총지출 증가[감소]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총지출 증가[감소]효과
  - AAS (Autonomous change in Aggregate Spending)
  - 총지출의 자발적 변화: 최초의 총지출 증가[감소]
  - 승수(multiplier): 총변화/자발적변화

$$Multiplier = \frac{1}{1 - MPC} = \frac{\Delta Y}{\Delta AAS}$$

# Multiplier Effect

$$\frac{1}{1 - MPC} = \frac{\Delta Y}{\Delta AAS}$$
$$\Delta Y = \frac{1}{1 - MPC} \times \Delta AAS$$
$$= Multiplier \times \Delta AAS$$

# 승수효과의 의미

## Meanings of Multiplier Effect

- 승수가 클수록 AAS가 거시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커짐
- 승수의 크기는 MPC, 즉 소비성향에 달려있음.
- 승수는 MPC가 1에 가까울수록 커짐, 즉 MPC가 클수록 AAS의 확대효과가 커짐

# **총공급-총수요 모형**

## **AS-AD Model**

# 총공급-총수요 모형

## AS-AD Mode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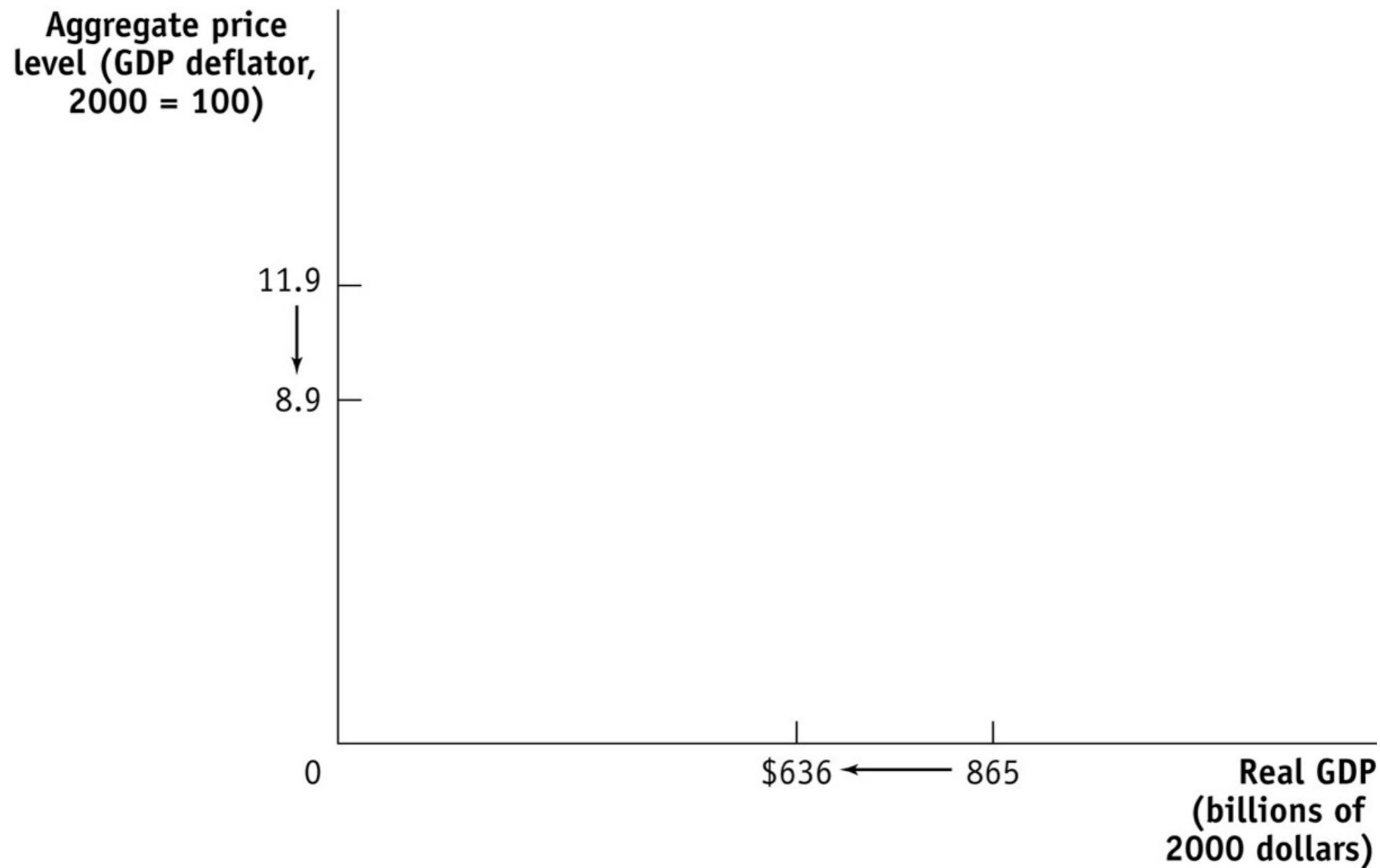
- 총공급곡선과 총수요곡선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론
- 핵심개념: 균형(Equilibrium)

# 단기 거시경제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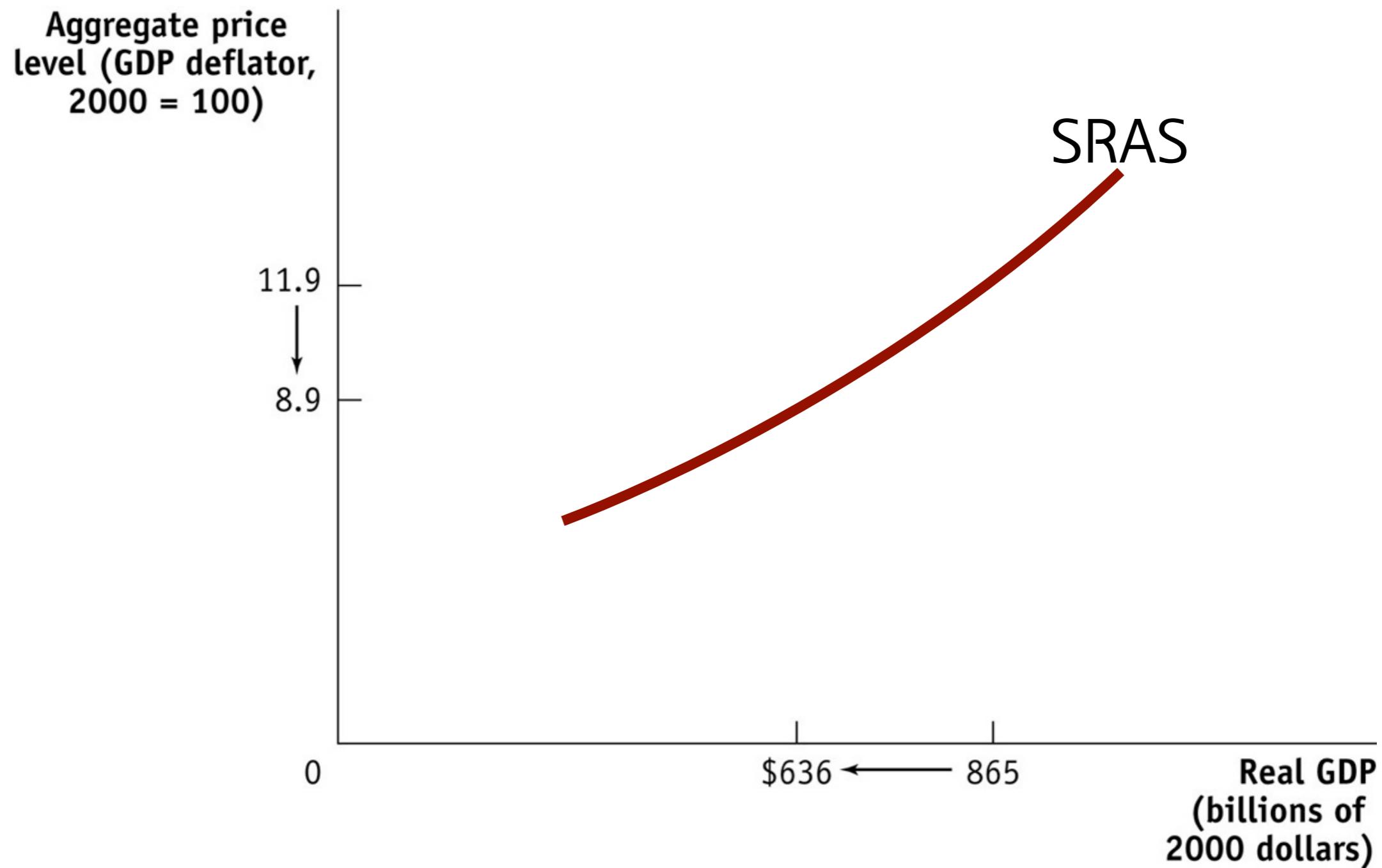
## Short-run Macroeconomic Equilibrium

- SR Macro Equilibrium.: AD곡선과 SRAS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
- 균형의 안정성: 물가수준에 따른 수요-공급의 관계로 보장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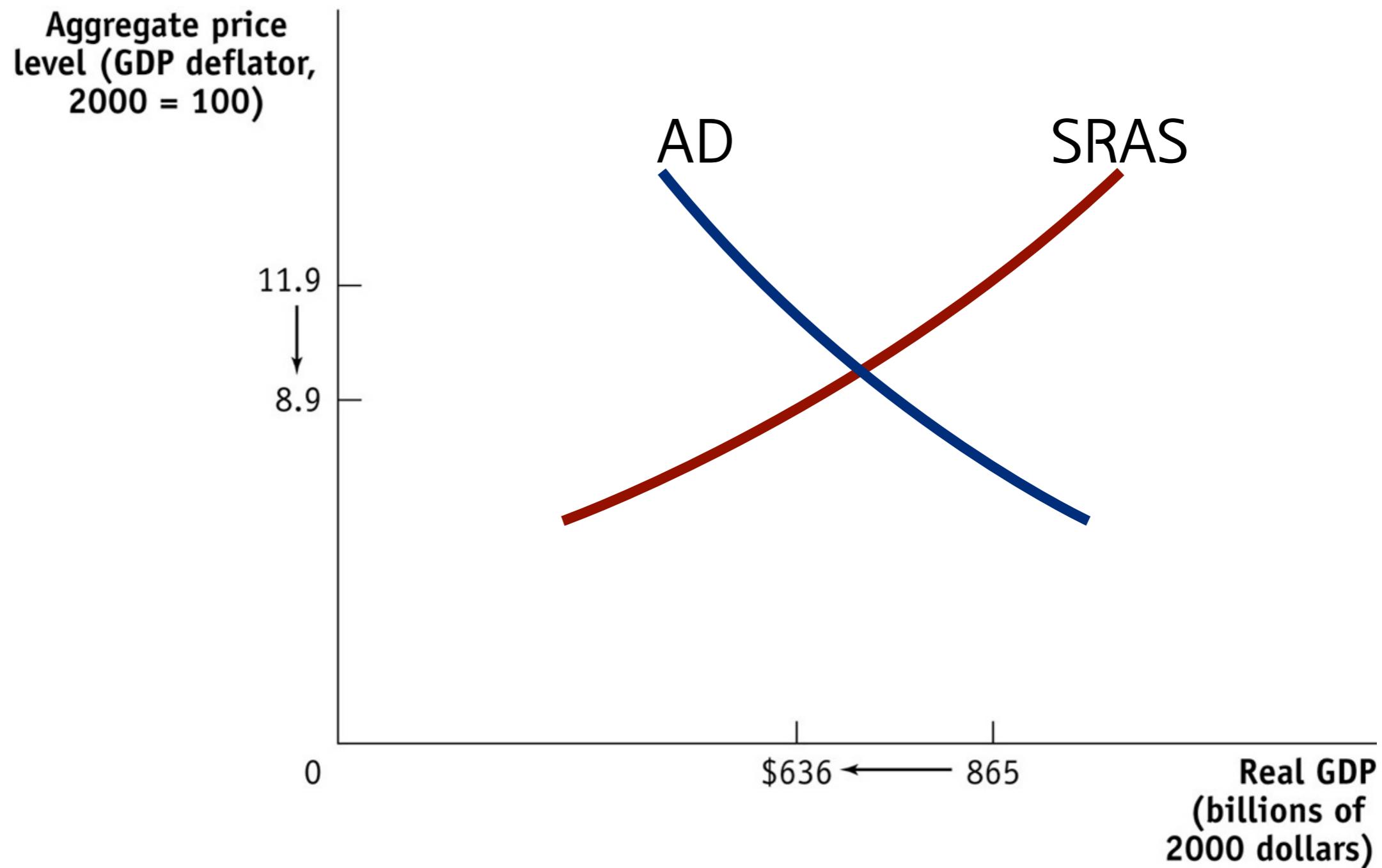
# S-R Macro.Eqbm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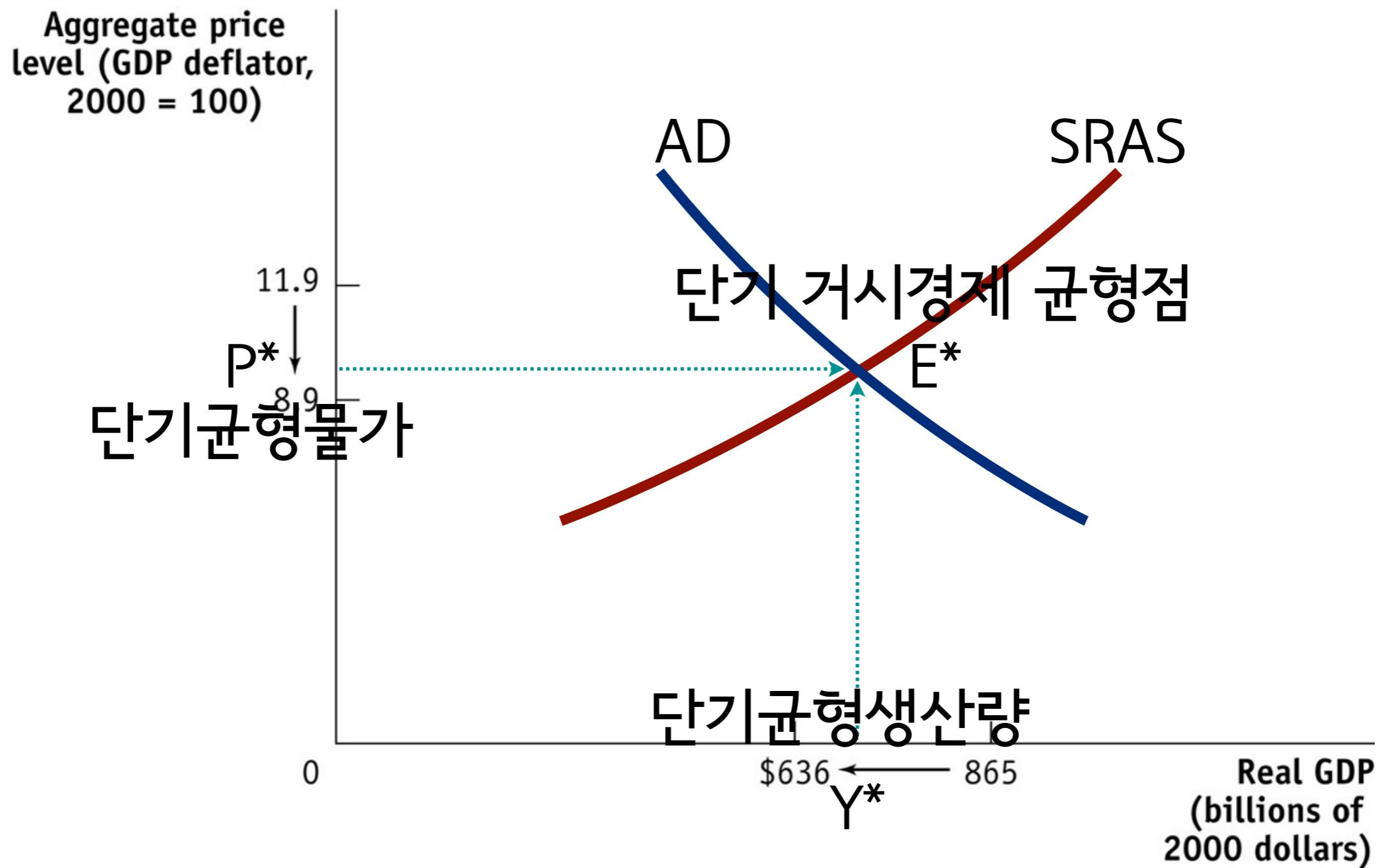
# S-R Macro.Eqbm.



# S-R Macro.Eqbm.



# S-R Macro.Eqbm.



# 장기추세 관련 가정

Assumptions about LR Trend

- 장기적으로 rGDP, 물가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.
- 이러한 변수들의 상승[하락]은 평균적 상승분을 장기추세로 보고, 0이 아닌 장기추세에 대한 상대적 상승[하락]으로 규정
  - 양의 추세선을 기울기가 0인 추세선으로 보정
- ex) rGDP상승률: 장기추세 6.5%, 2005년 4.5%인 경우 -- rGDP상승률 2%p 하락

# 경기순환 (장기추세)

그림 9-1 경기의 순환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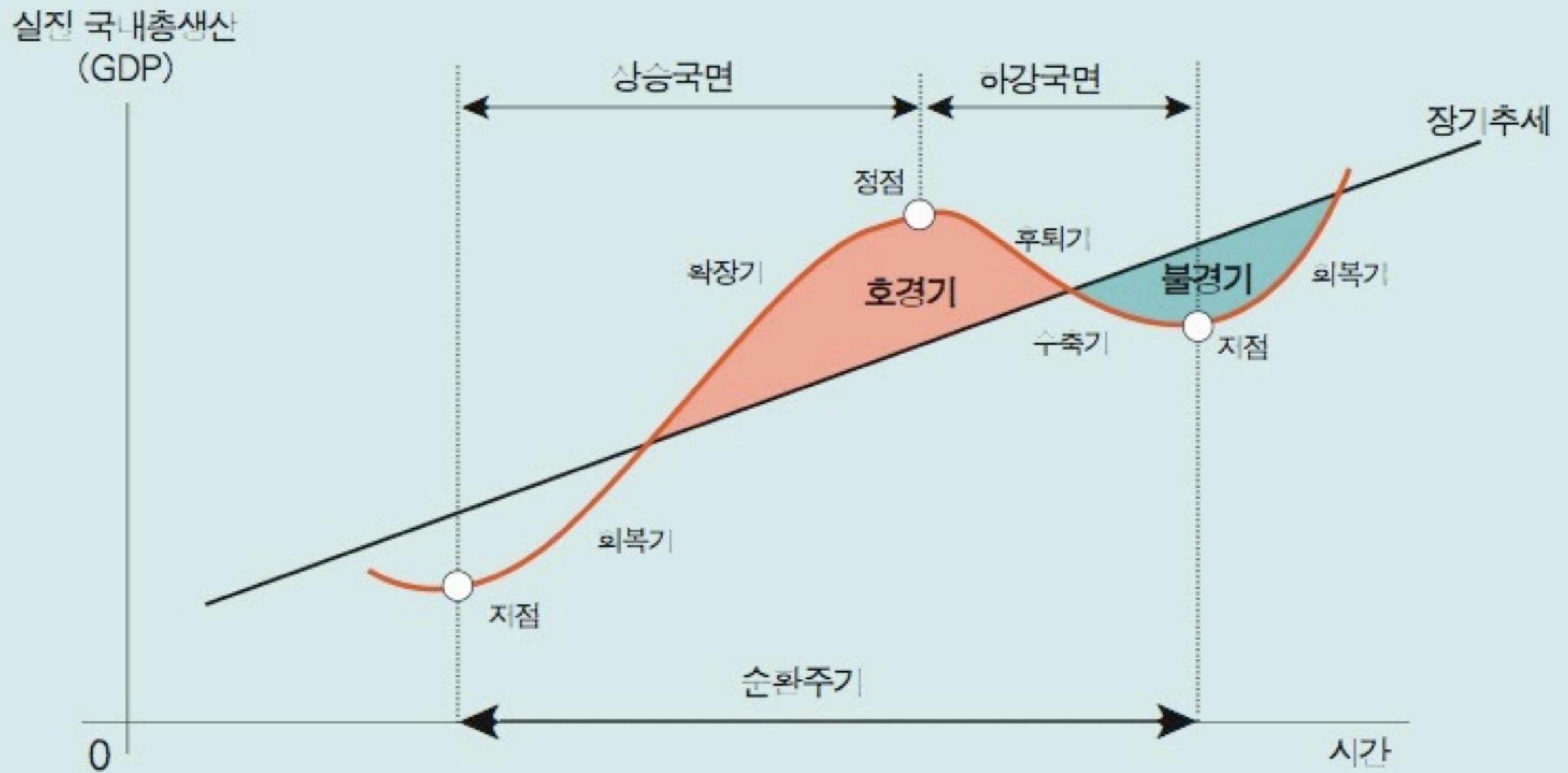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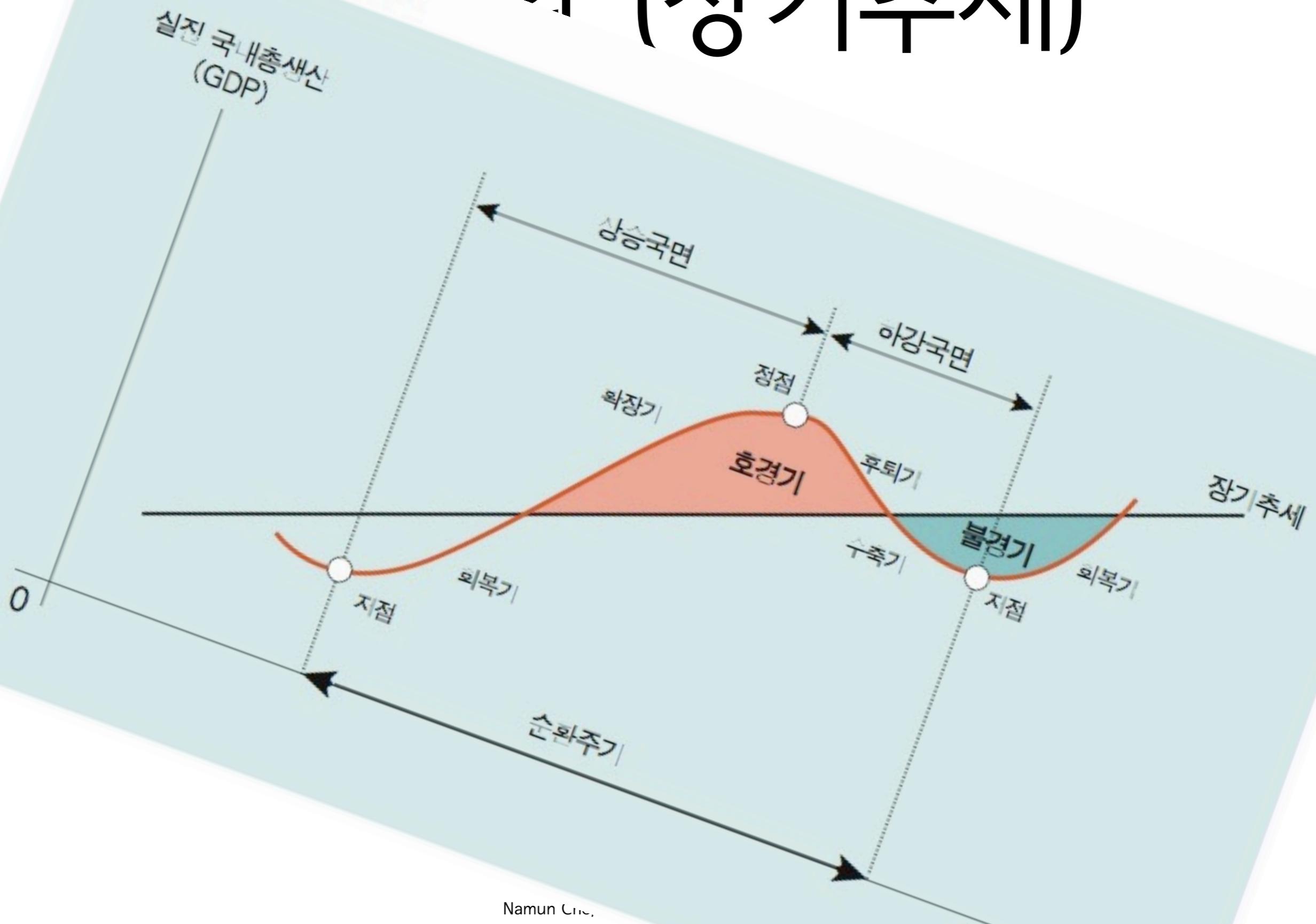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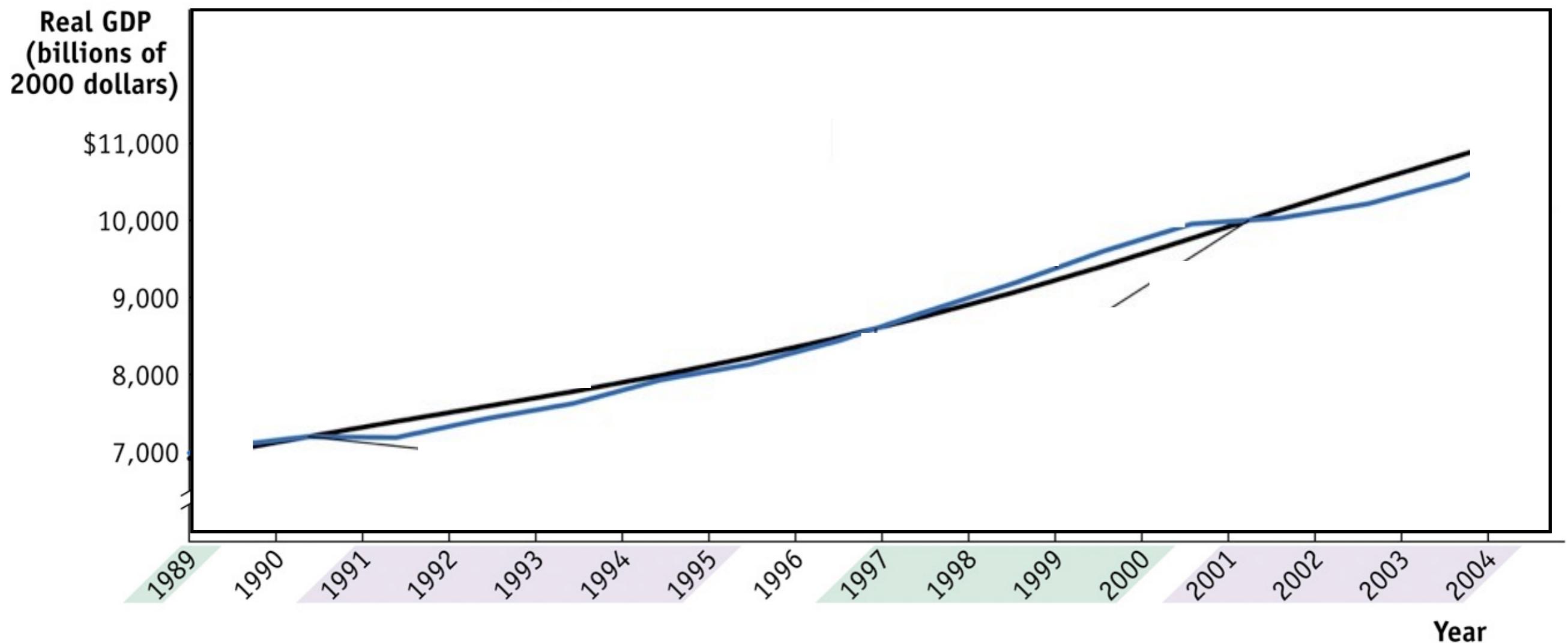
그림 9-1 경기의 순환과정

# 하 (장기추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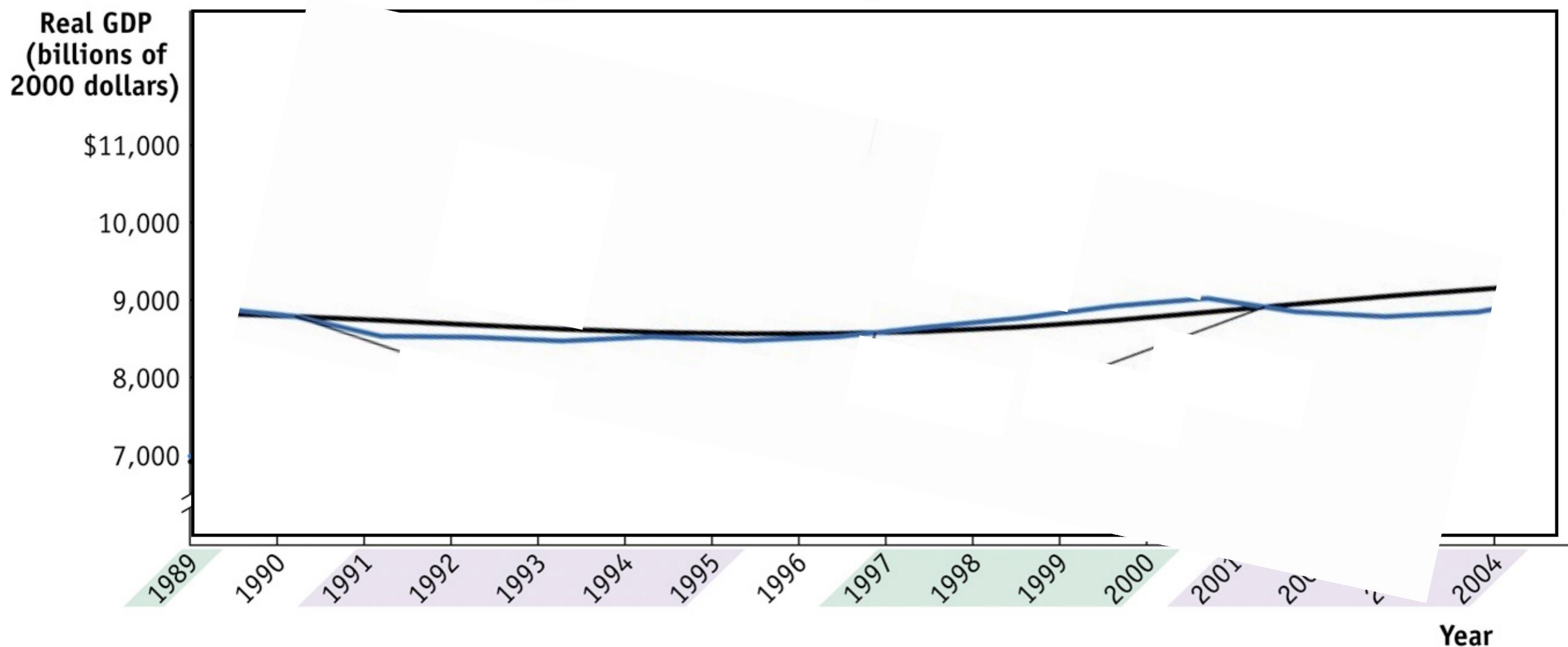
# The Potential Output of USA: 1989~2004

(a) Actual vs. Potential Output from 1989 to 2004



# The Potential Output of USA: 1989~2004

(a) Actual vs. Potential Output from 1989 to 2004



# 공급충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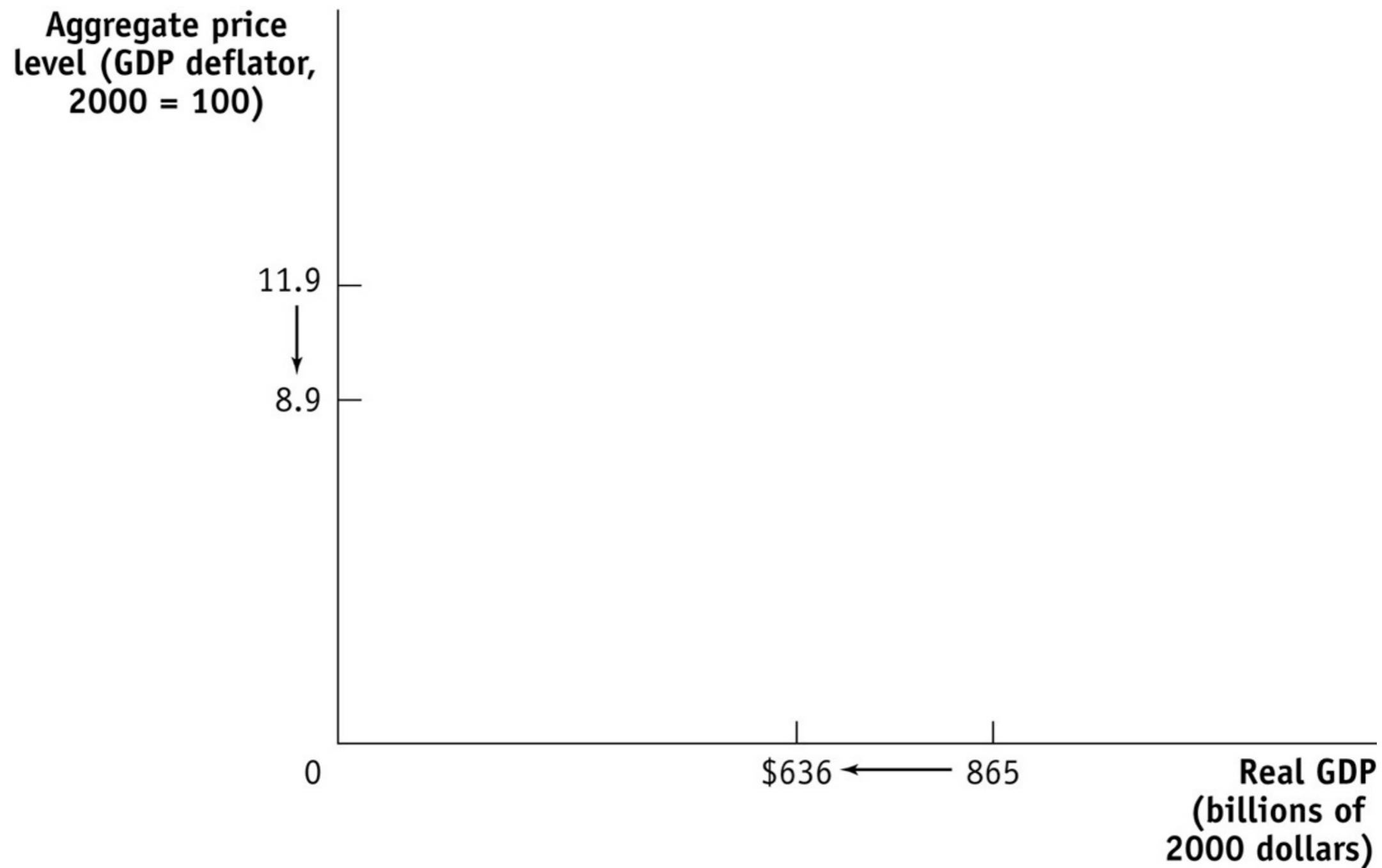
## Supply Shock

- SRAS곡선을 이동시키는 사건
- 거시적 생산성의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들이 해당됨: 중간재가격변동, 명목임금변화 등
  - ( - ) 공급충격: 생산성하락 ➔ SRAS를 왼쪽으로 이동시킴 --> Stagflation
  - ( + ) 공급충격: 생산성상승 ➔ SRAS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킴 --> Good new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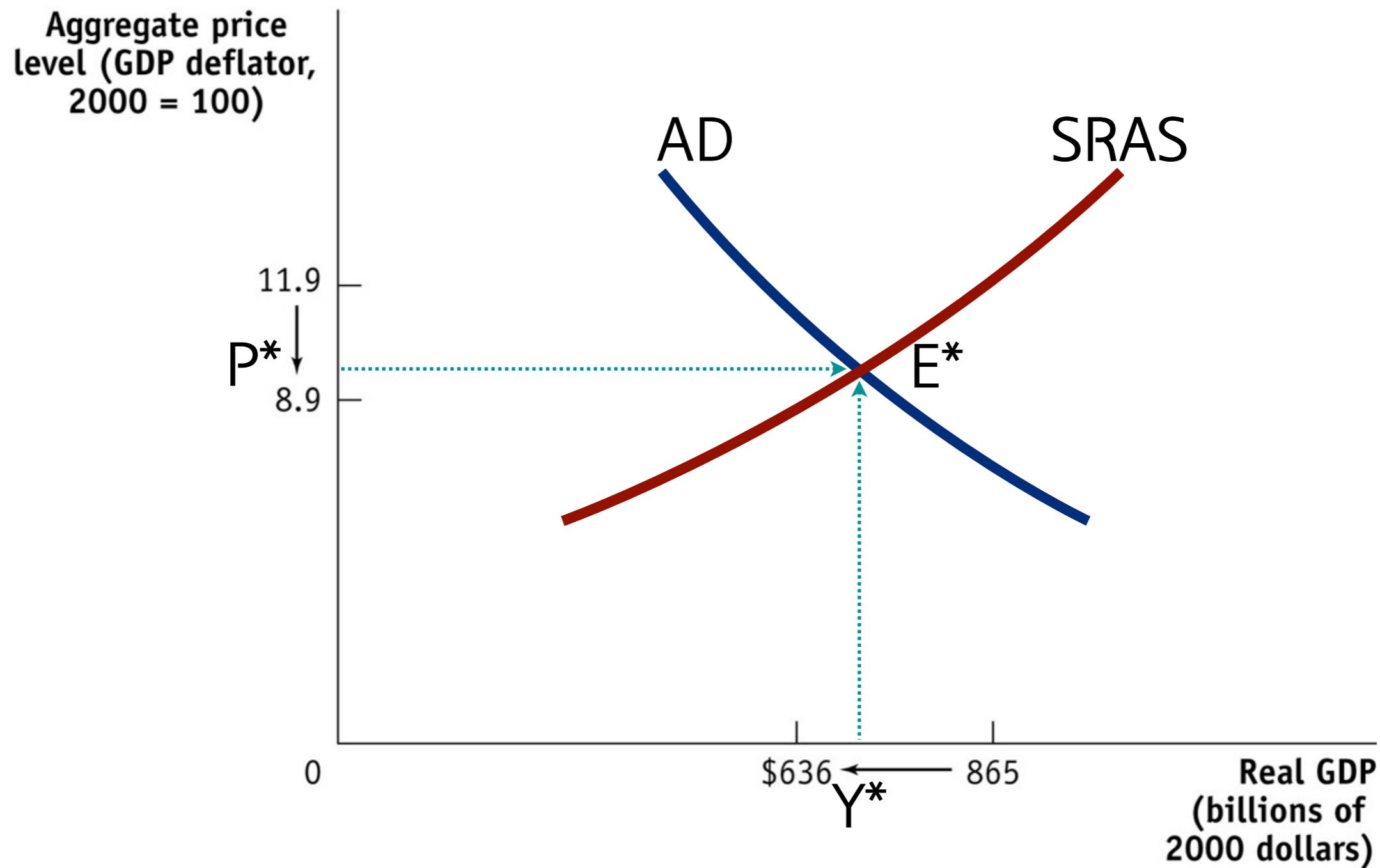
# Stagflation

- Stagnation + Inflation
- 일반적 경우 경기불황은 디플레이션(혹은 저인플레이션)과 함께 나타남: 상쇄작용발생
- 스태그플레이션: 지독한(!)인플레이션. 일반적 경우와 달리,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남: 악영향 증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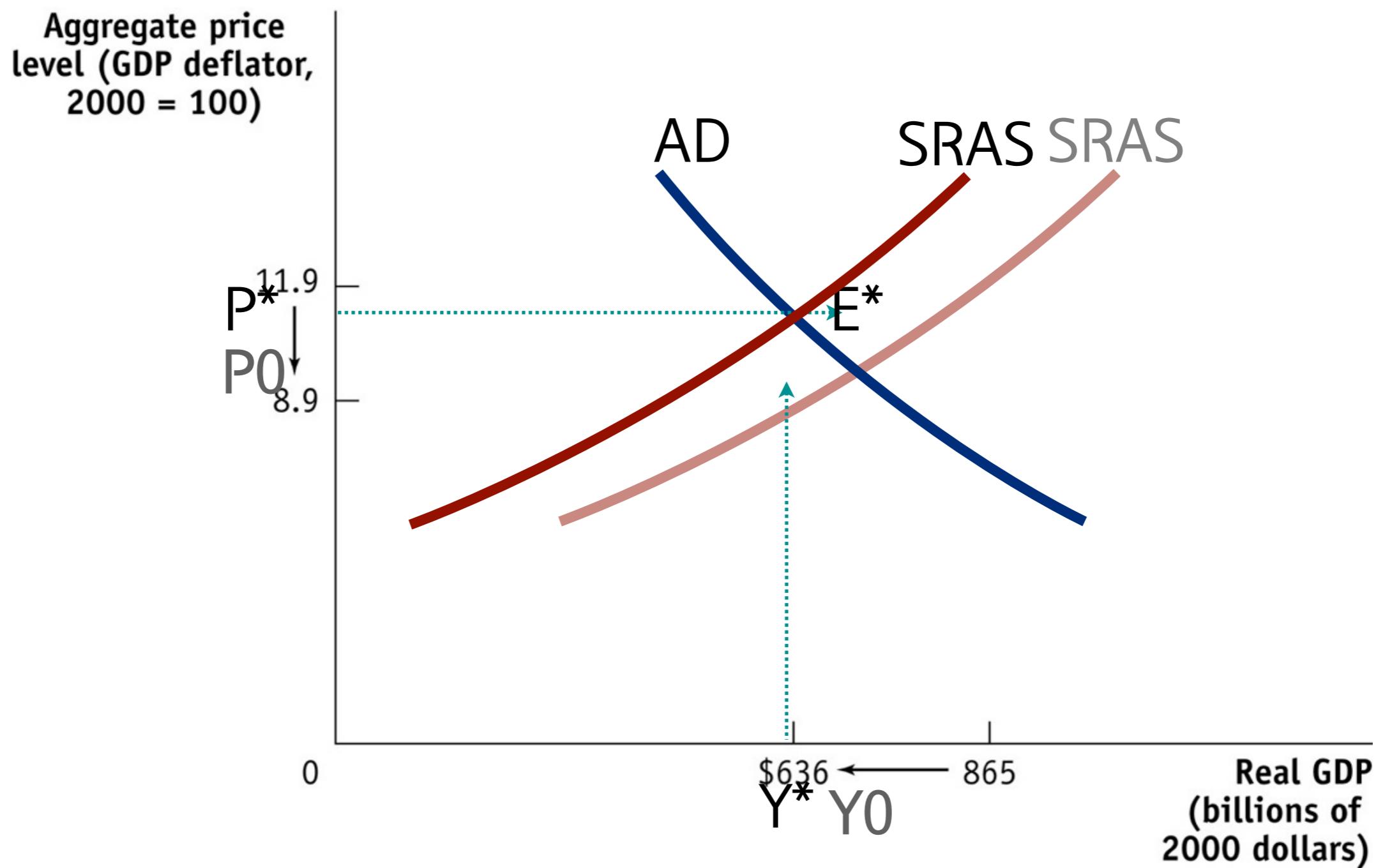
# Supply Shock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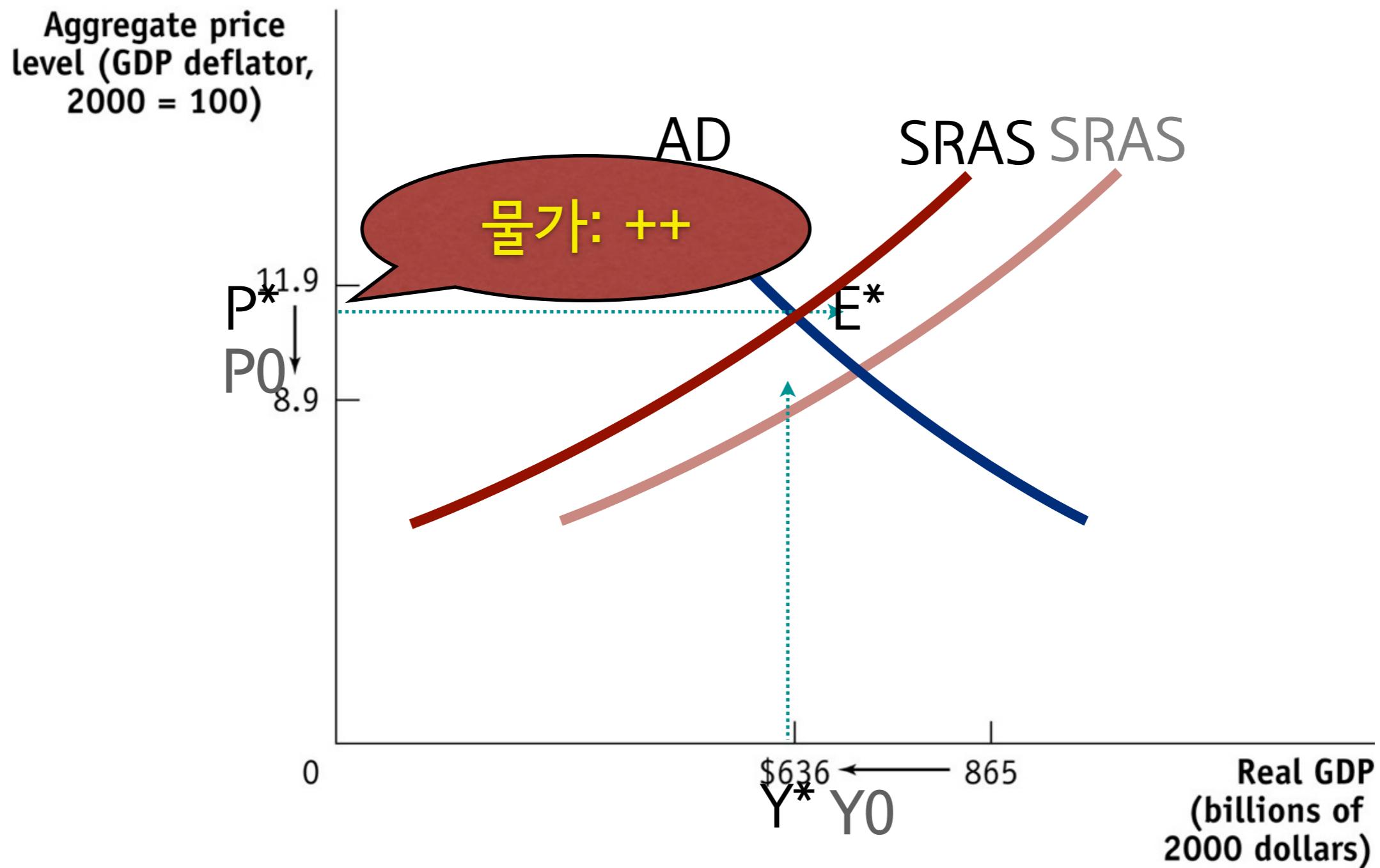
# Supply Shock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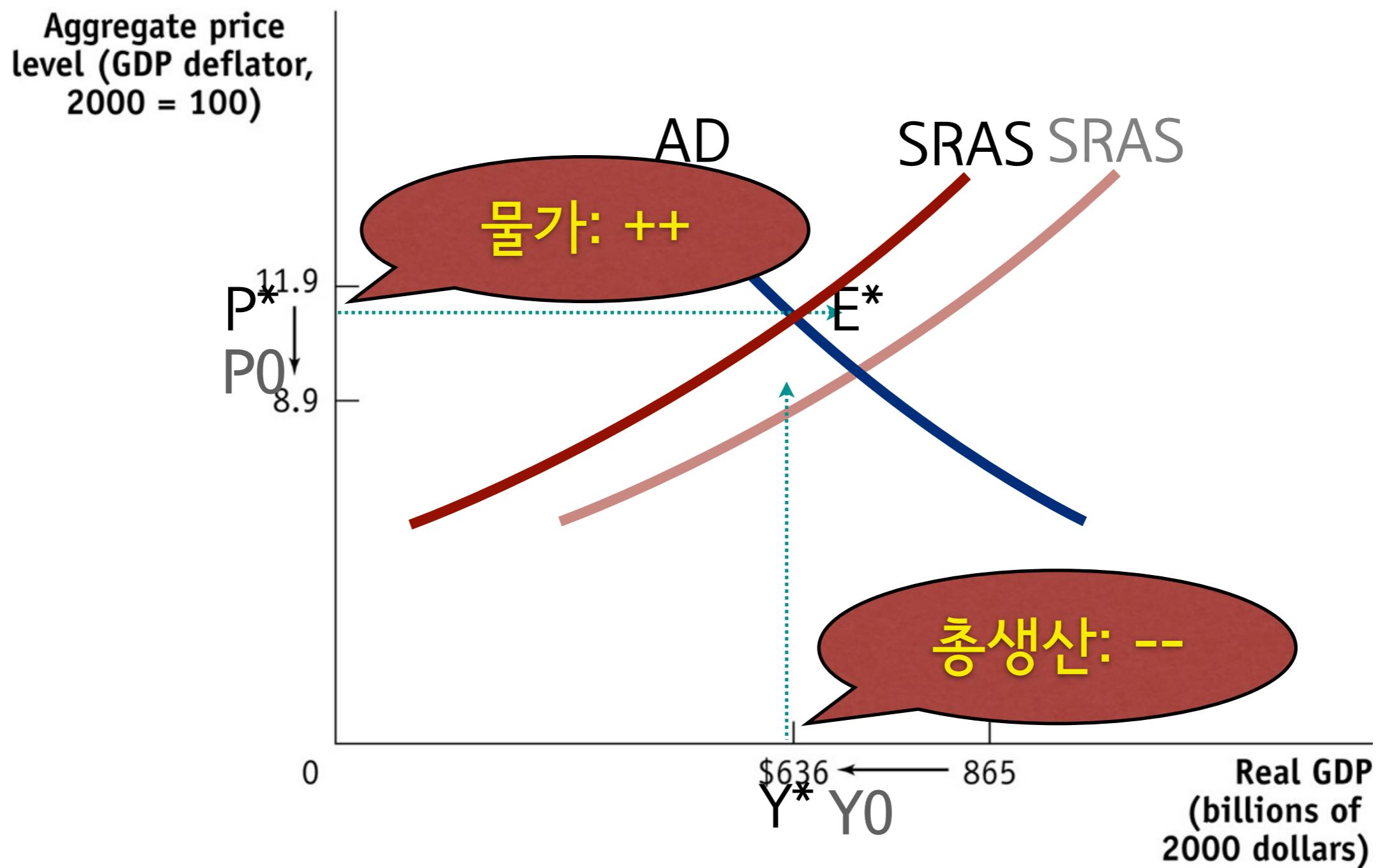
# Supply Shock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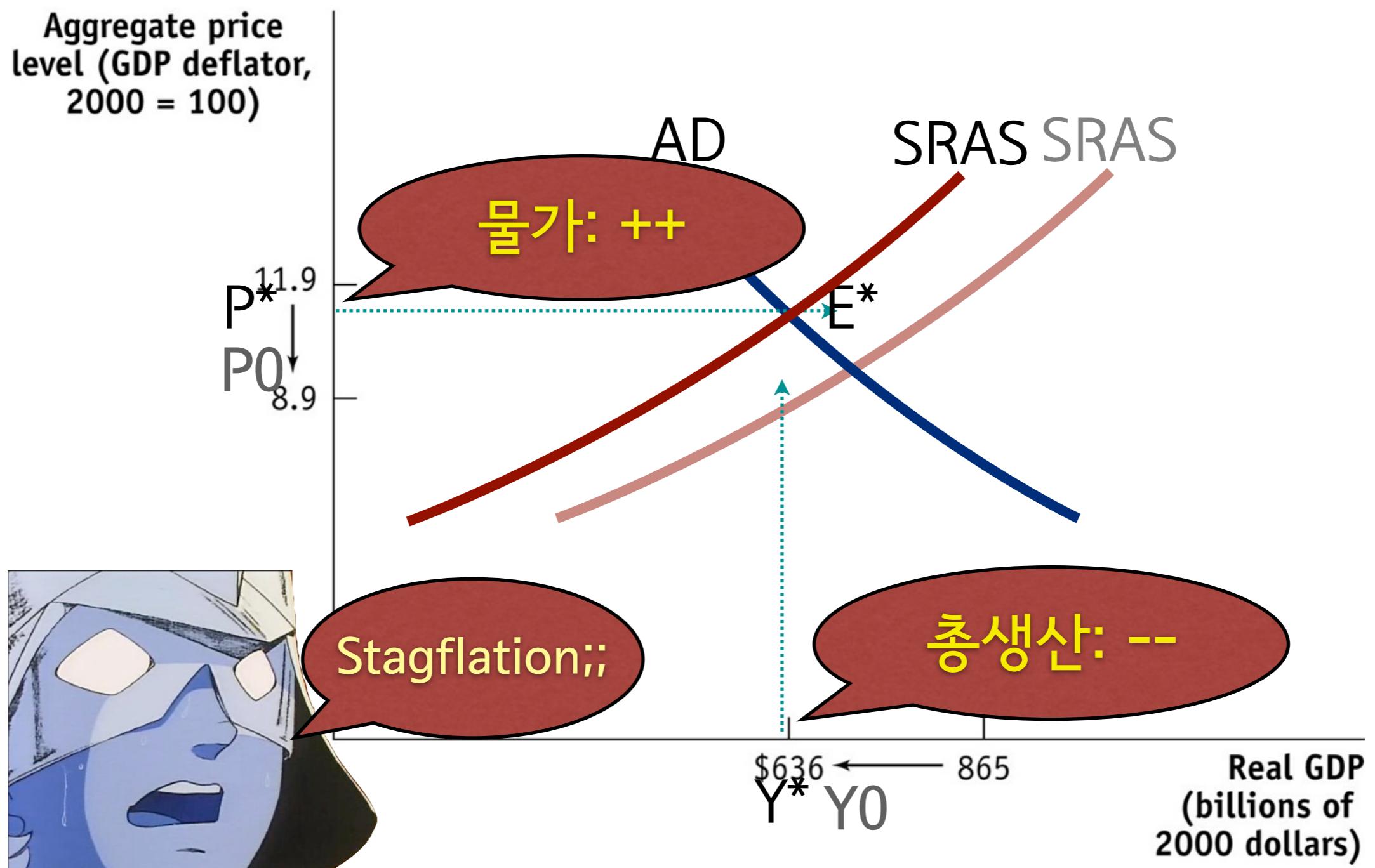
# Supply Shock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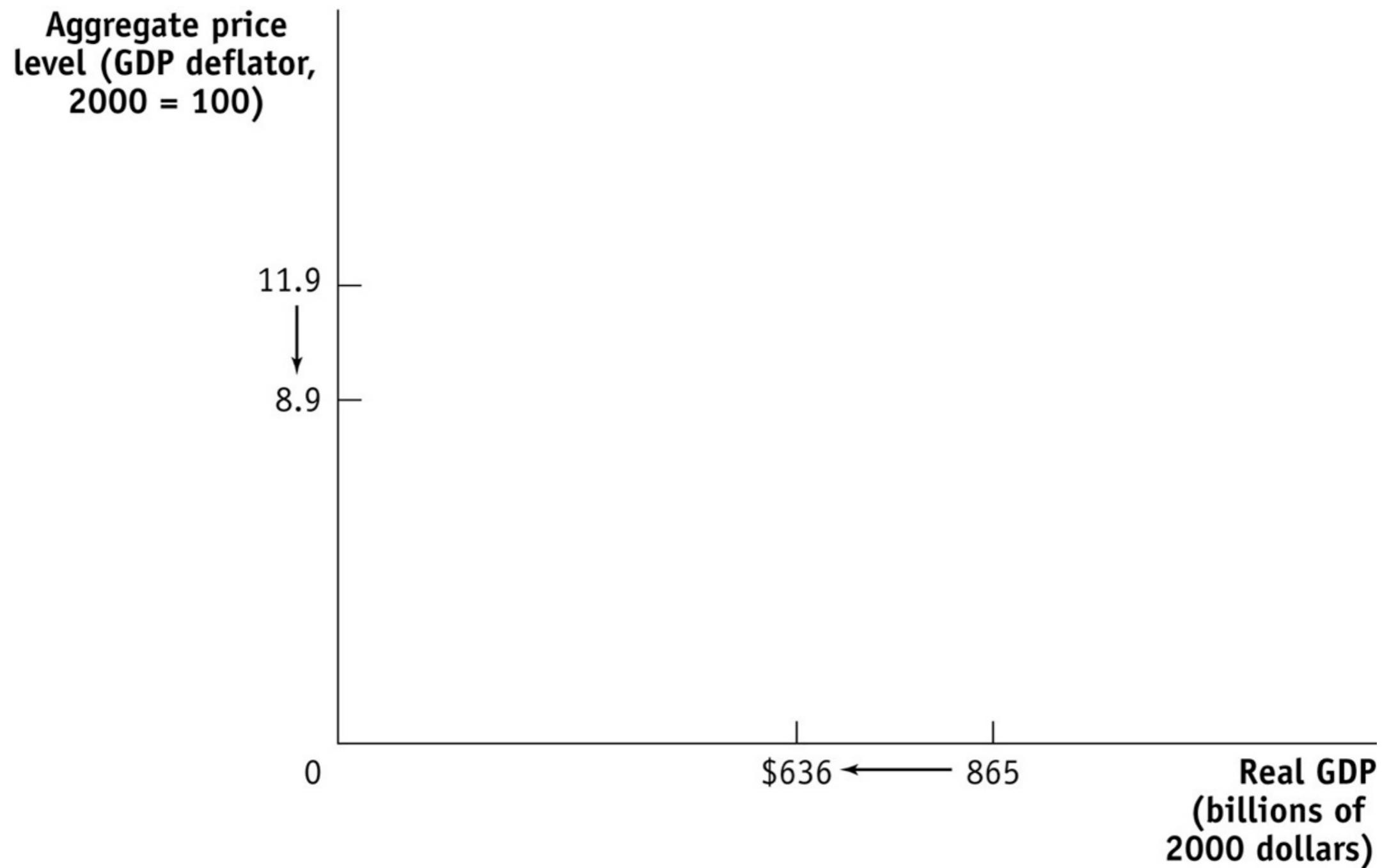
# Supply Shock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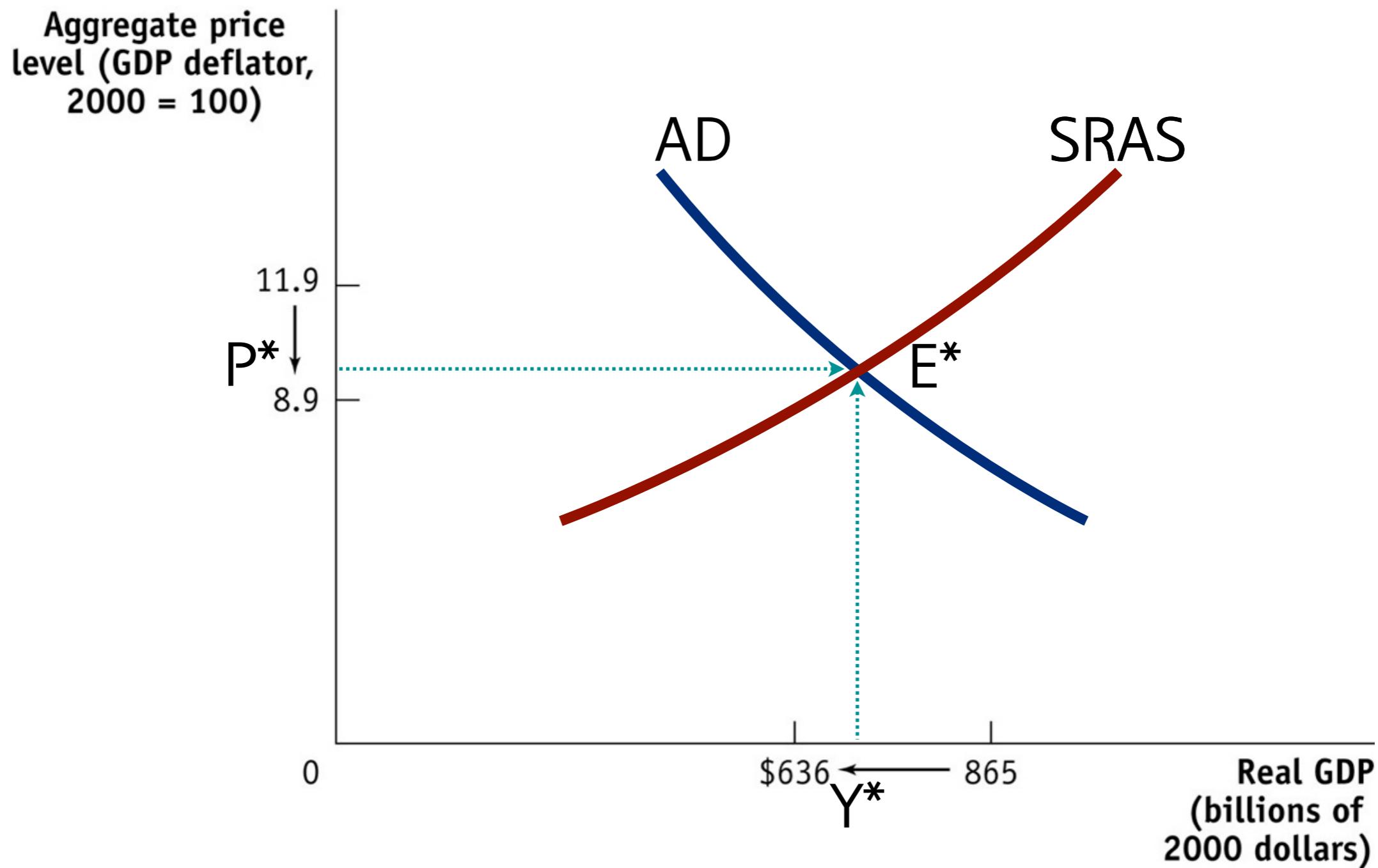
# Supply Shock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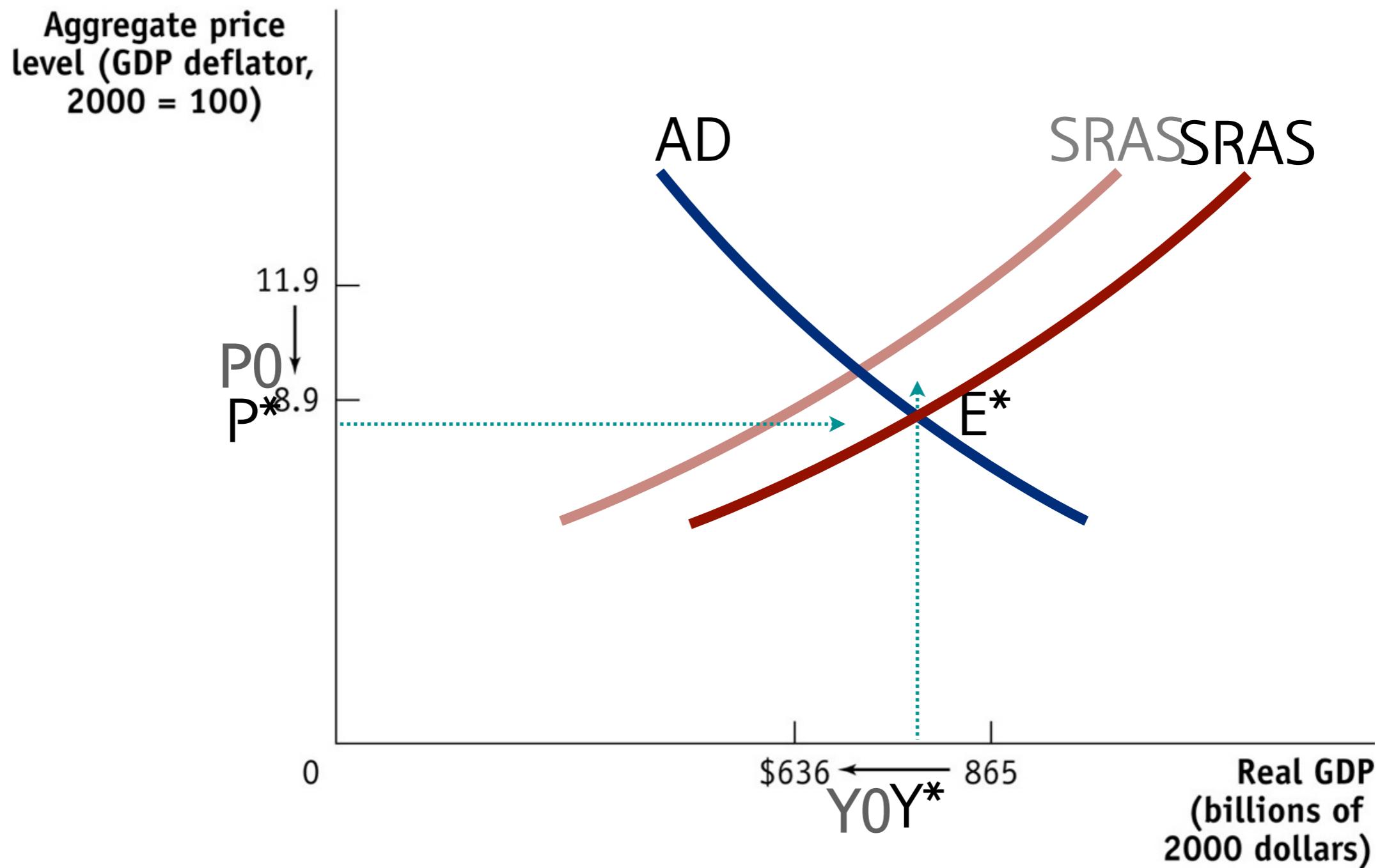
# Supply Shock(+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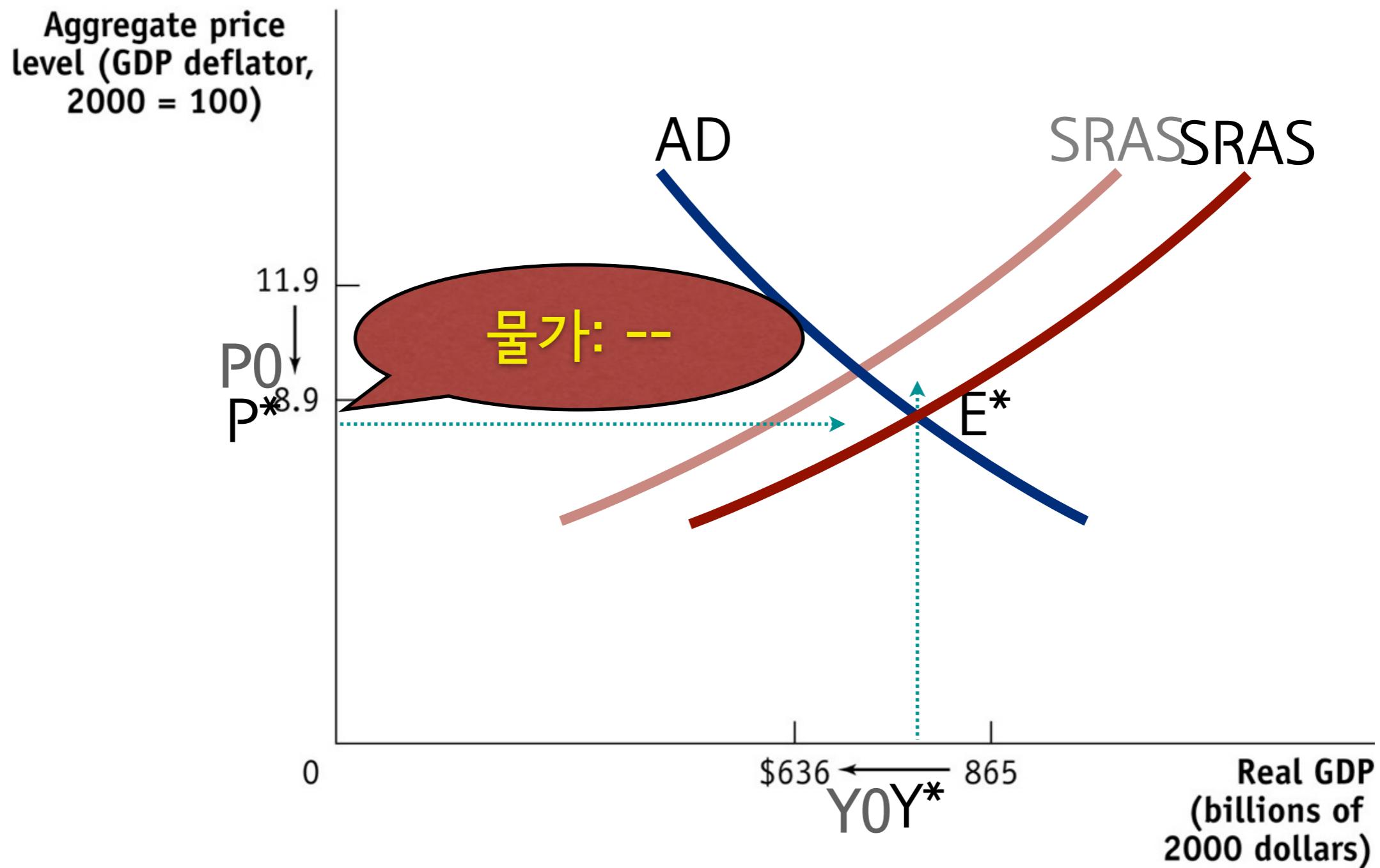
# Supply Shock(+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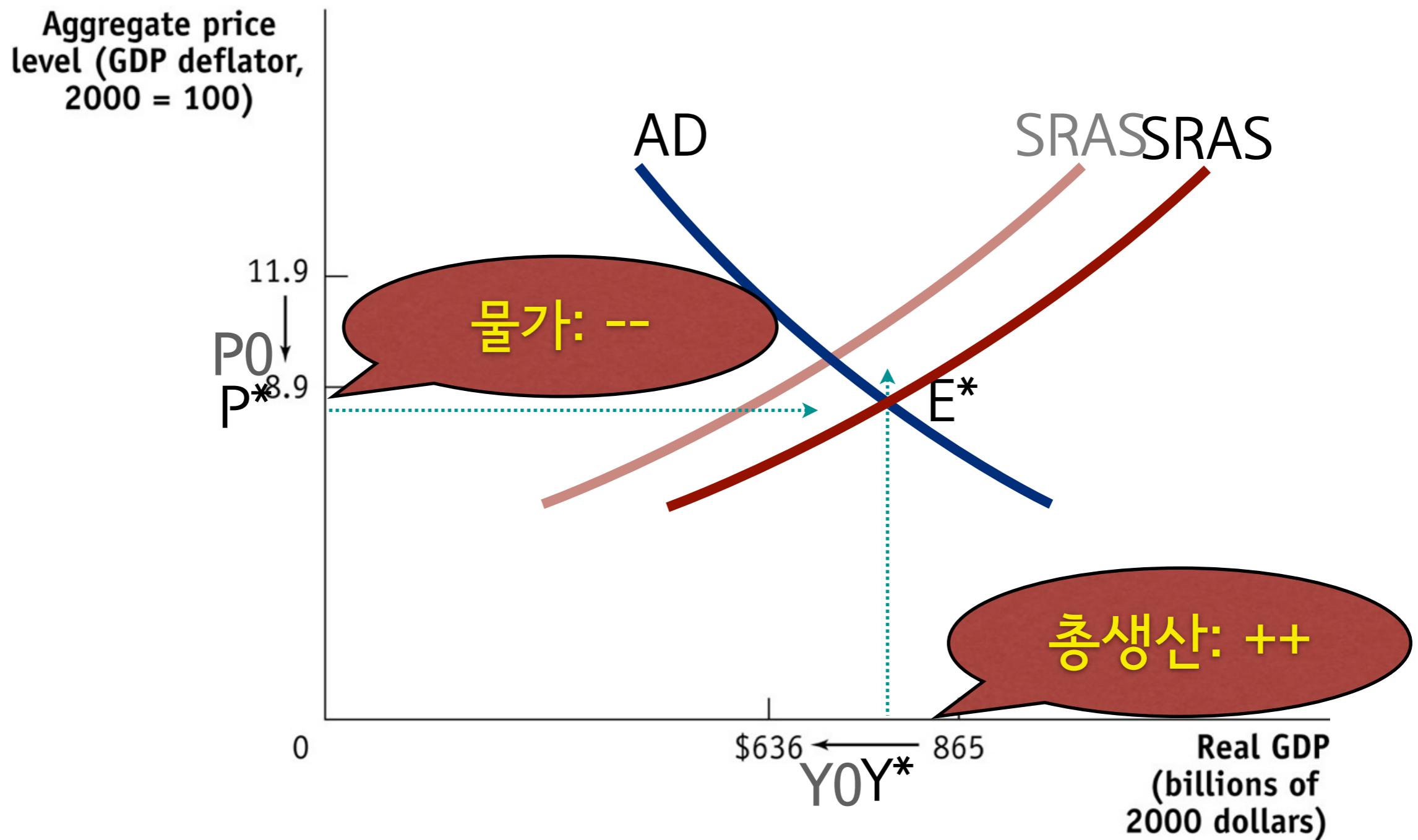
# Supply Shock(+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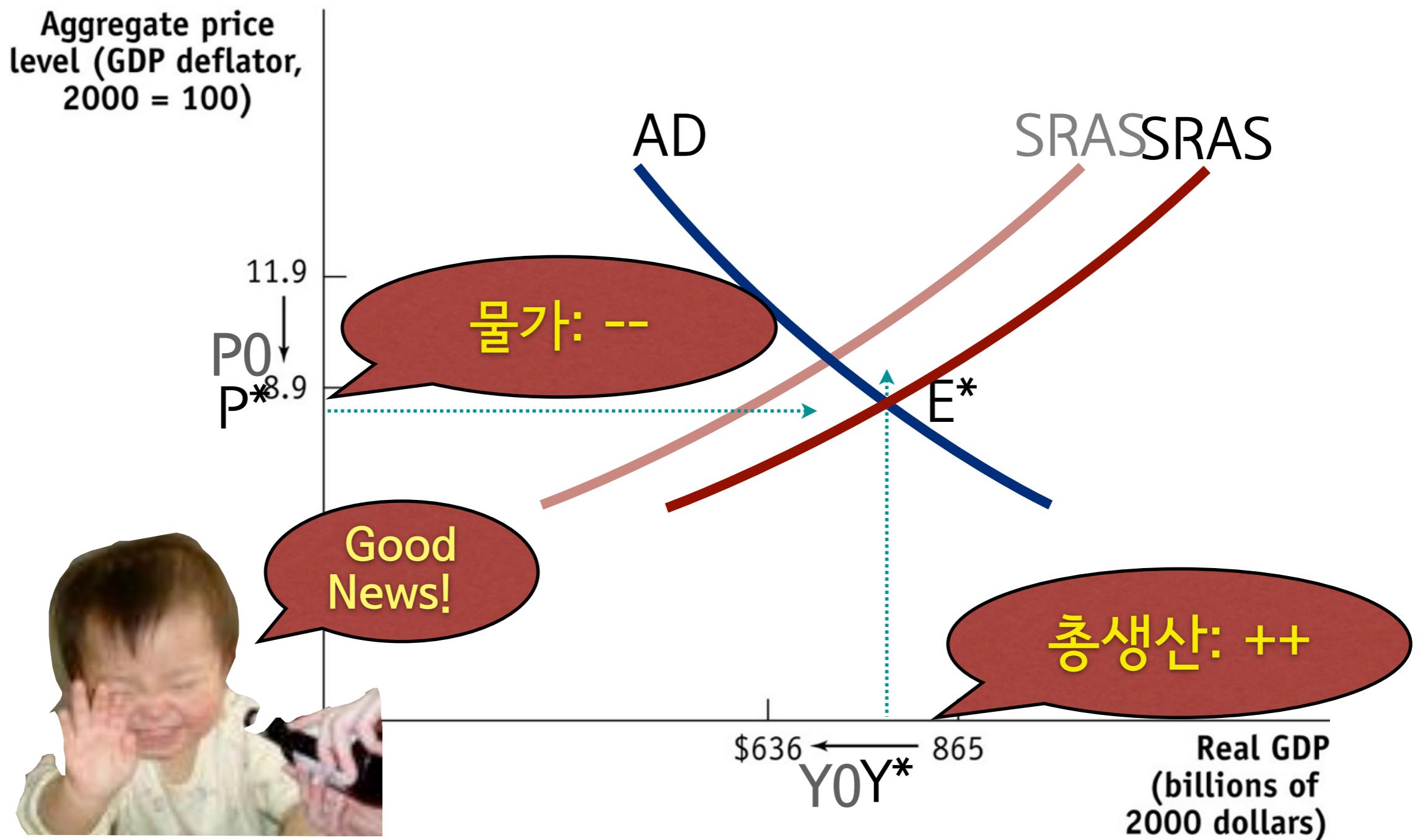
# Supply Shock(+)



# Supply Shock(+)



# Supply Shock(+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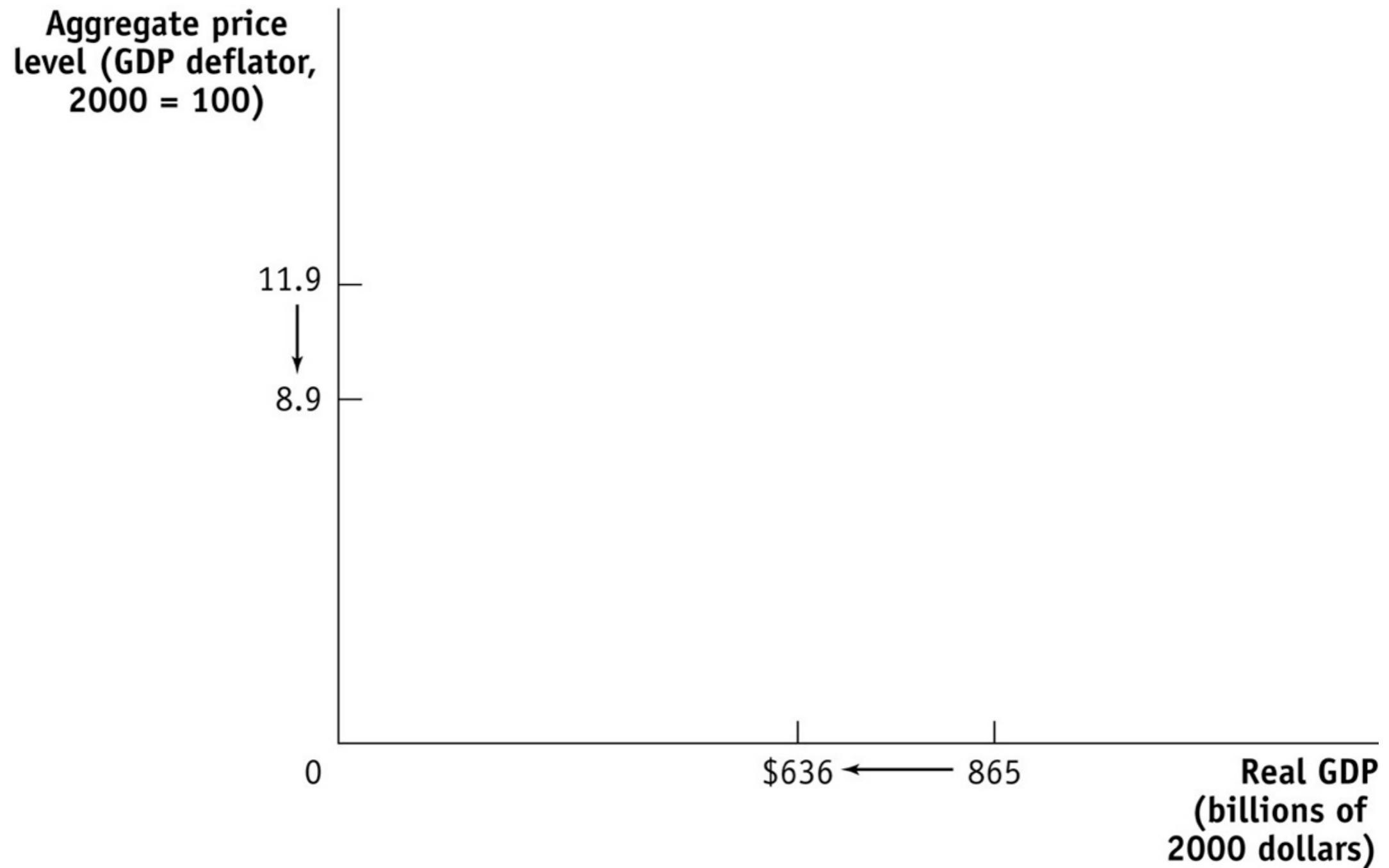


# 수요충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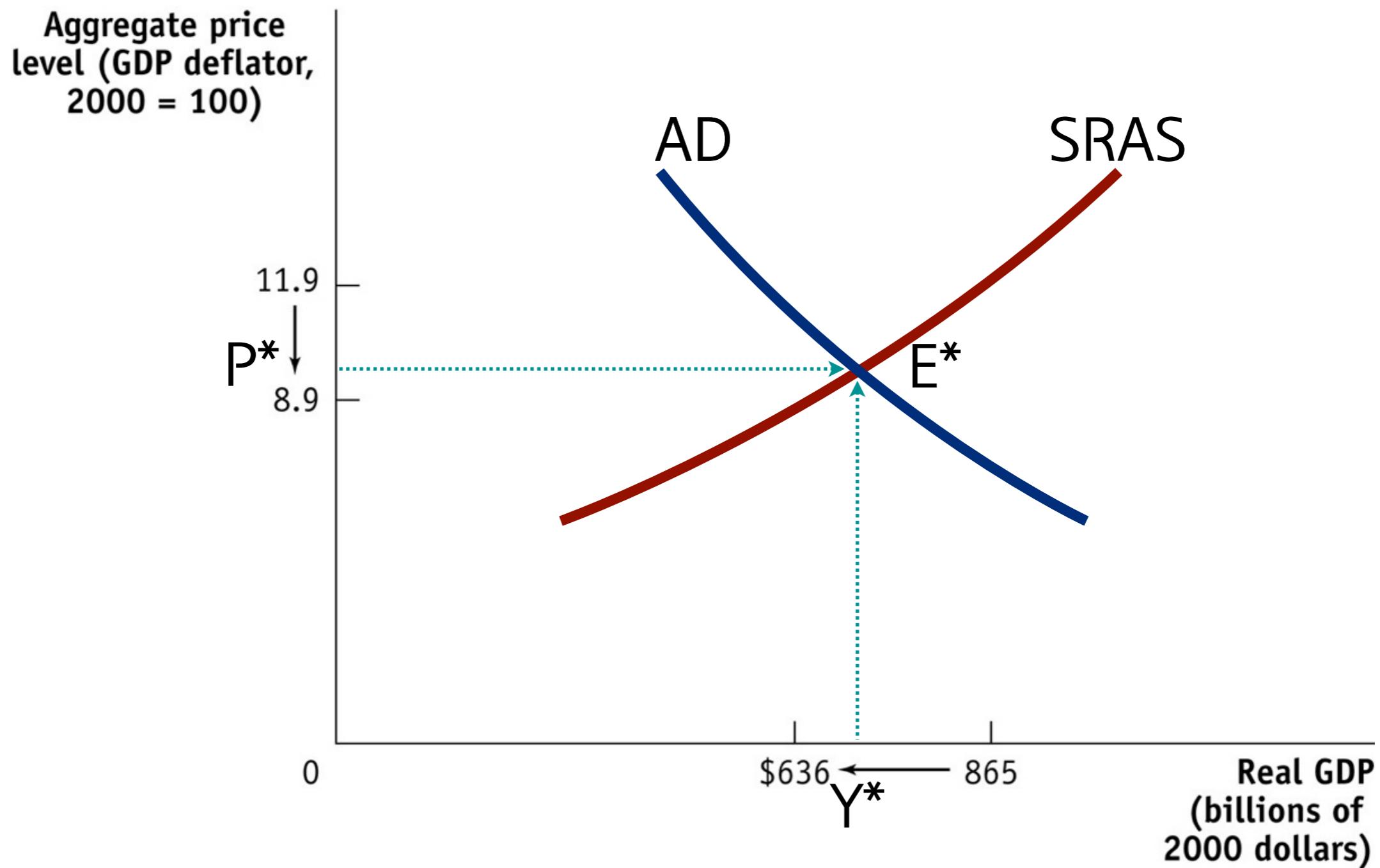
## Demand Shock

- AD곡선이 (단기) 이동하는 사건
- 요인: 수요변동요인 -- 기대, 자산, 실물자본의 변화, 재정정책, 통화정책 등
- 수요충격 사례
  - (-): 세계 대공황(1929-193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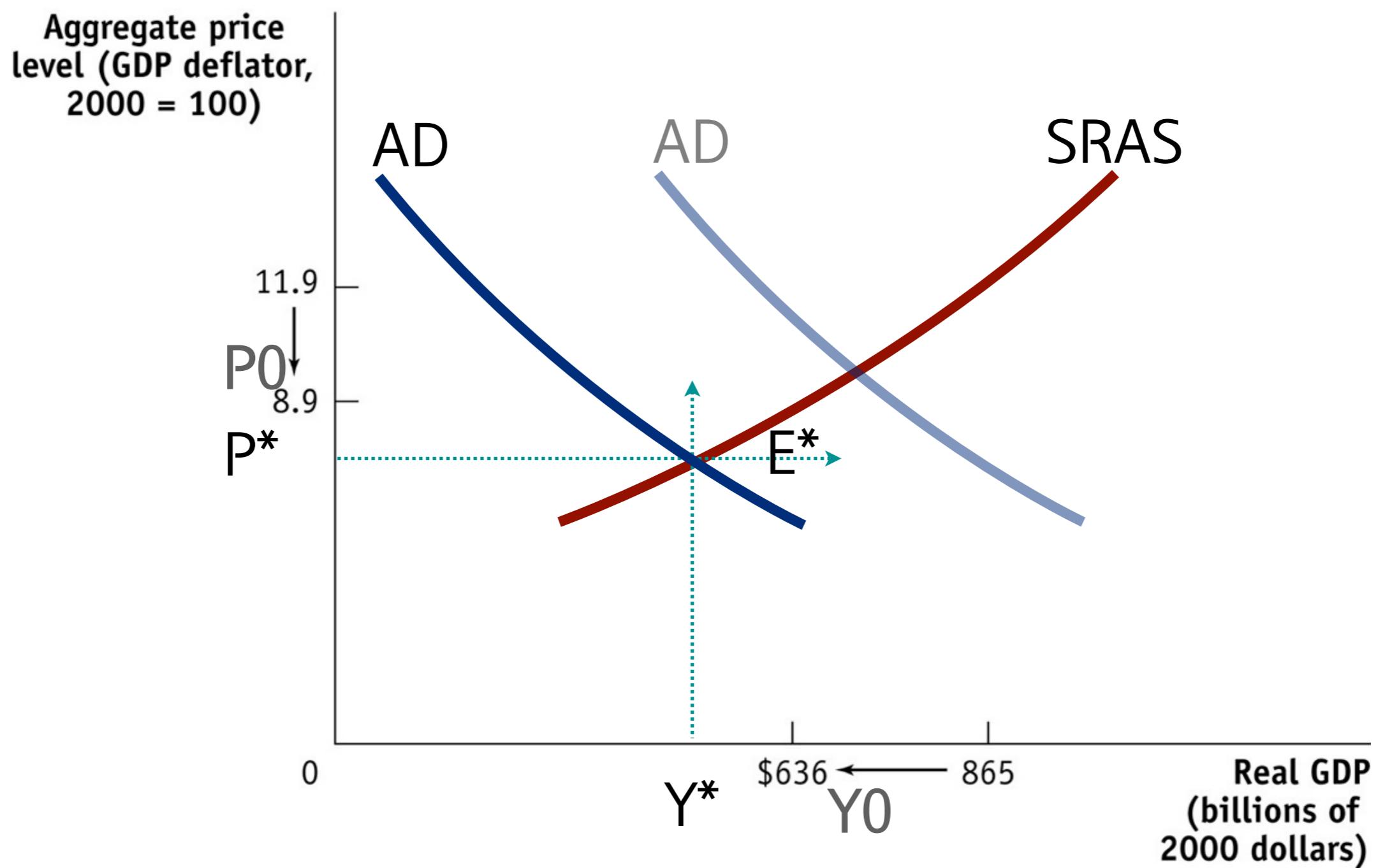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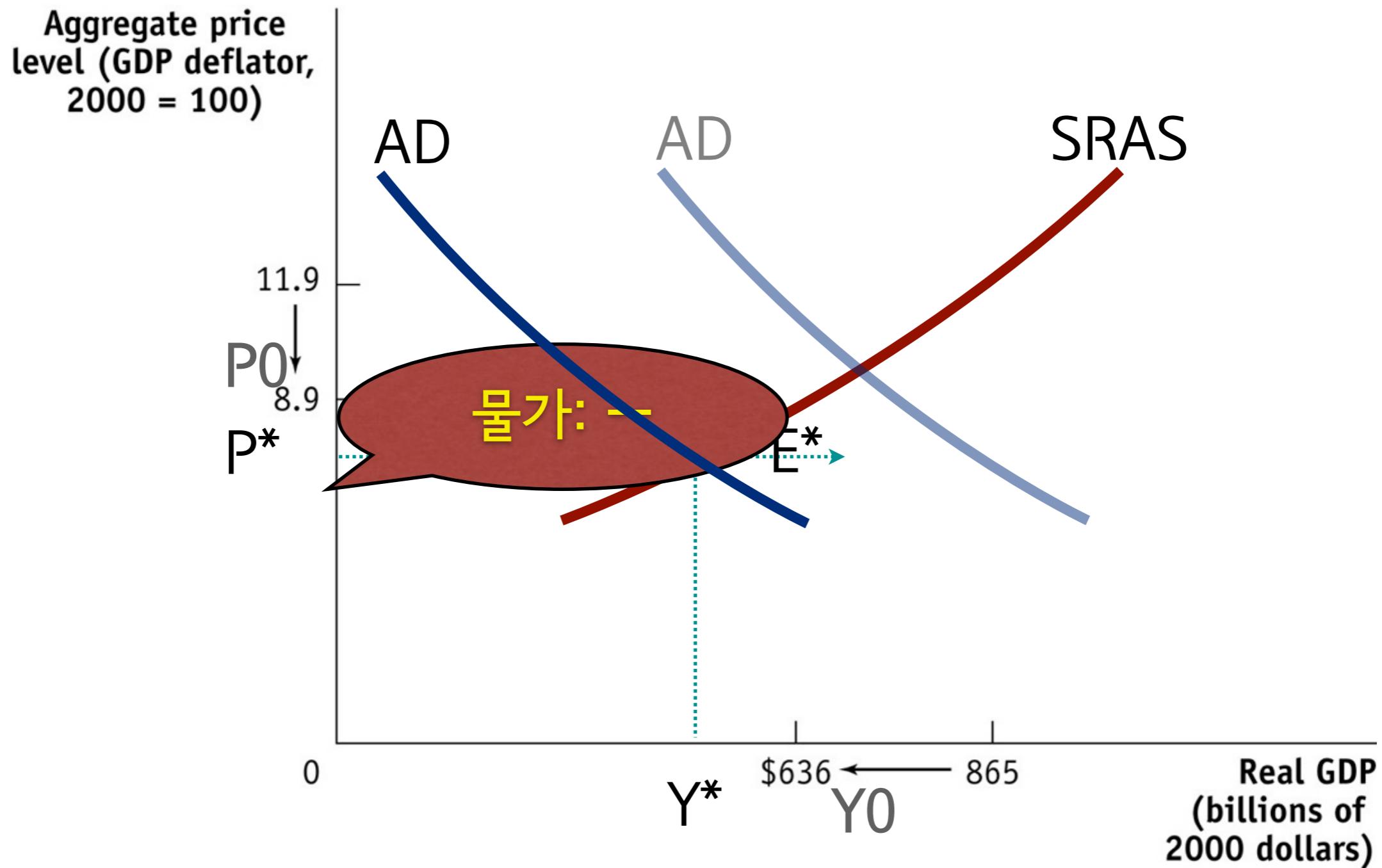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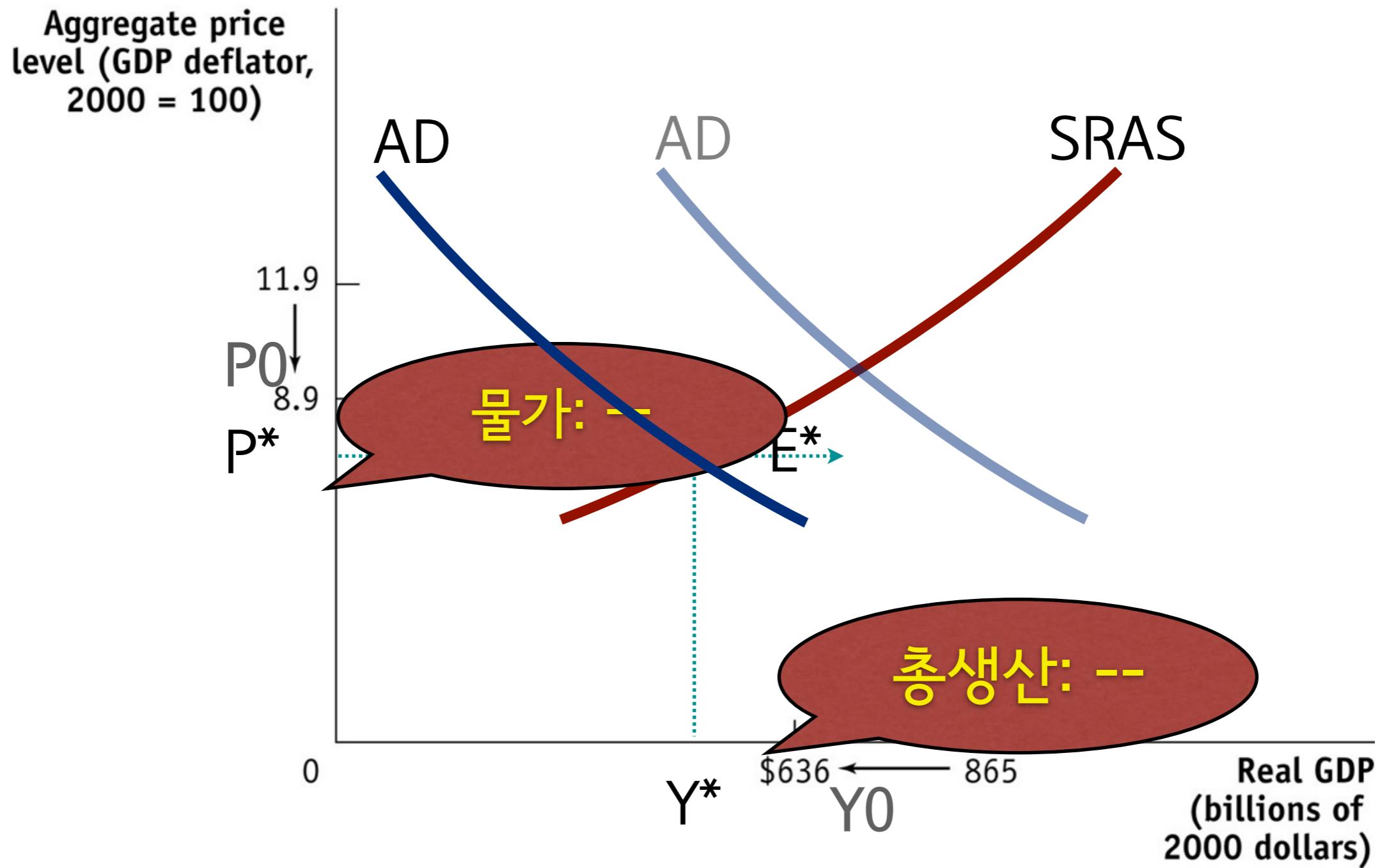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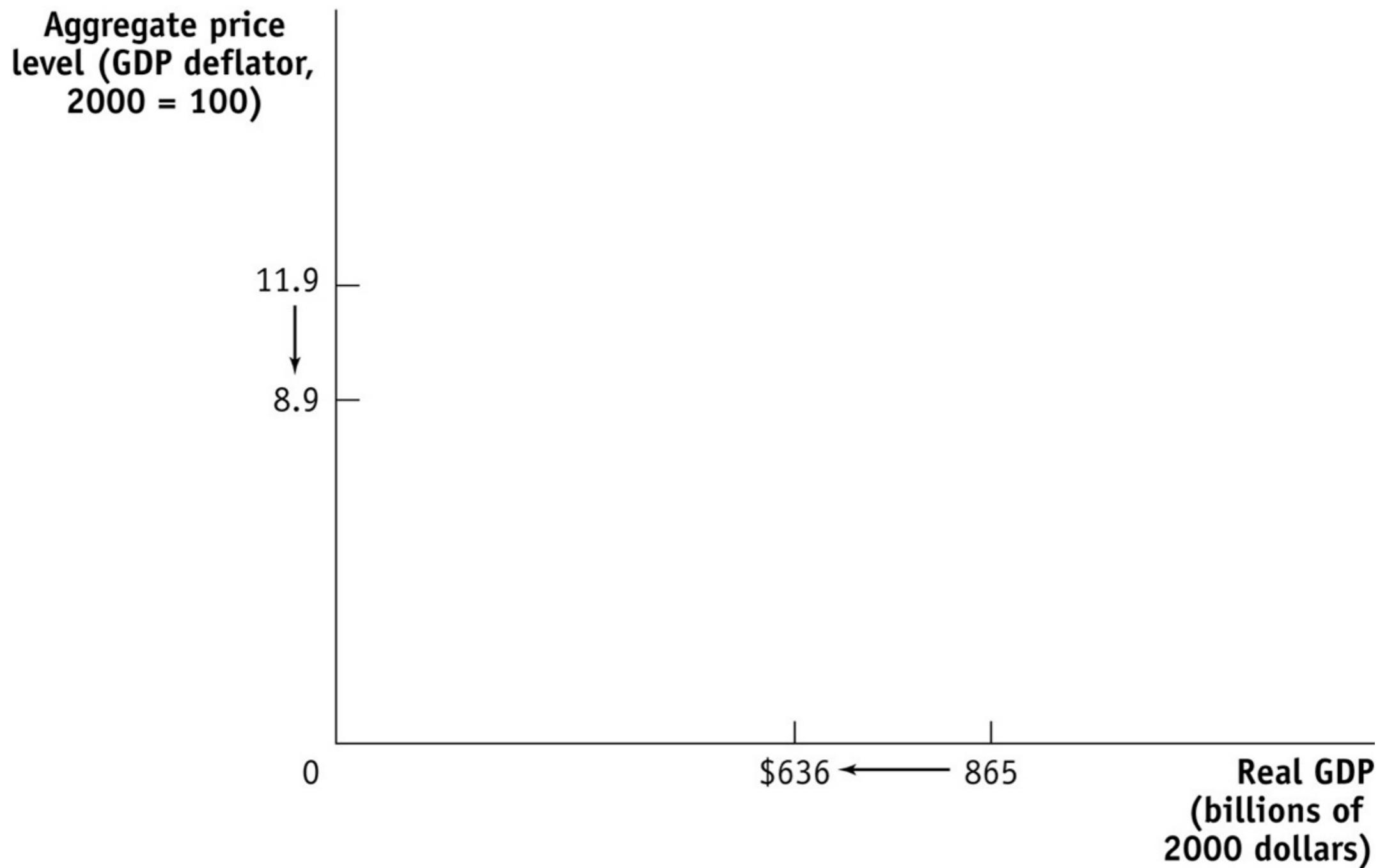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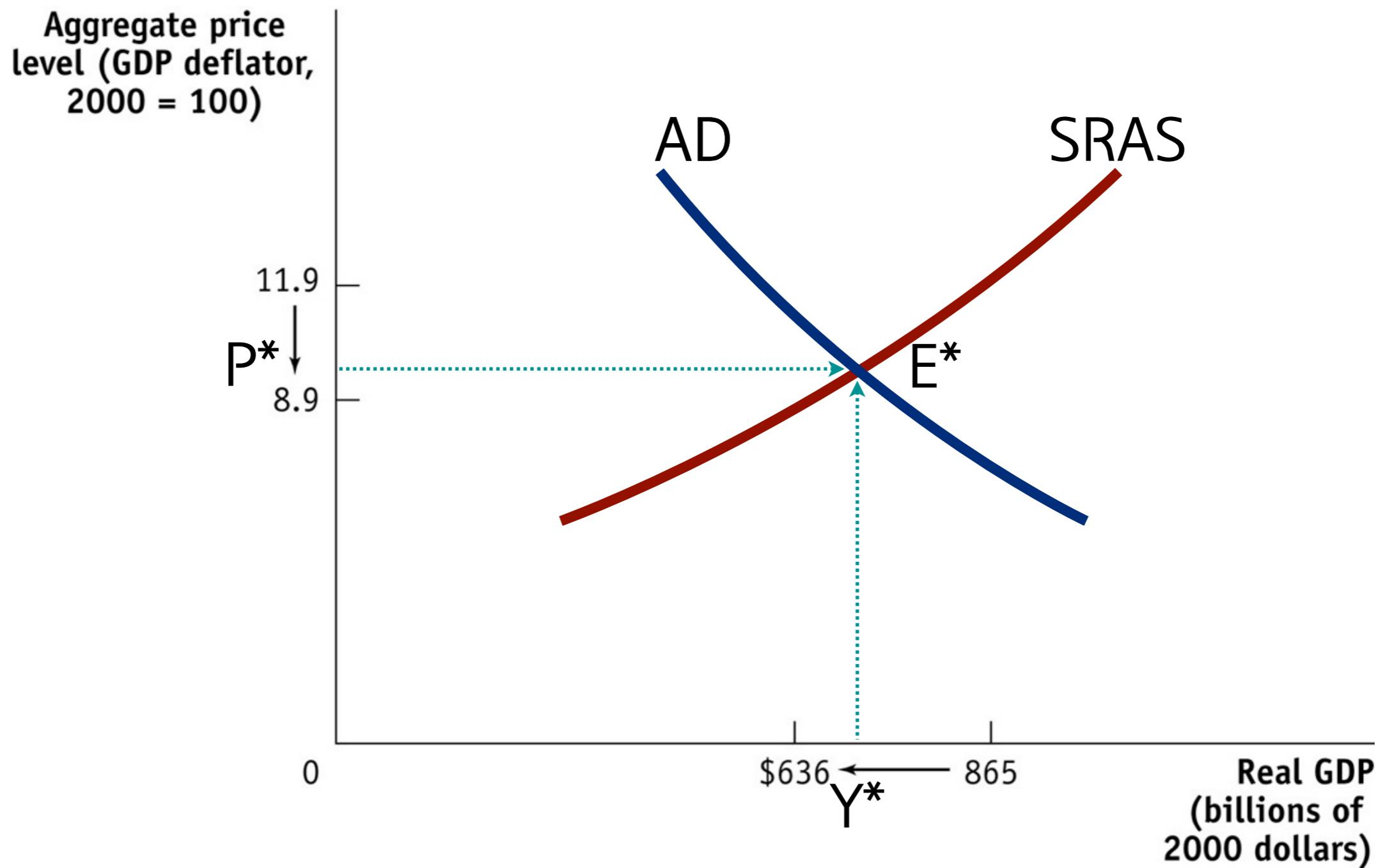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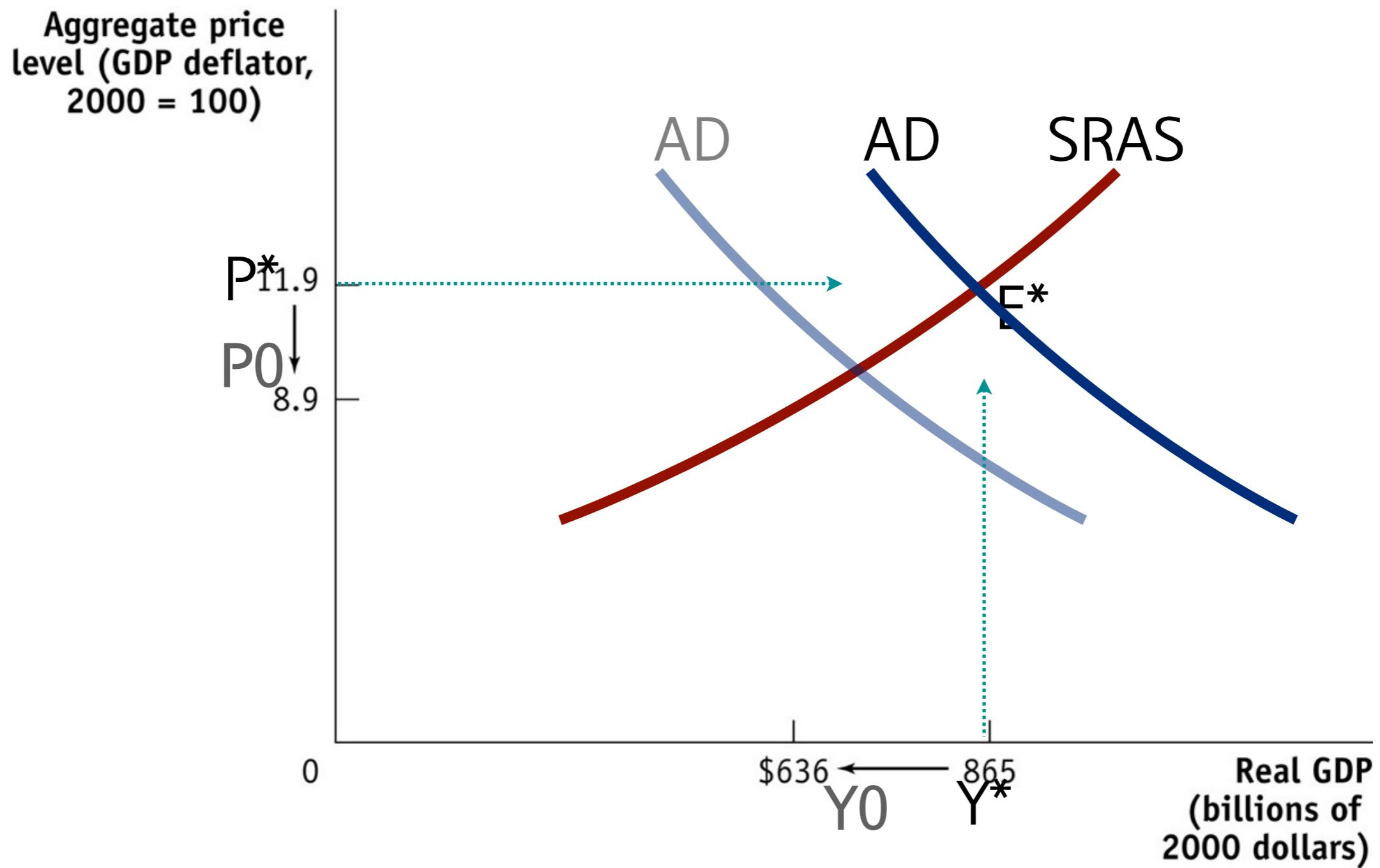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+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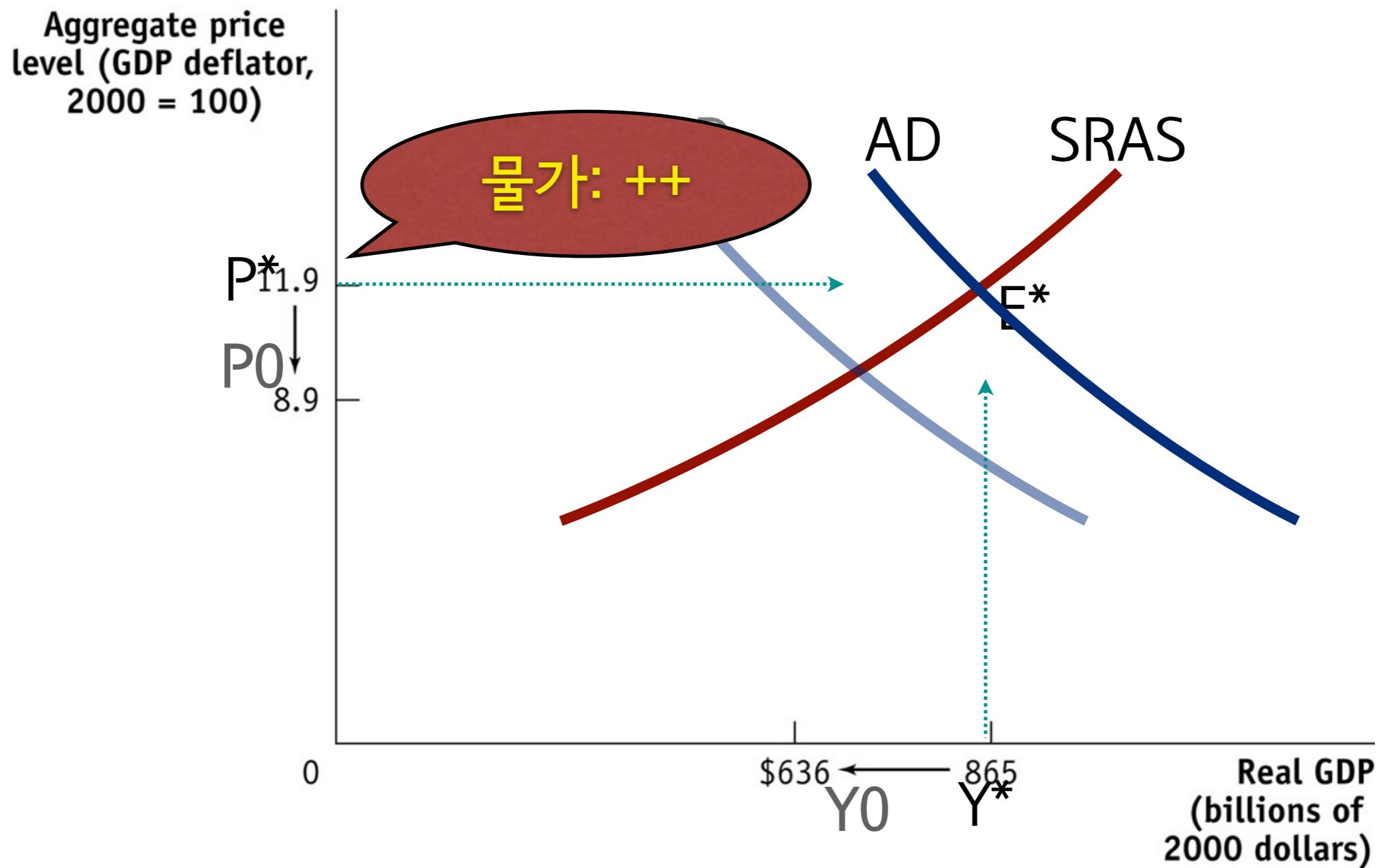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+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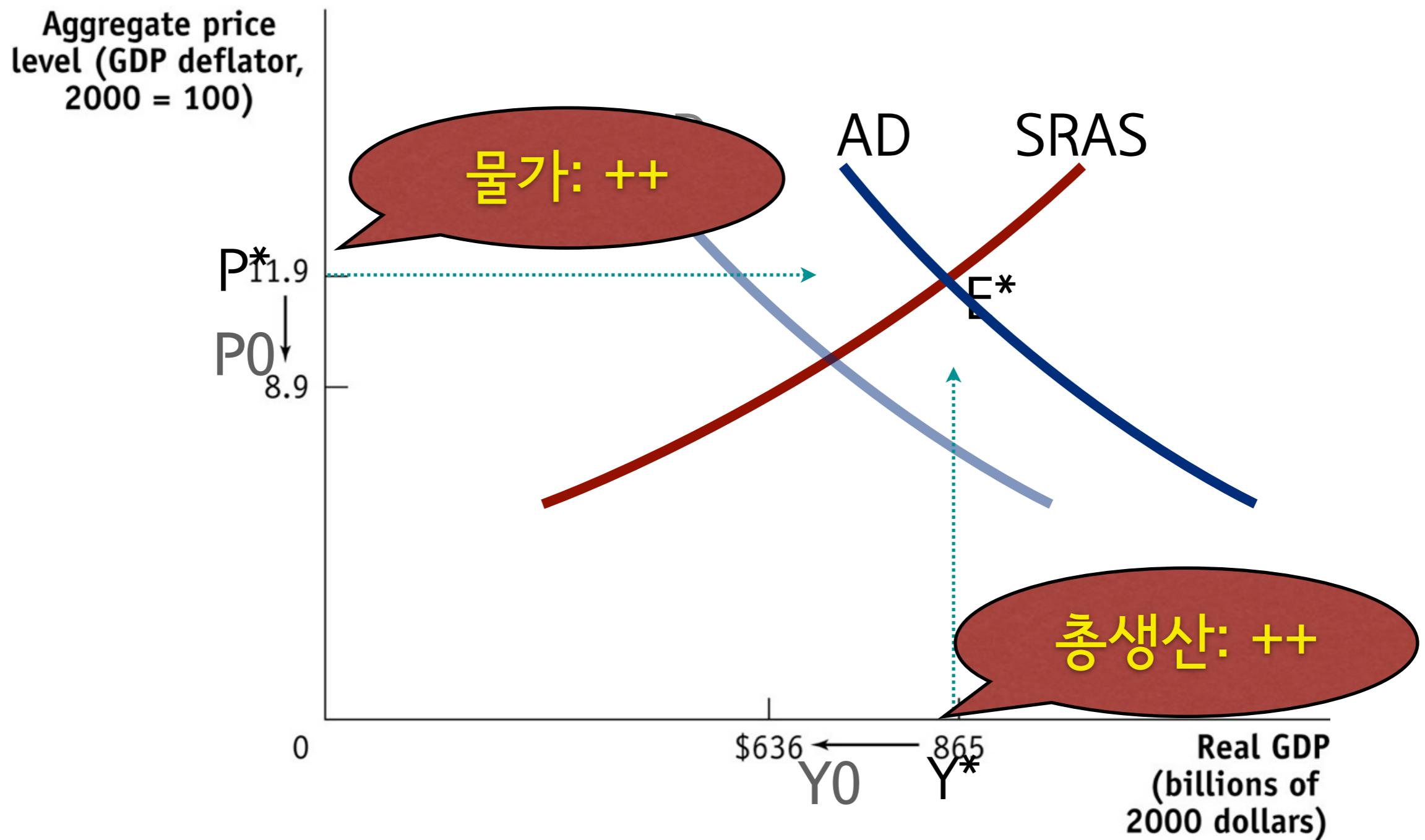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+)



# Demand Shock (+)



# Demand Shock (+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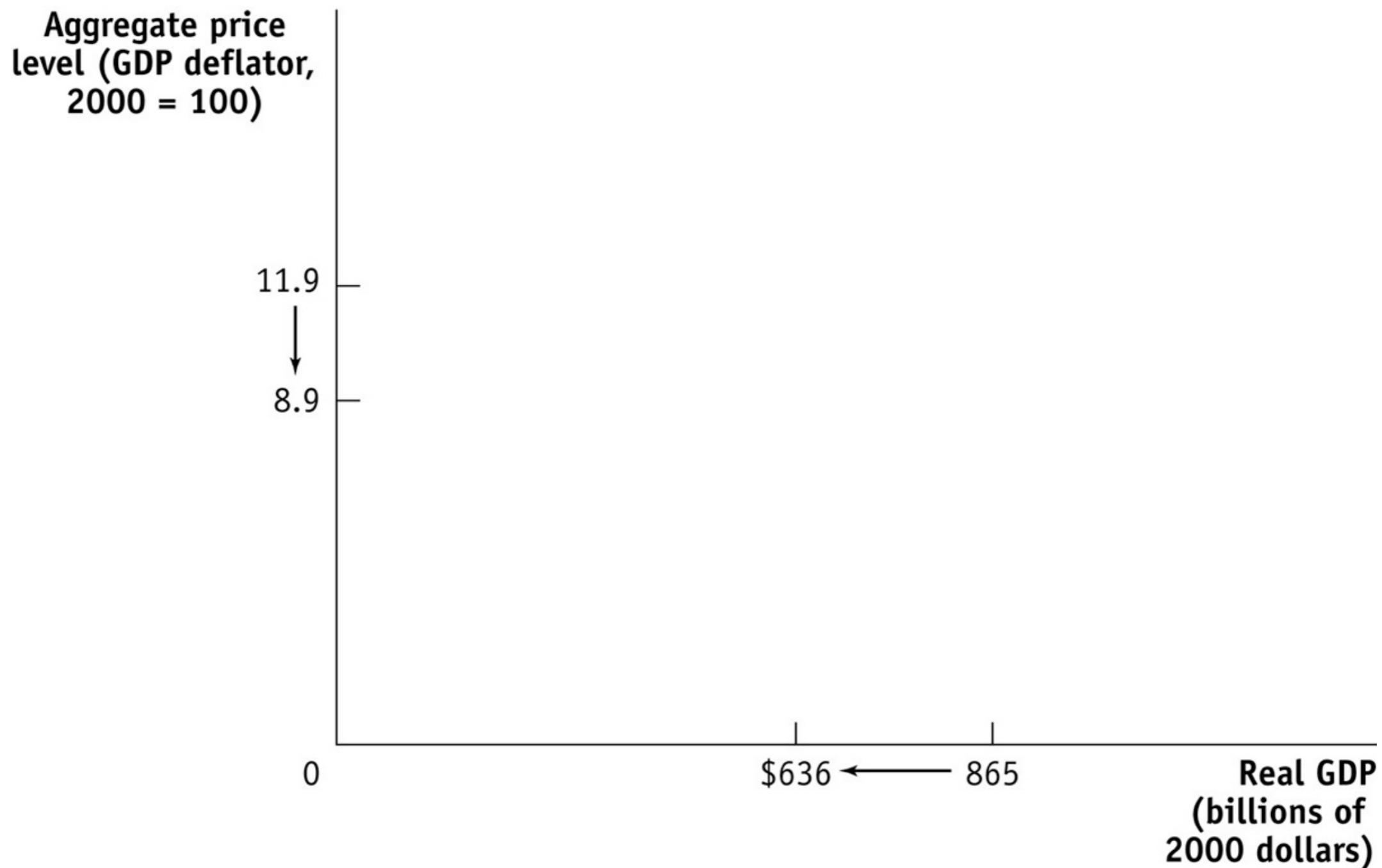
# 수요충격의 효과

The Effects of Demand Shock

- 수요충격의 결과 총생산이 상승[하락]하게 되는데, 이와 함께 발생하는 물가상승[하락]은 총생산 증가 [감소]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함
  - 공급충격은 완충작용을 받을 수 없음: 불쾌한(?) 충격
- 총생산하락 + 물가하락 : 소득하락+물가변동으로 인한 실질소득 상승효과
- 수요충격은 인위적으로 줄 수 있음: 통화/재정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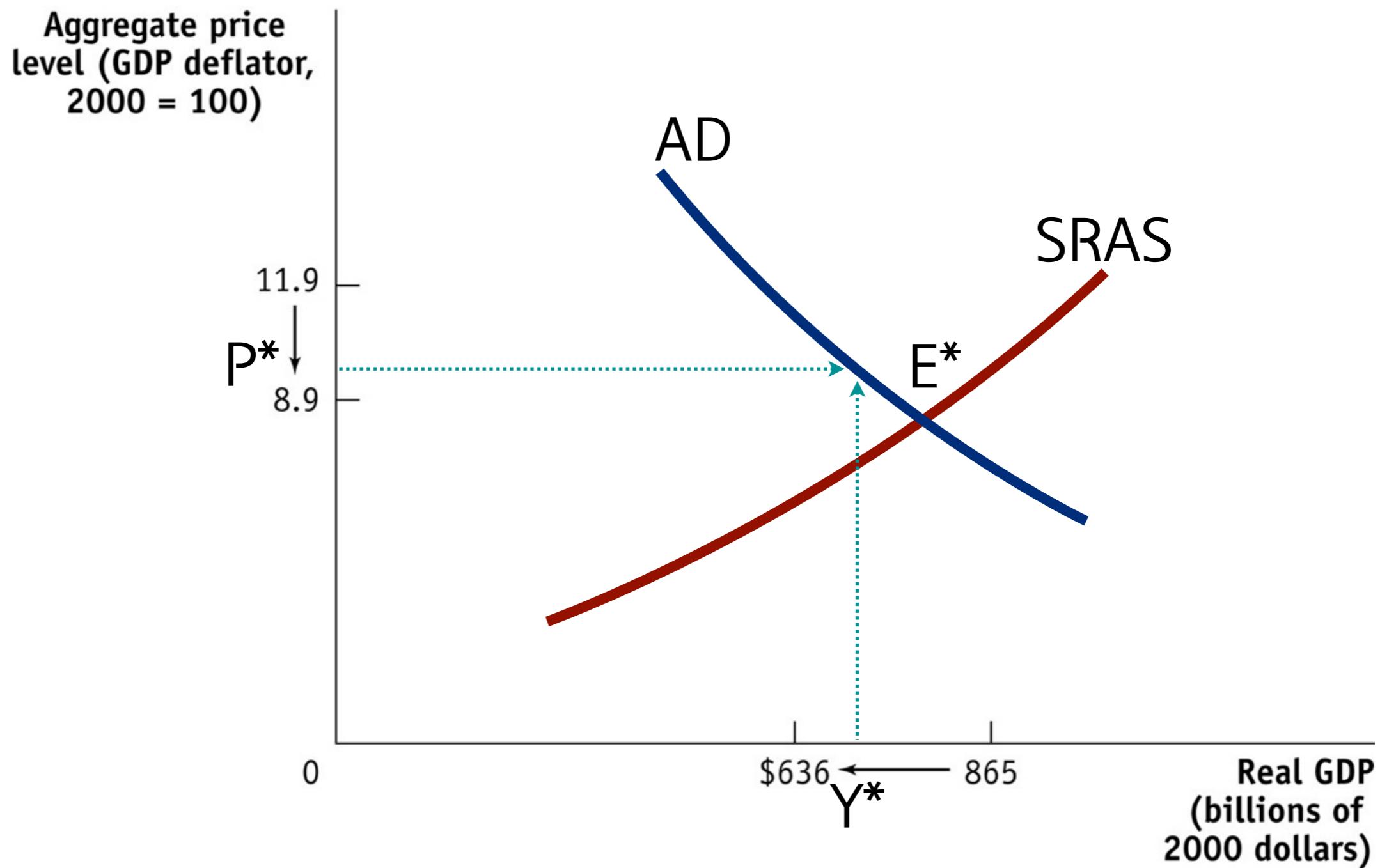
# 장기 거시경제 균형

## Long-Run Macroeconomic Equilibriu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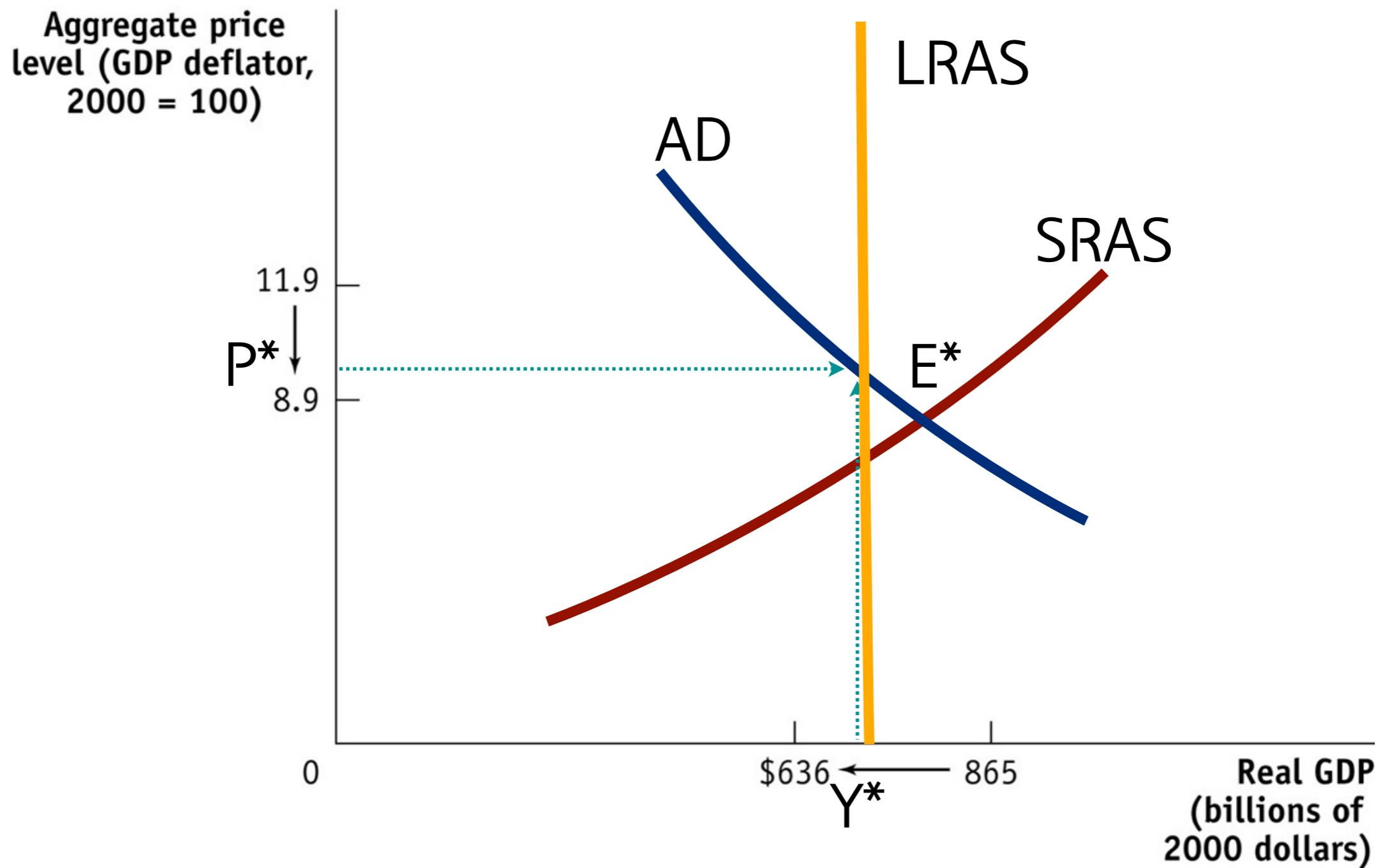
# 장기 거시경제 균형

Long-Run Macroeconomic Equilibriu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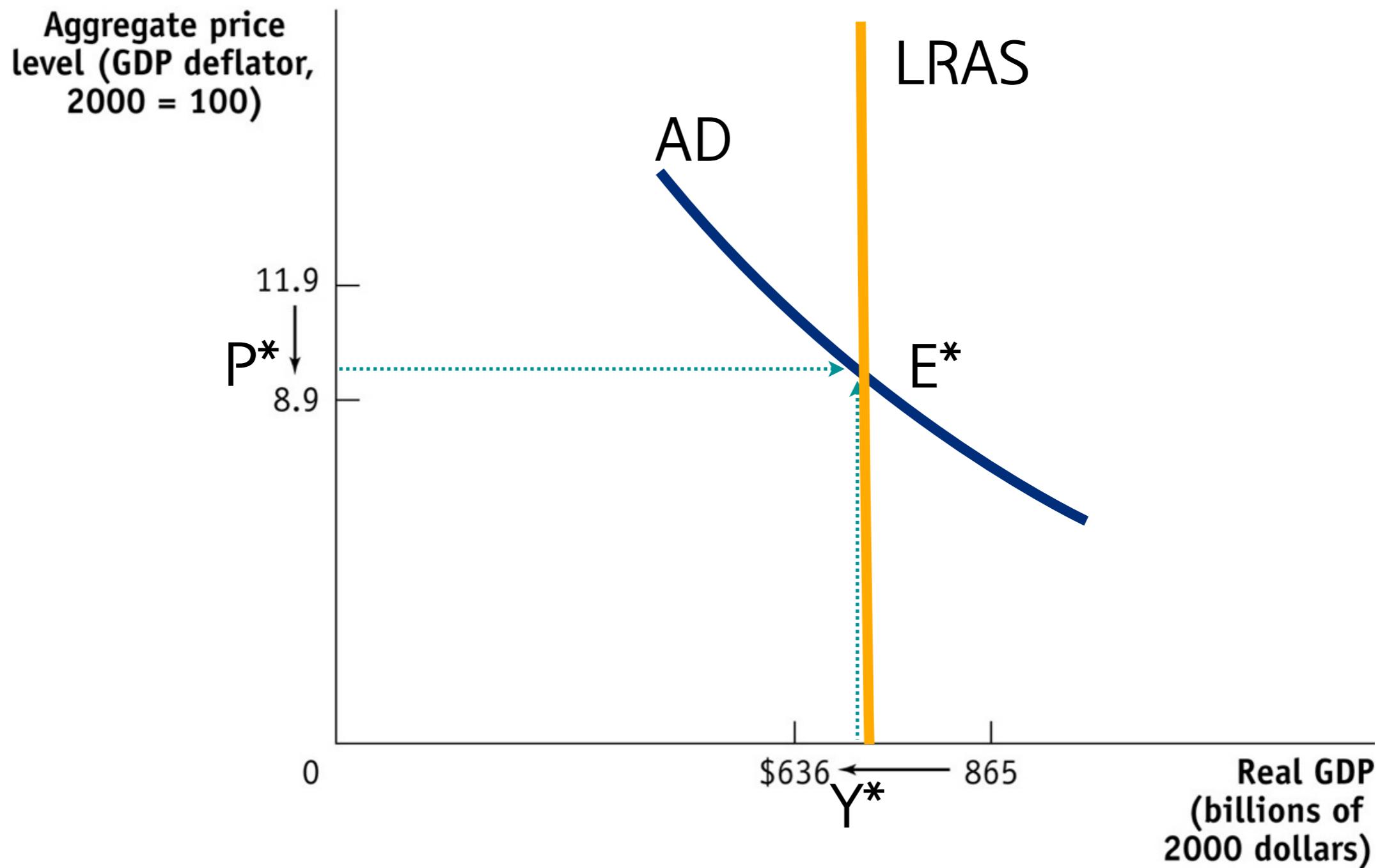
# 장기 거시경제 균형

Long-Run Macroeconomic Equilibrium



# 장기 거시경제 균형

Long-Run Macroeconomic Equilibriu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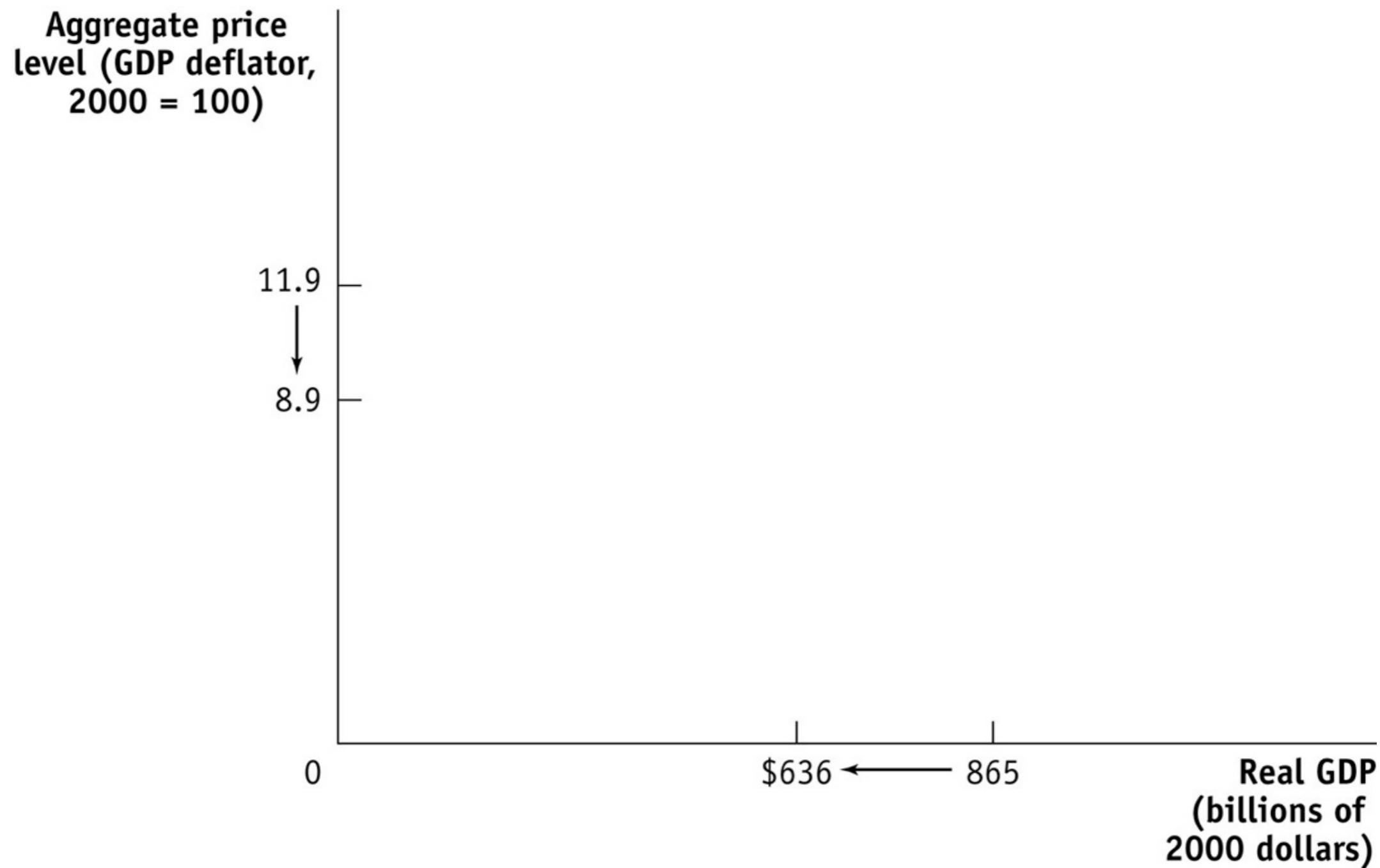


# 장기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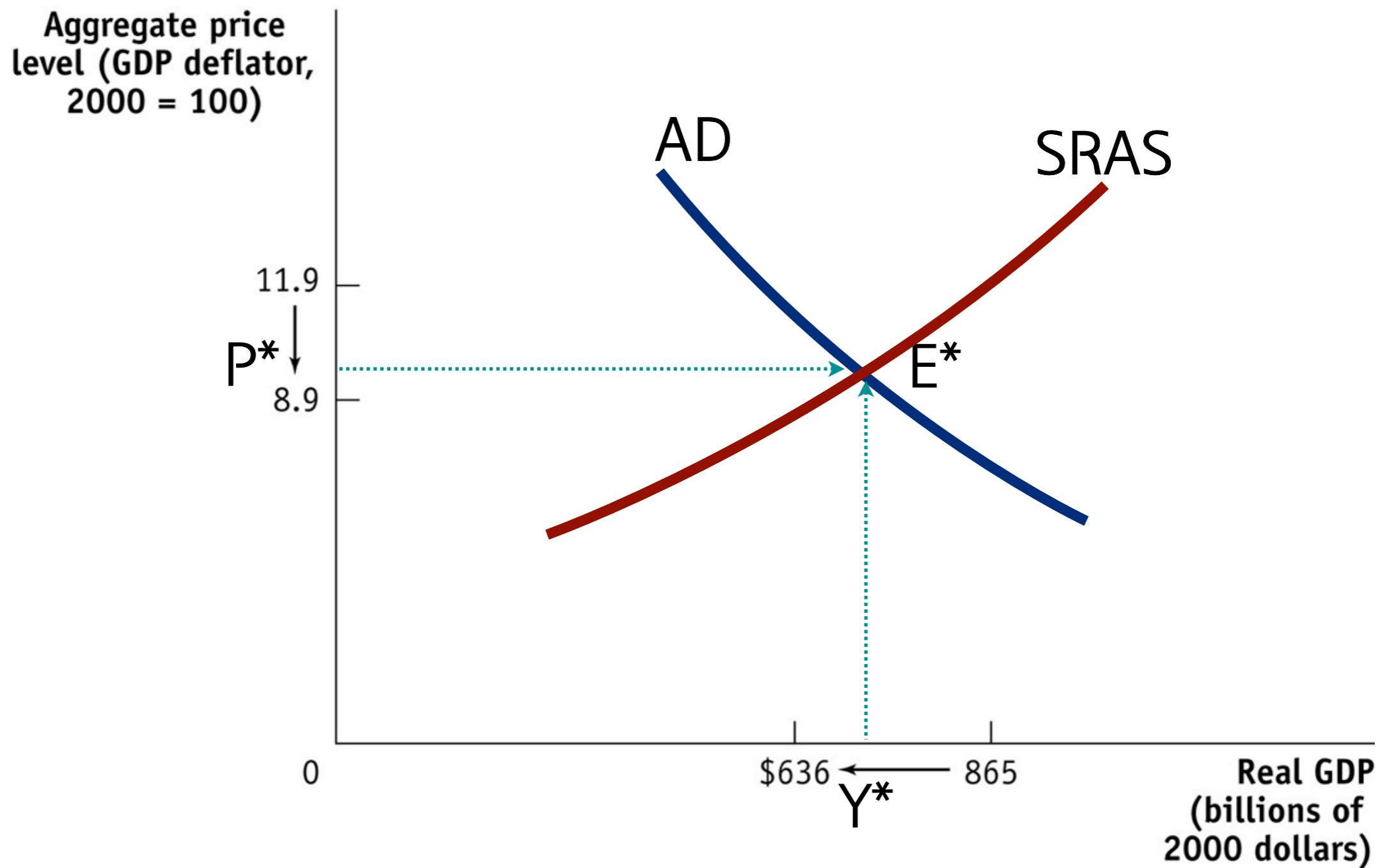
Long Run Equilibrium

- SRAS곡선은 장기적으로 LRAS-AD곡선의 교차점으로 이동해감: 장기조정
- 장기조정시 SRAS곡선의 이동경로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발생
  - inflation gap: 비용구조를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킴
  - recession gap: 비용구조를 개선시켜 장기적으로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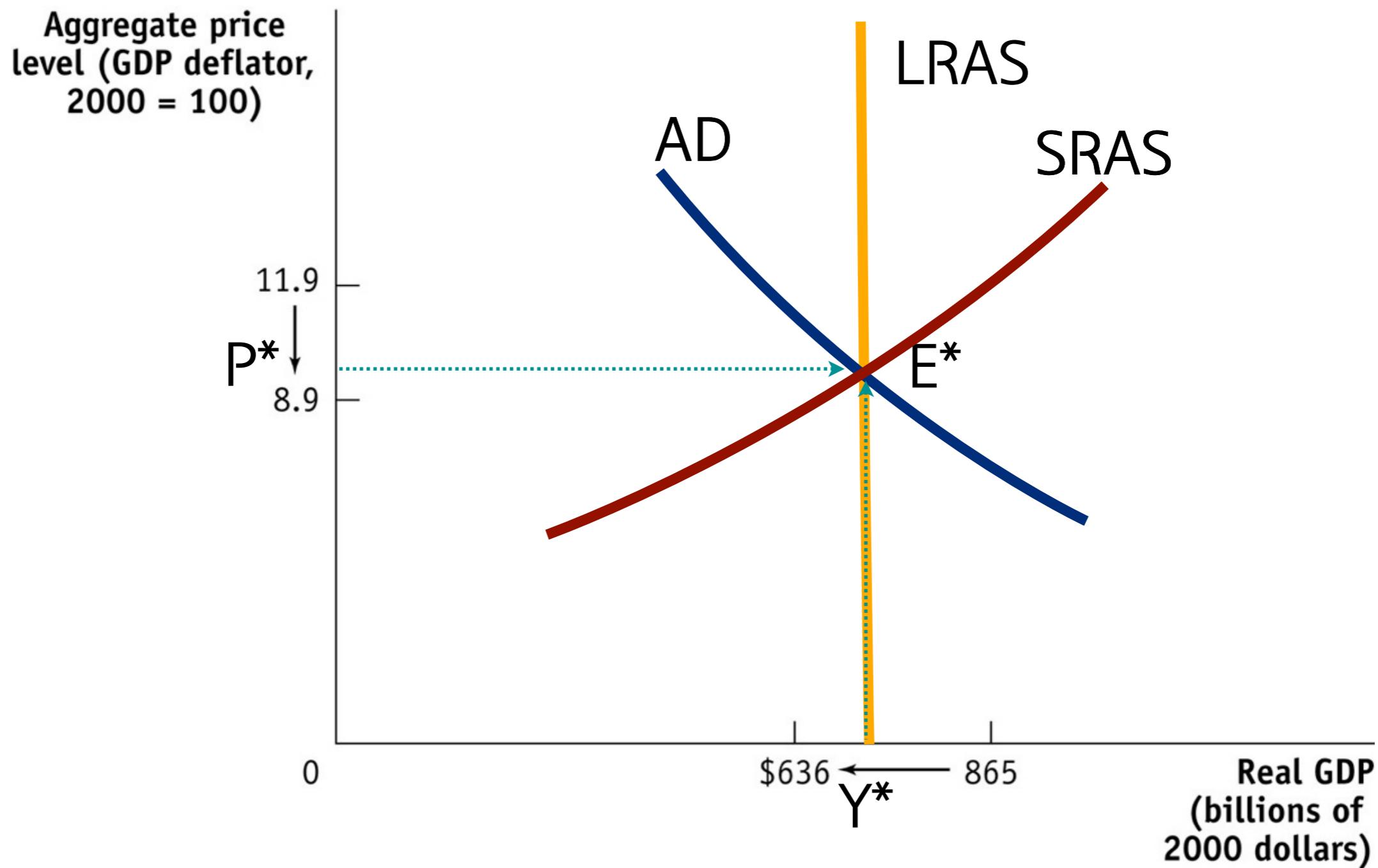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(-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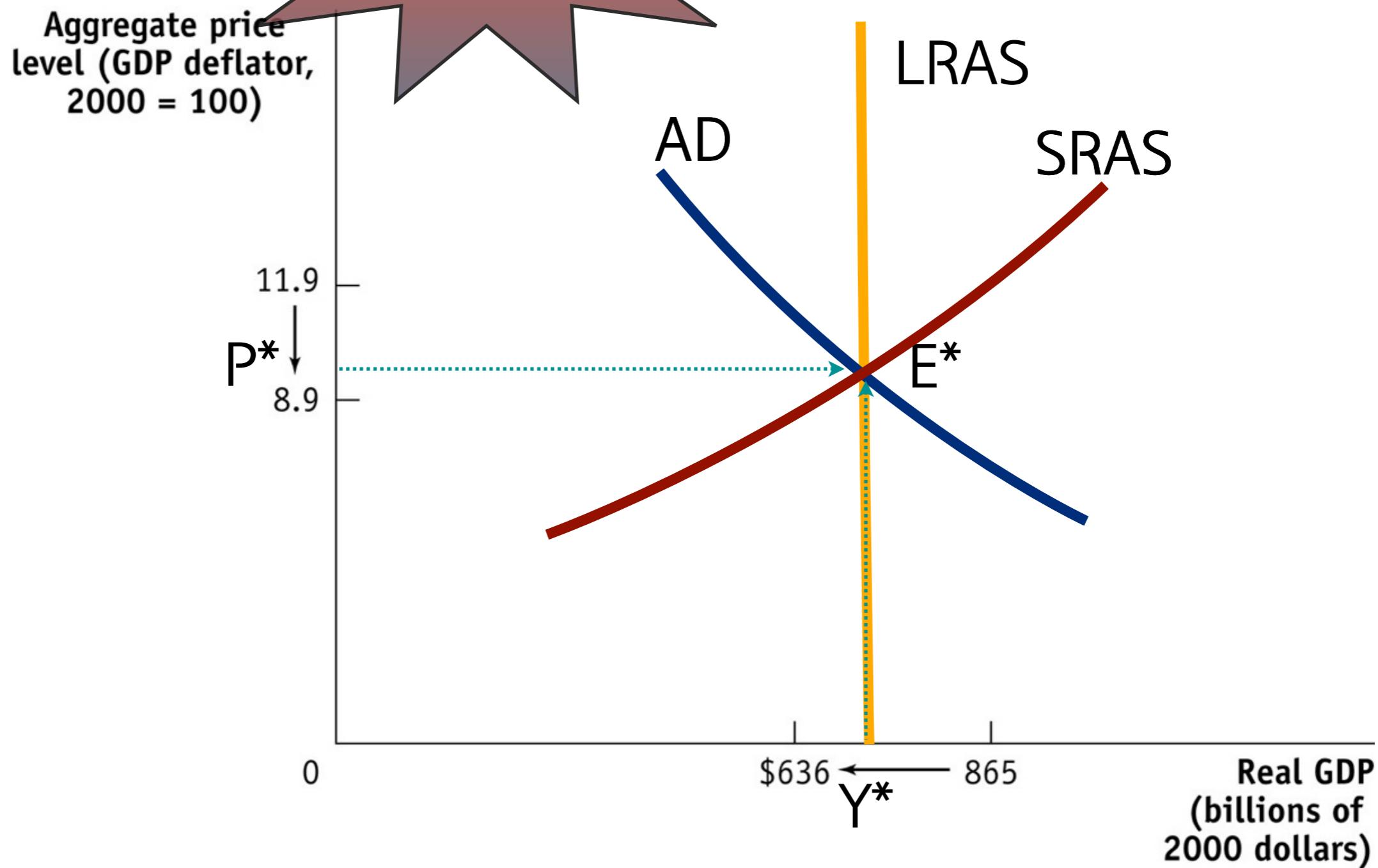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(-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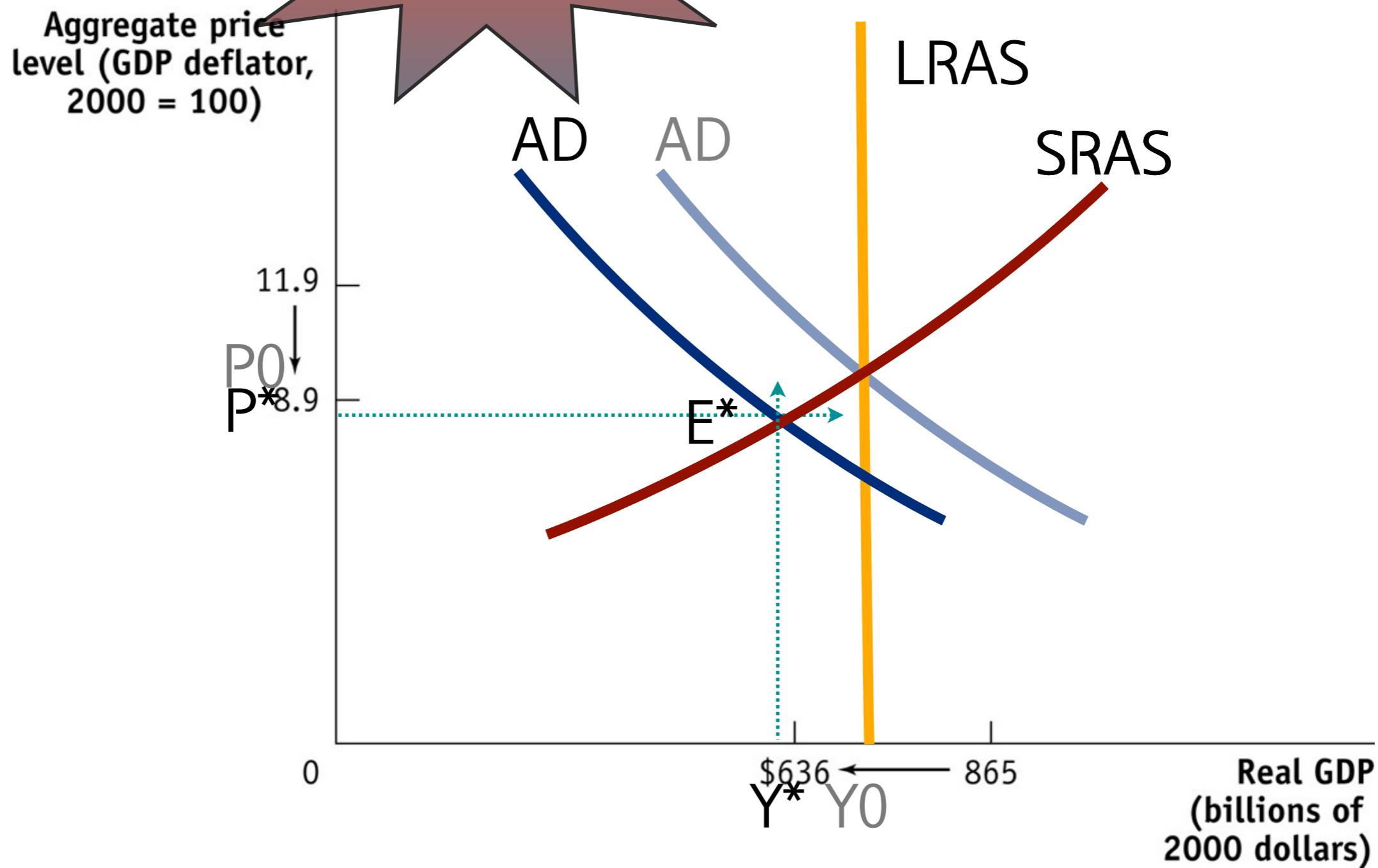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(-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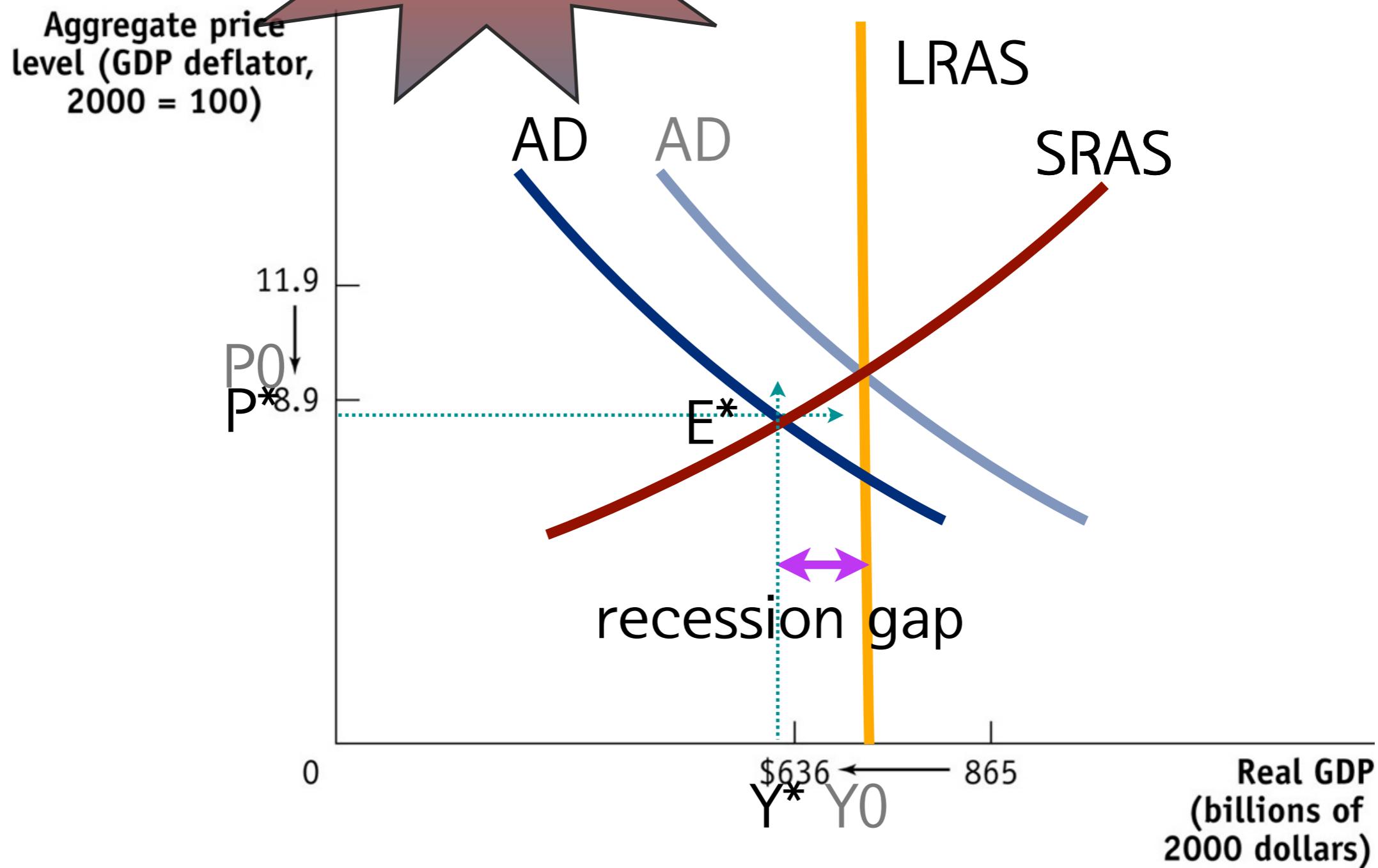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(-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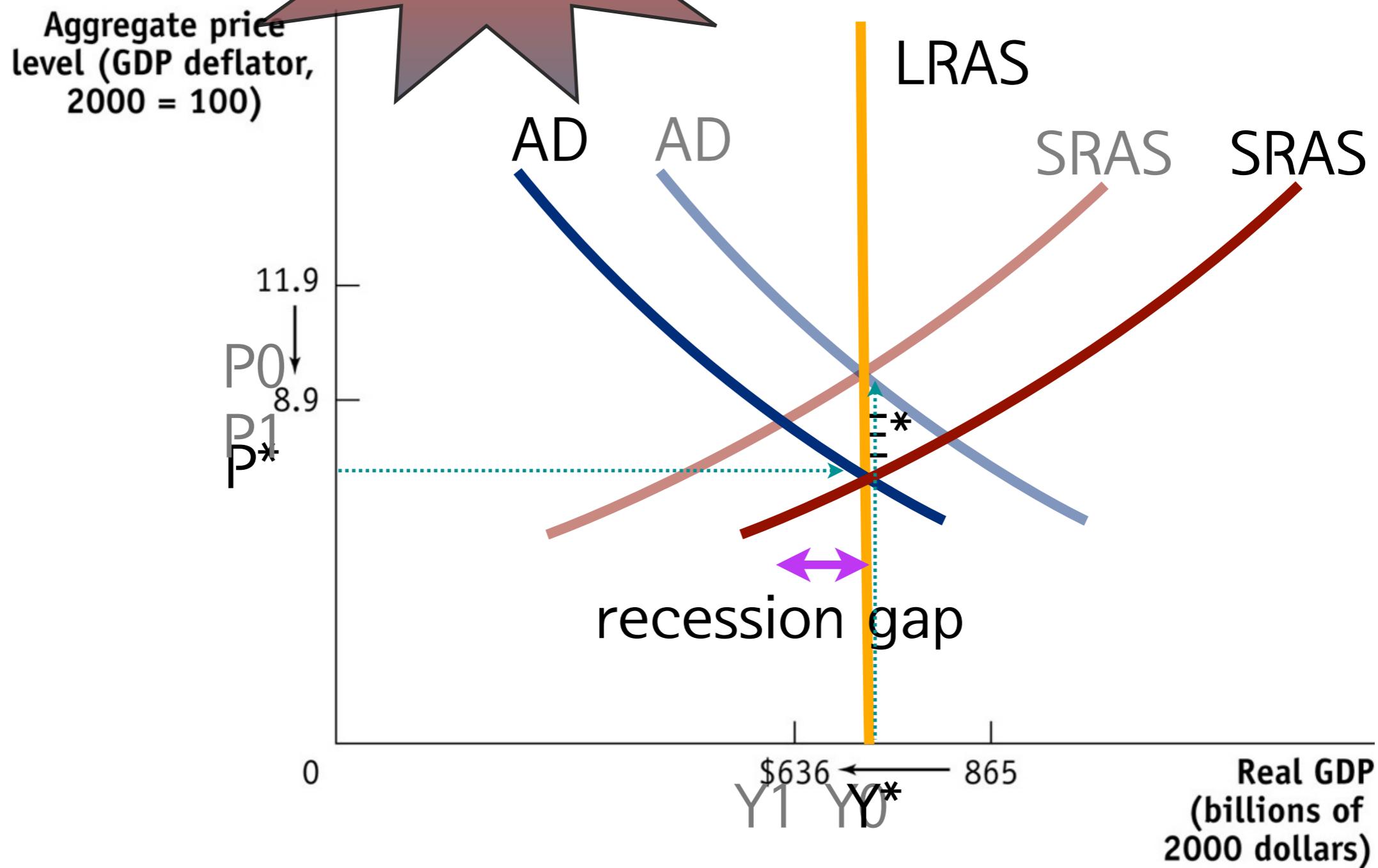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(-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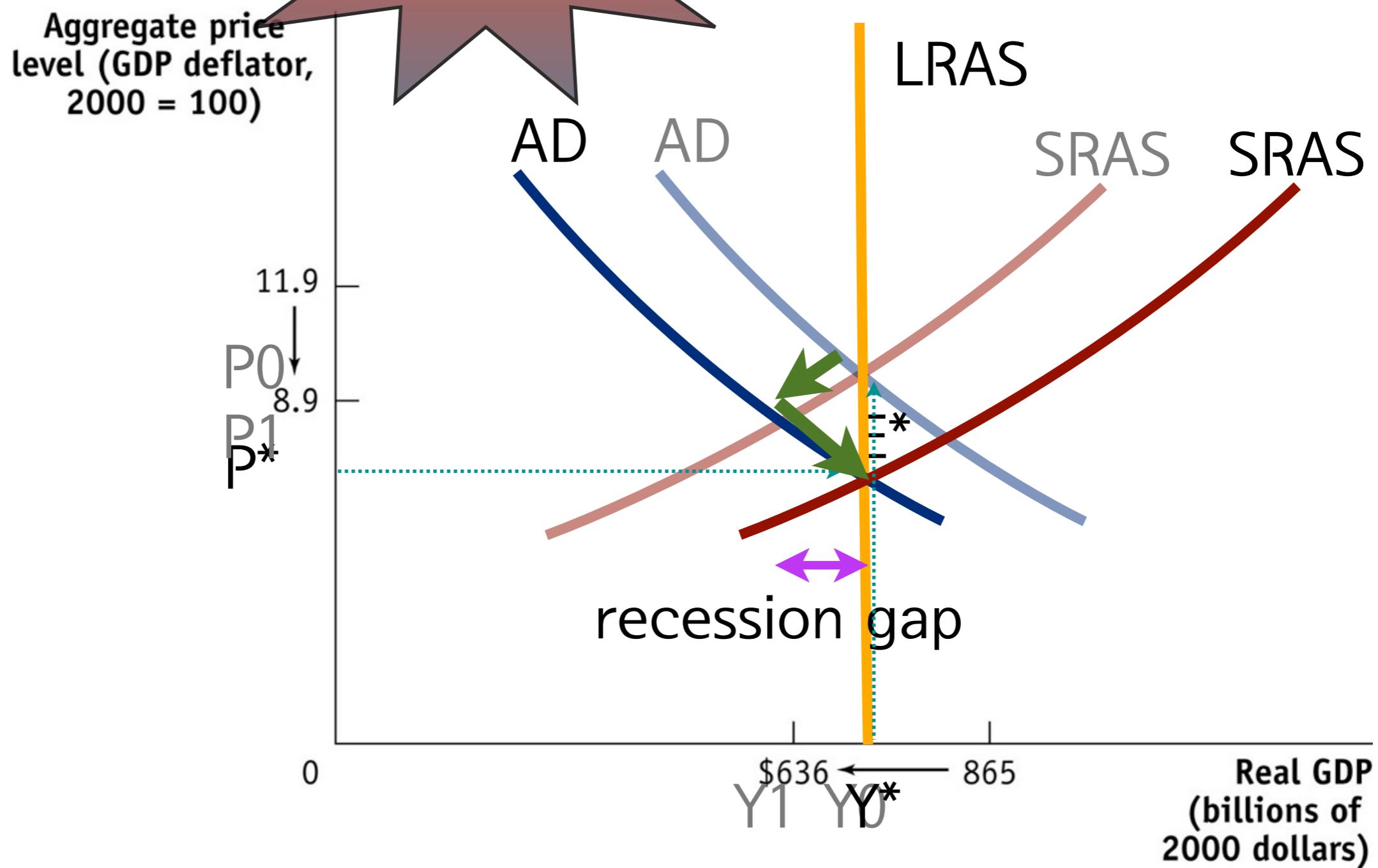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(-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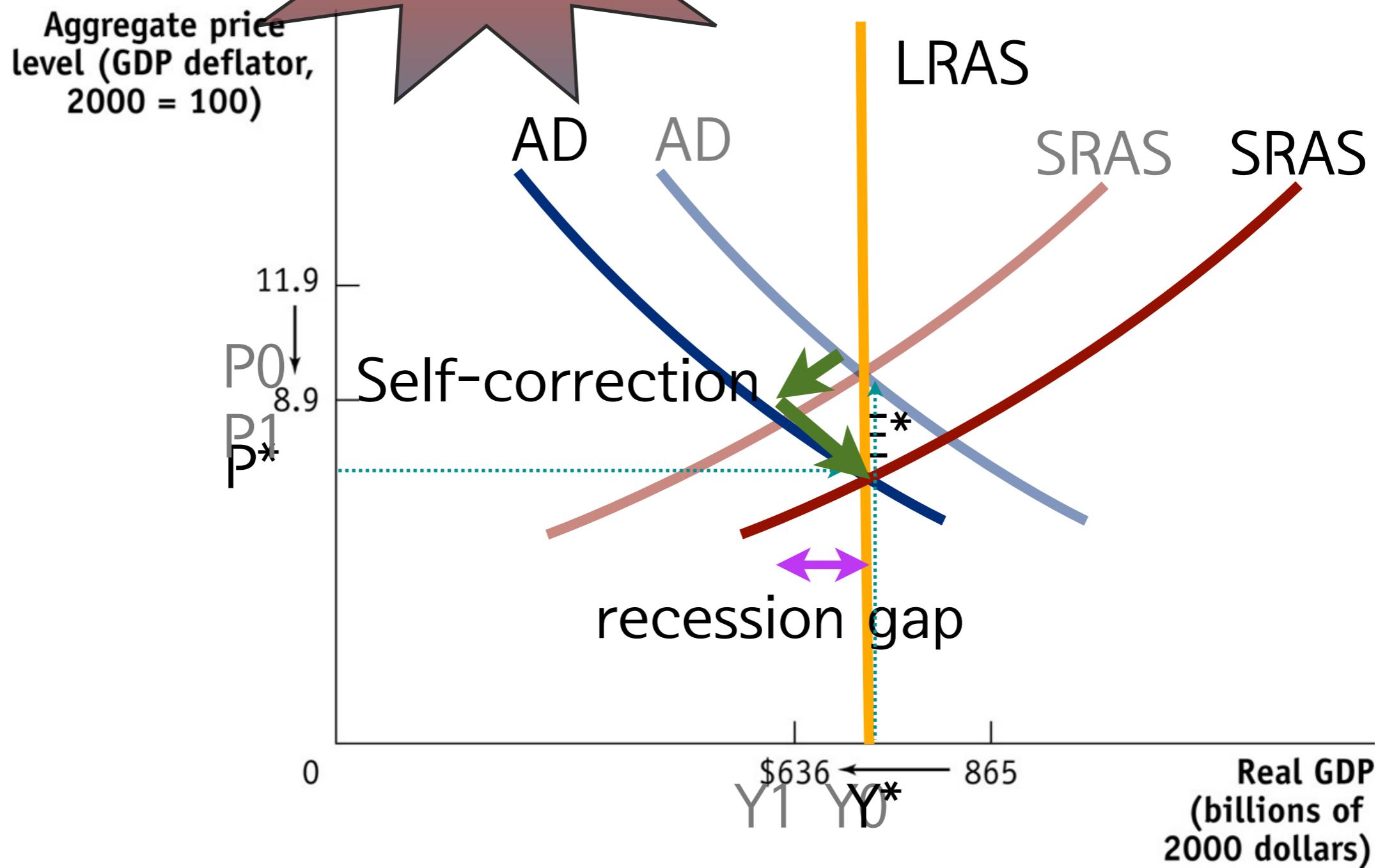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(-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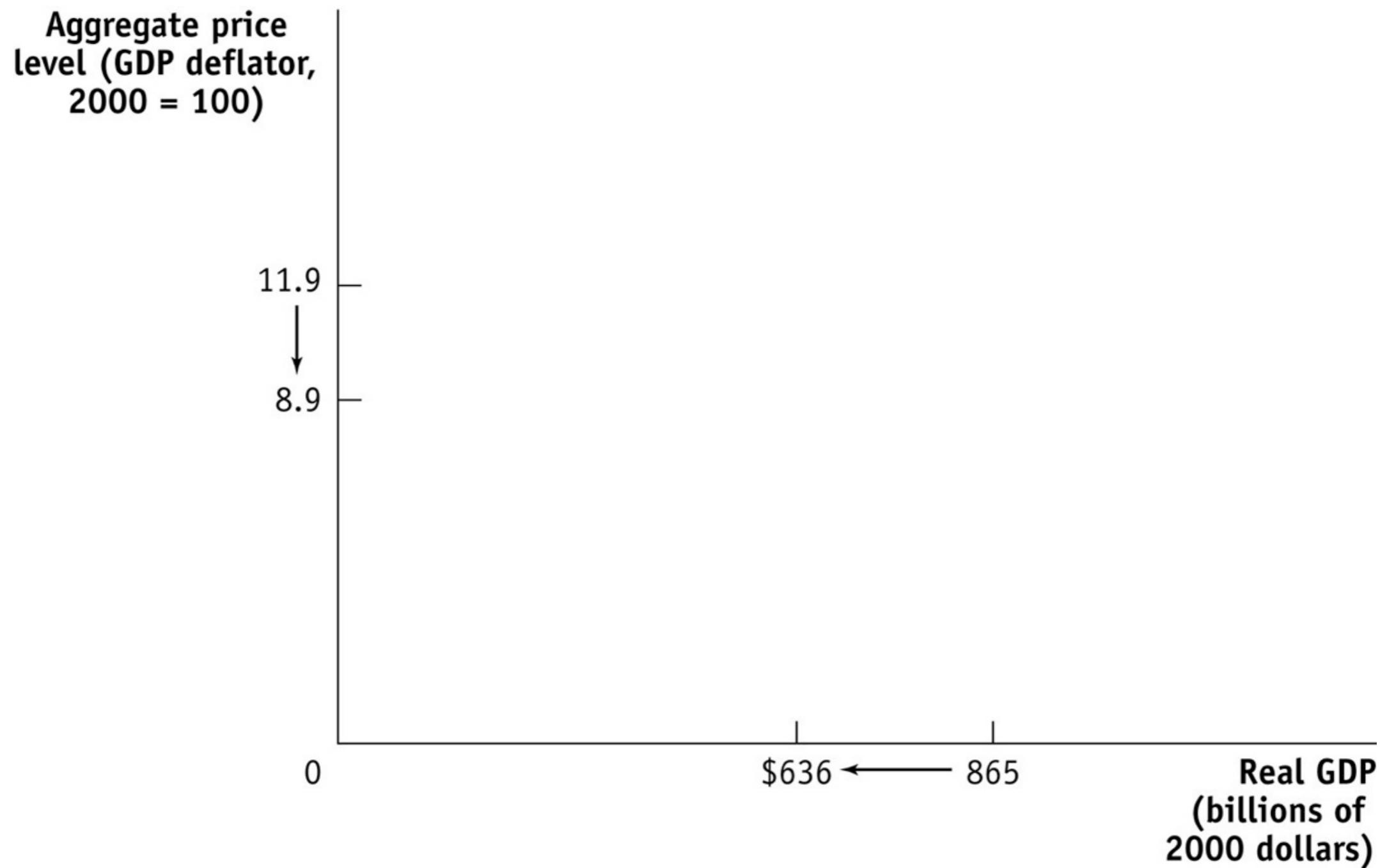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(-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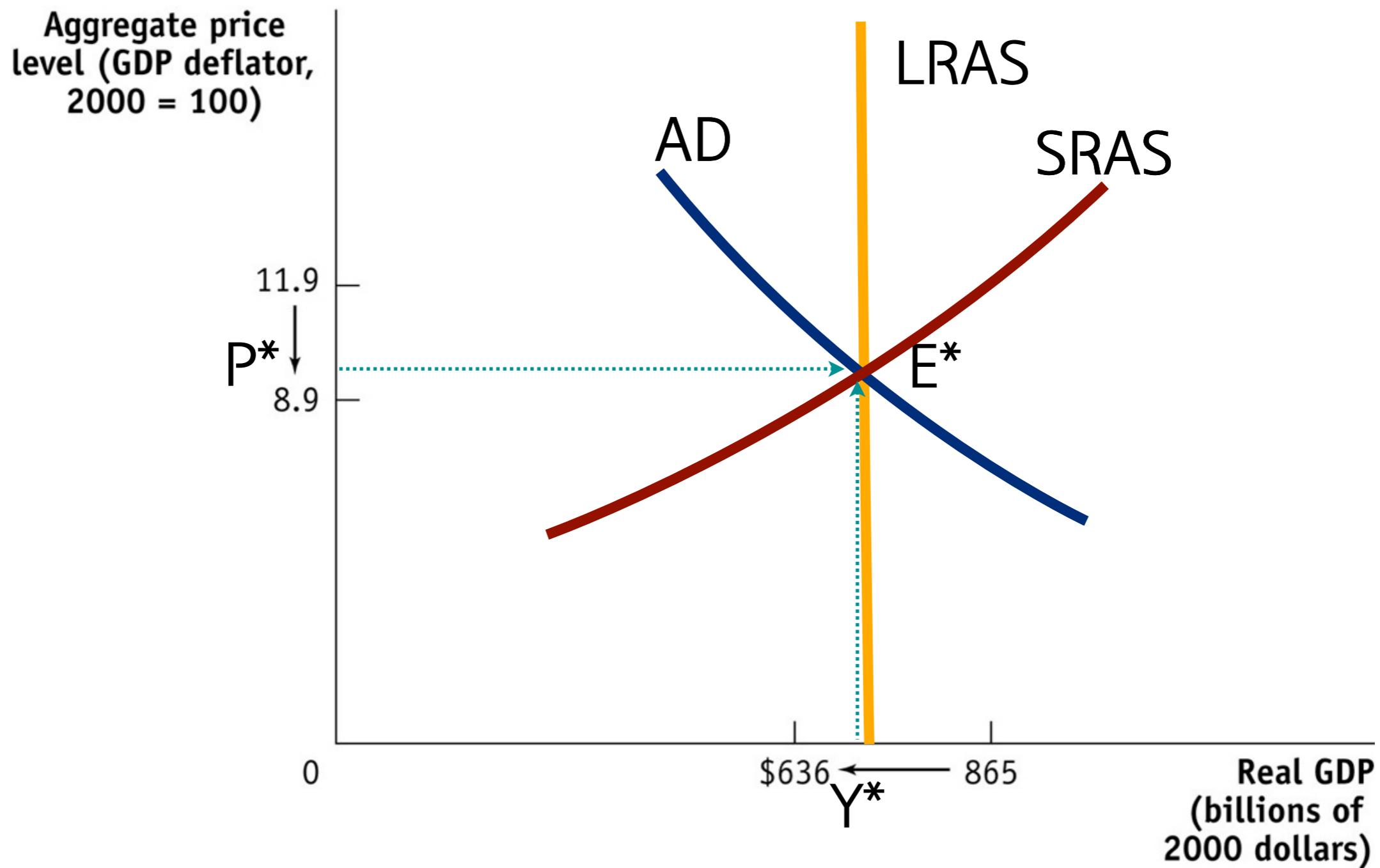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(-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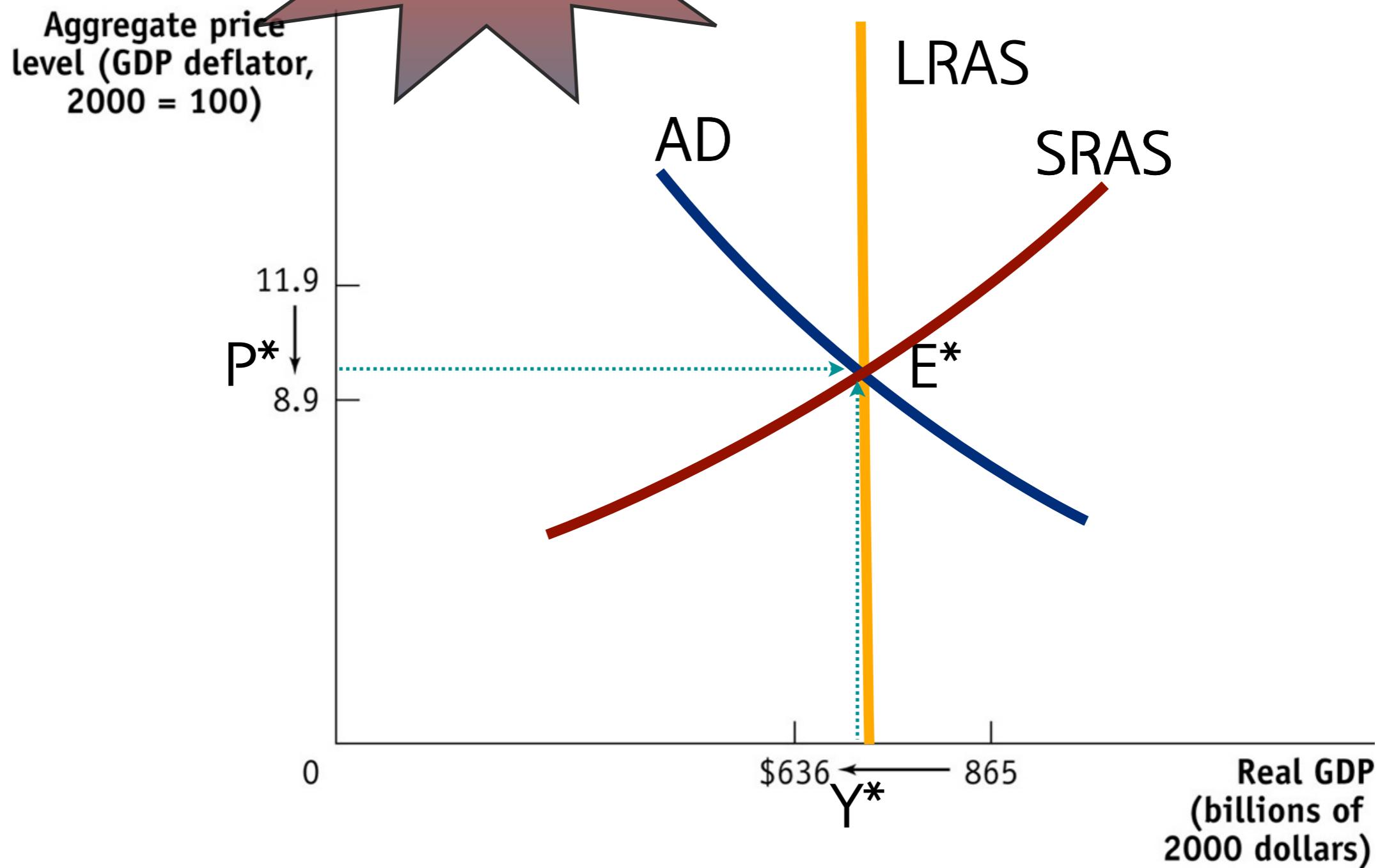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(+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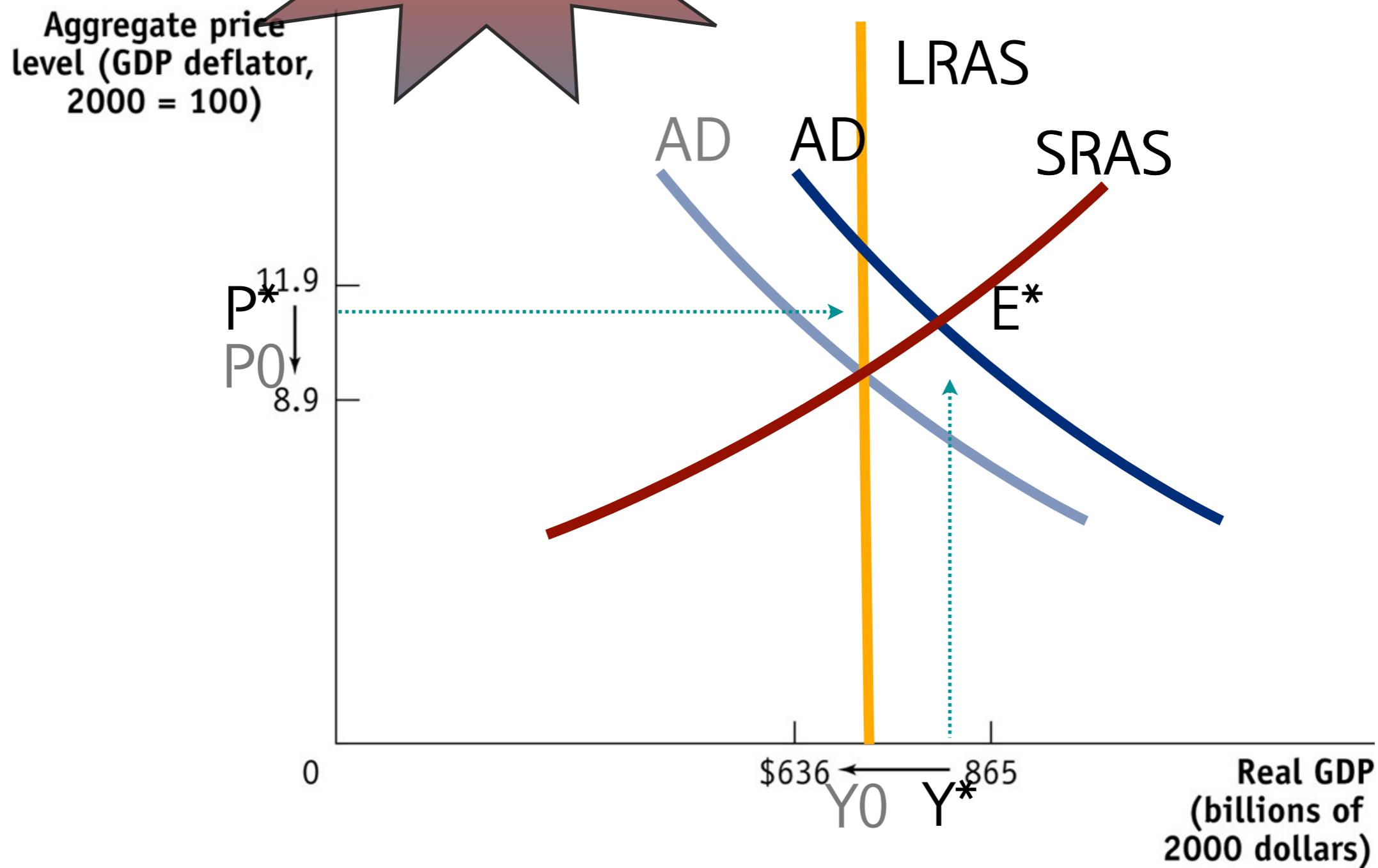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(+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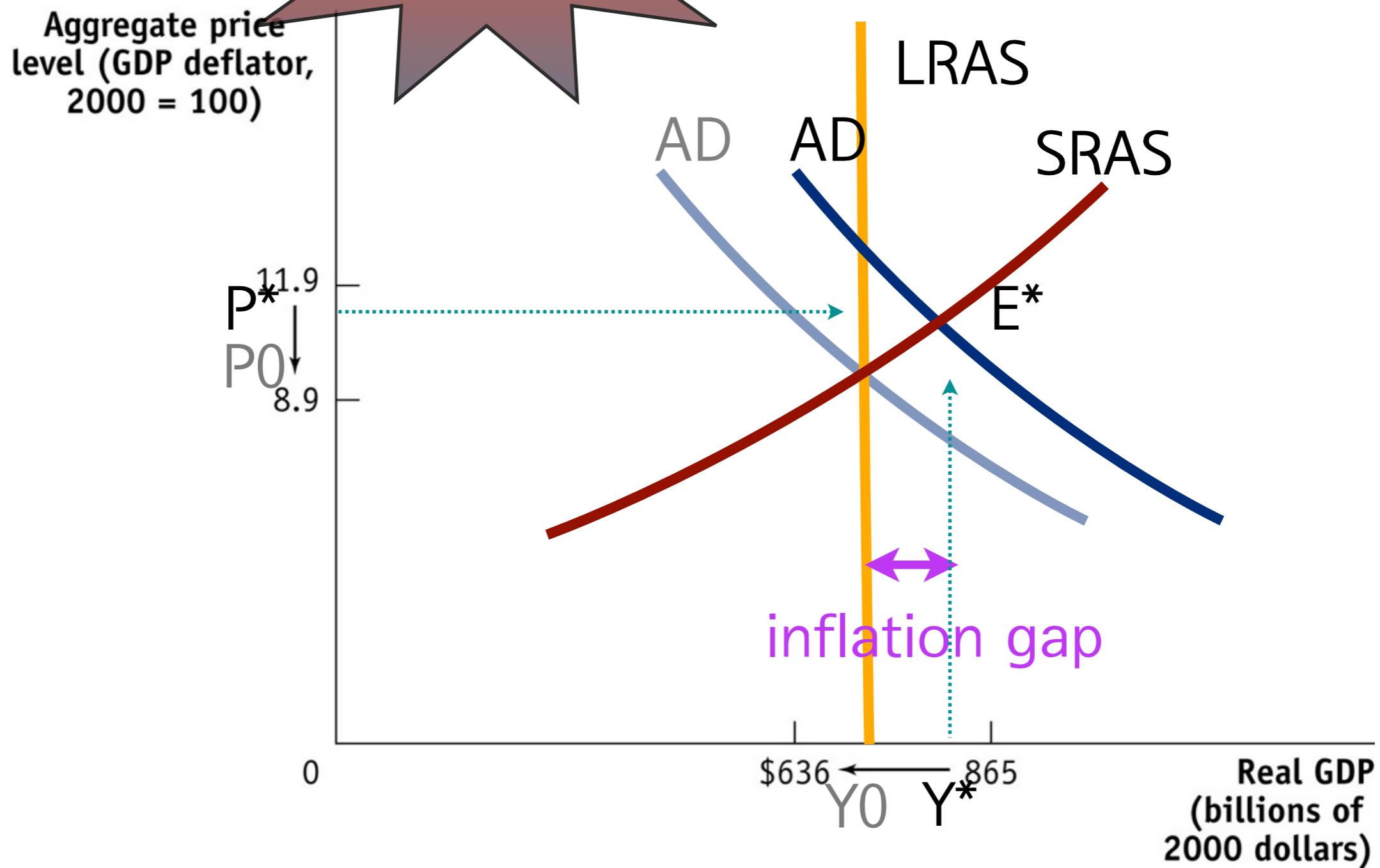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+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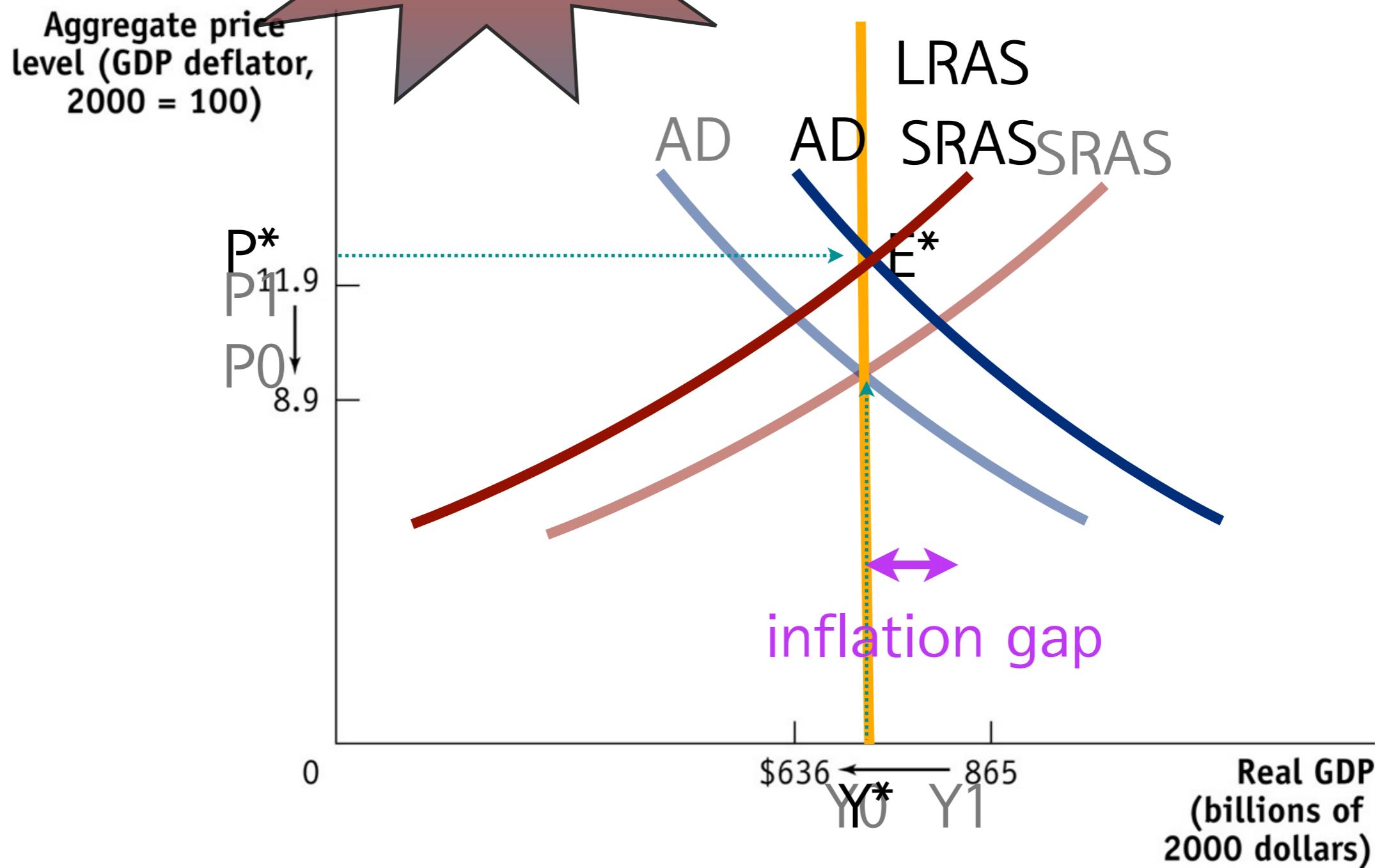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+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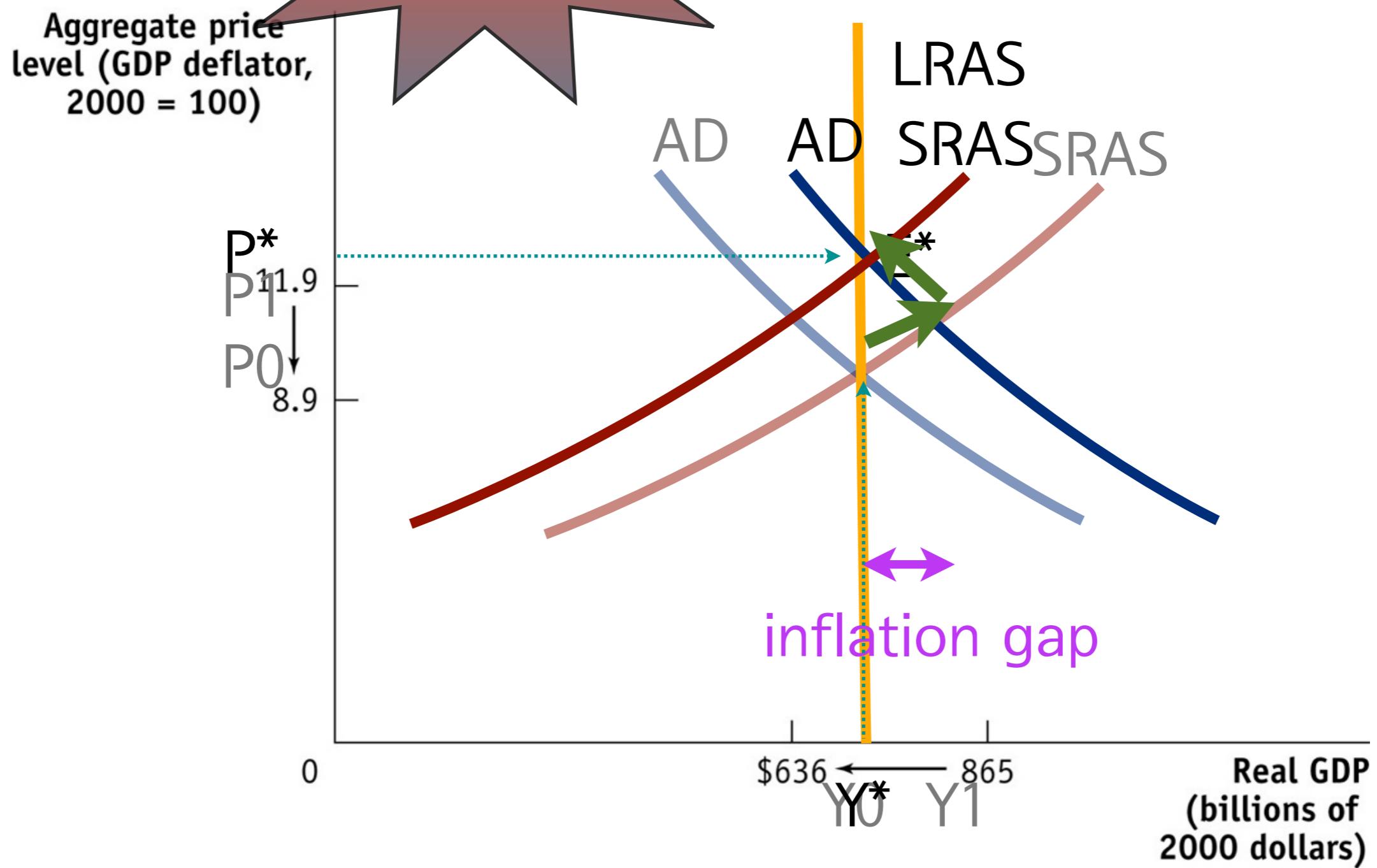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+) L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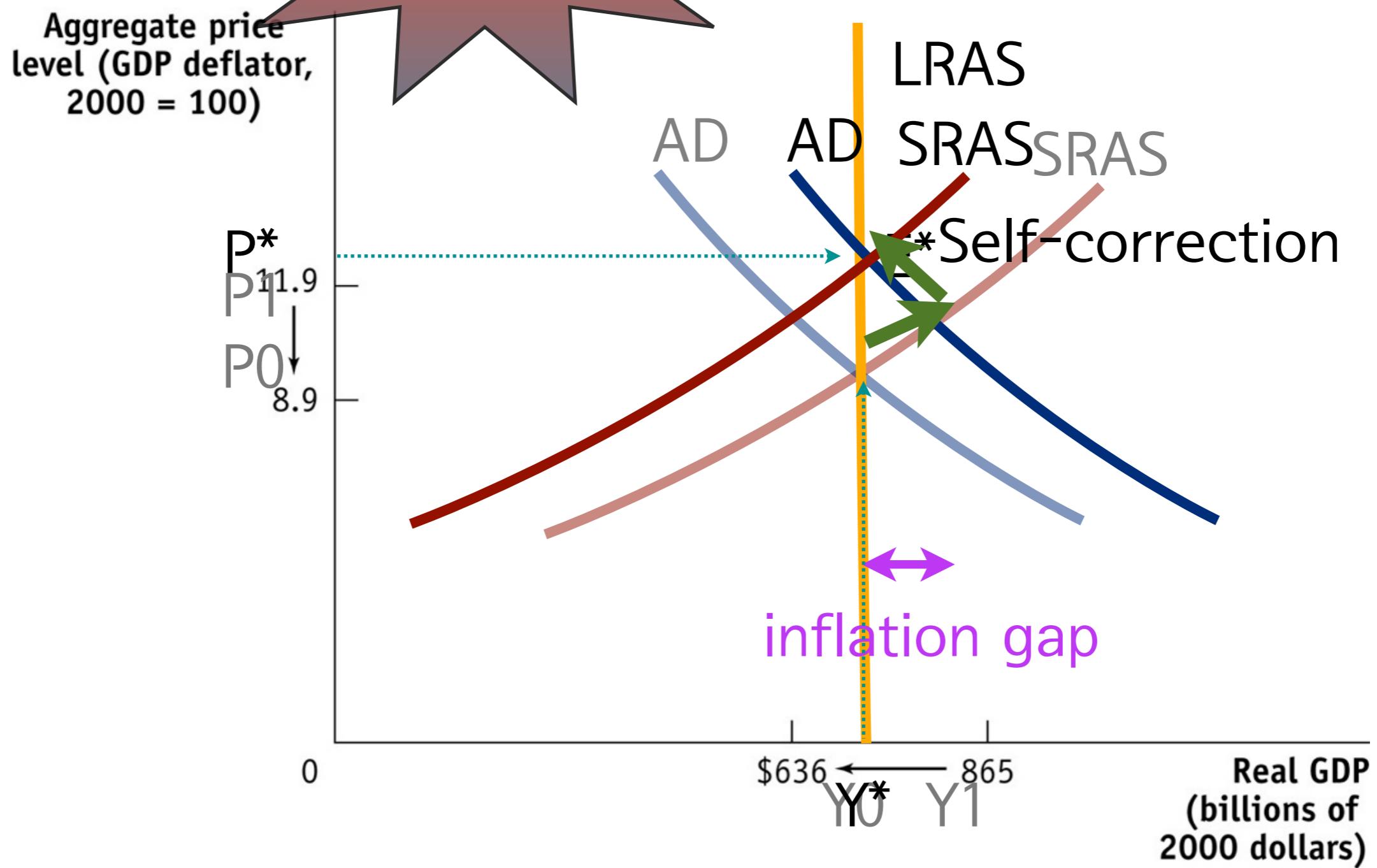
# Demand Shock (+) LR



# Demand Shock (+) LR



# Demand Shock (+) LR



# 거시 경제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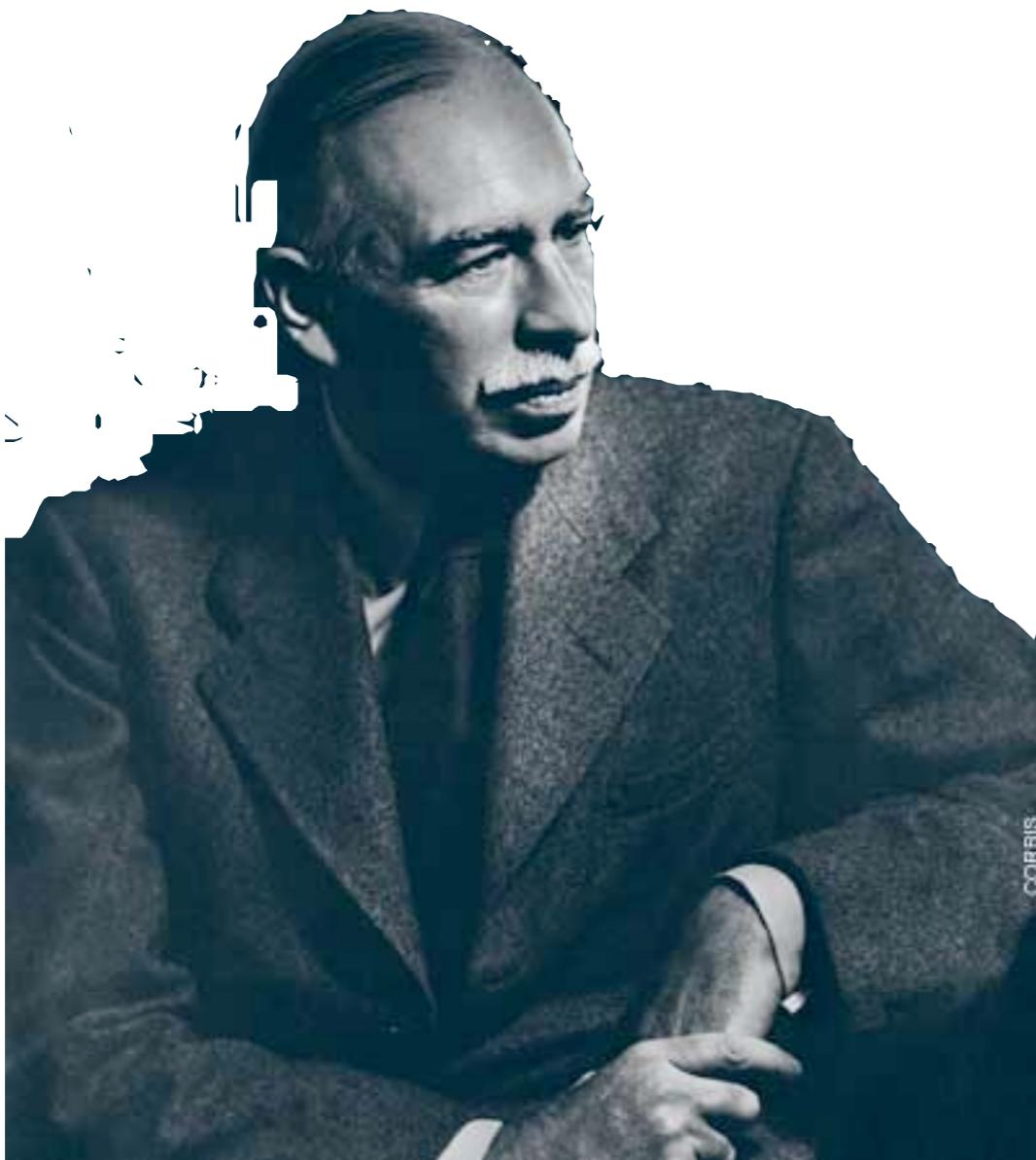
## Macroeconomic Policy

# 자기보정의 함의

## Meaning of Self-Correc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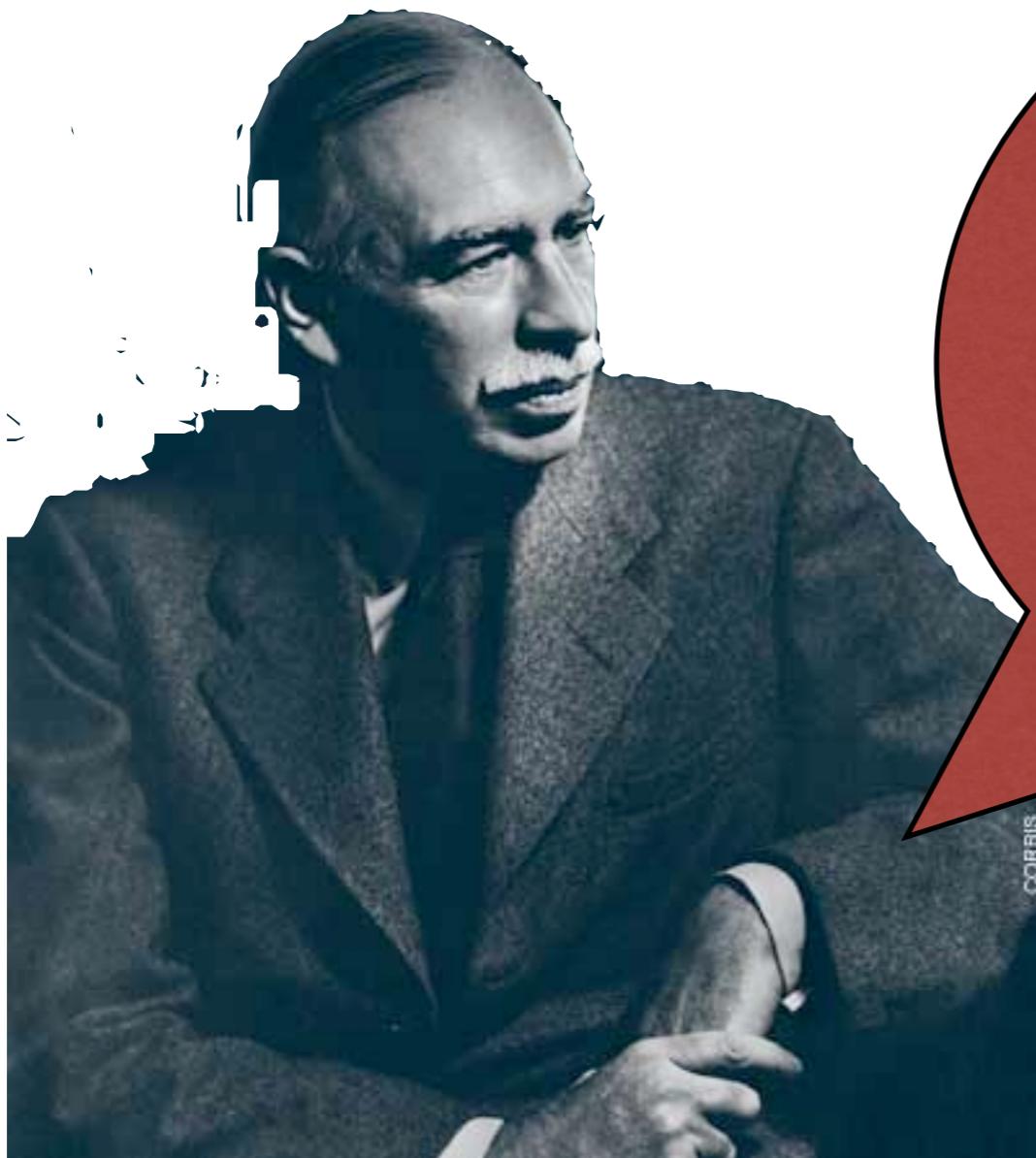
- “어찌되었던 장기가 되면 정상적 생산수준을 회복하게 된다. 다만 단기적 효과만 달라질 뿐이다.”

# 케인즈의 비판



CORBIS

# 케인즈의 비판



“In the long  
run we are all  
dead”

CORBIS

# 경제안정화정책

## The Stabilization Policy

정상적	비정상	부작용	재정정책
호황	경기과열	고물가	긴축정책
불황	경기침체/공황	고실업	부양정책

# 경제안정화정책

## The Stabilization Policy

- 주로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정책
- 총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장기정책 - 경제 구조의 변화와 관련 있음
- 종류: 통화정책, 재정정책

# 통화정책과 재정정책

# Monetary and Fiscal Policy

	실행주체	정책수단
통화정책	한국은행	통화량, 이자율
재정정책	정부	세금, 정부지출

# 안정화정책의 탄생배경

## History of Stabilization Policy

- 1929년 이전: 정부/중앙은행의 정책개입은 비효율만 초래한다는 시각이 지배적
- 1929 대공황: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순수한 경제적 이유로 세계 총 생산량의 40%가 감소
- 대공황의 극복은 정부의 개입으로 가능함을 경험
- 케인즈 경제학, 거시경제학의 출발점

# 정부실패와 시장실패

# Gov. and Market Failure

- 시장실패
  -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
  - 대공황이 대표적 사례
- 정부실패
  - 정부(중앙은행)의 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
  - 경기를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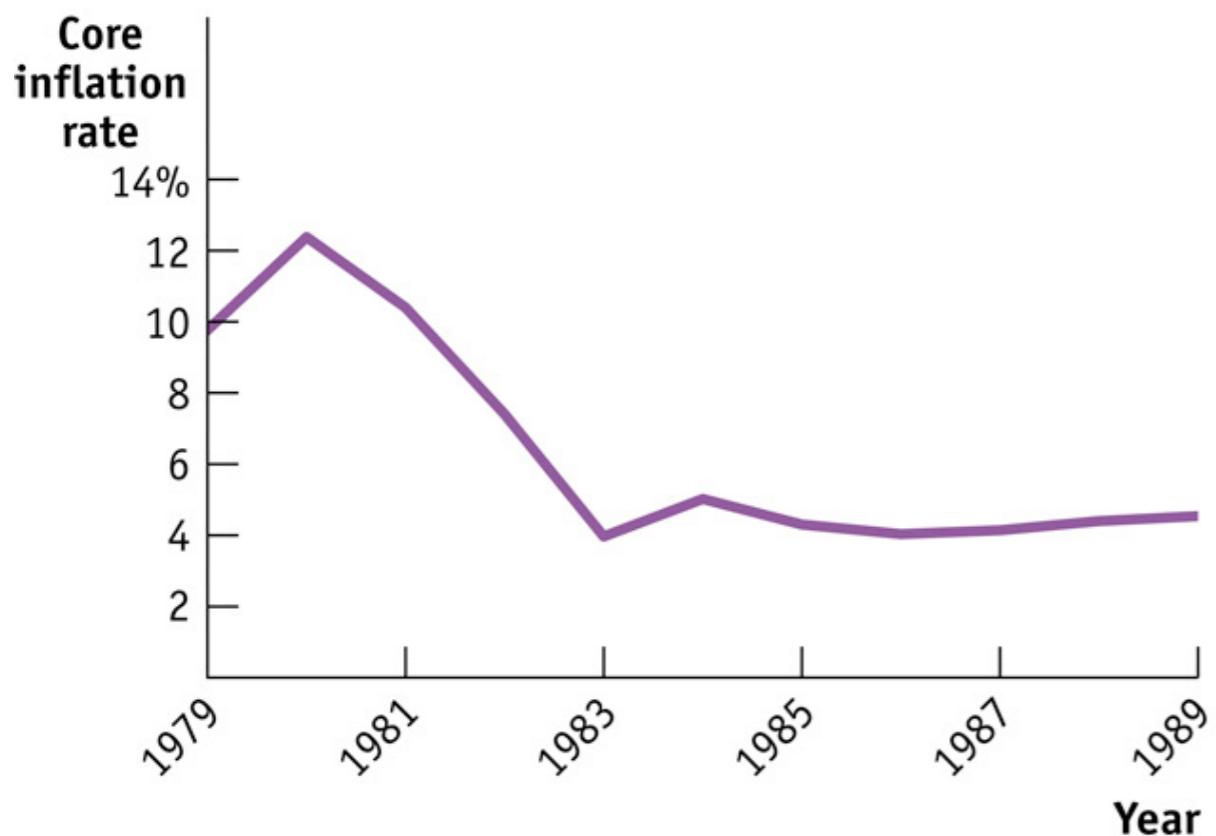
# 공급충격시 거시정책의 딜레마

The Dilemma of MacroPolicy on Supply Shoc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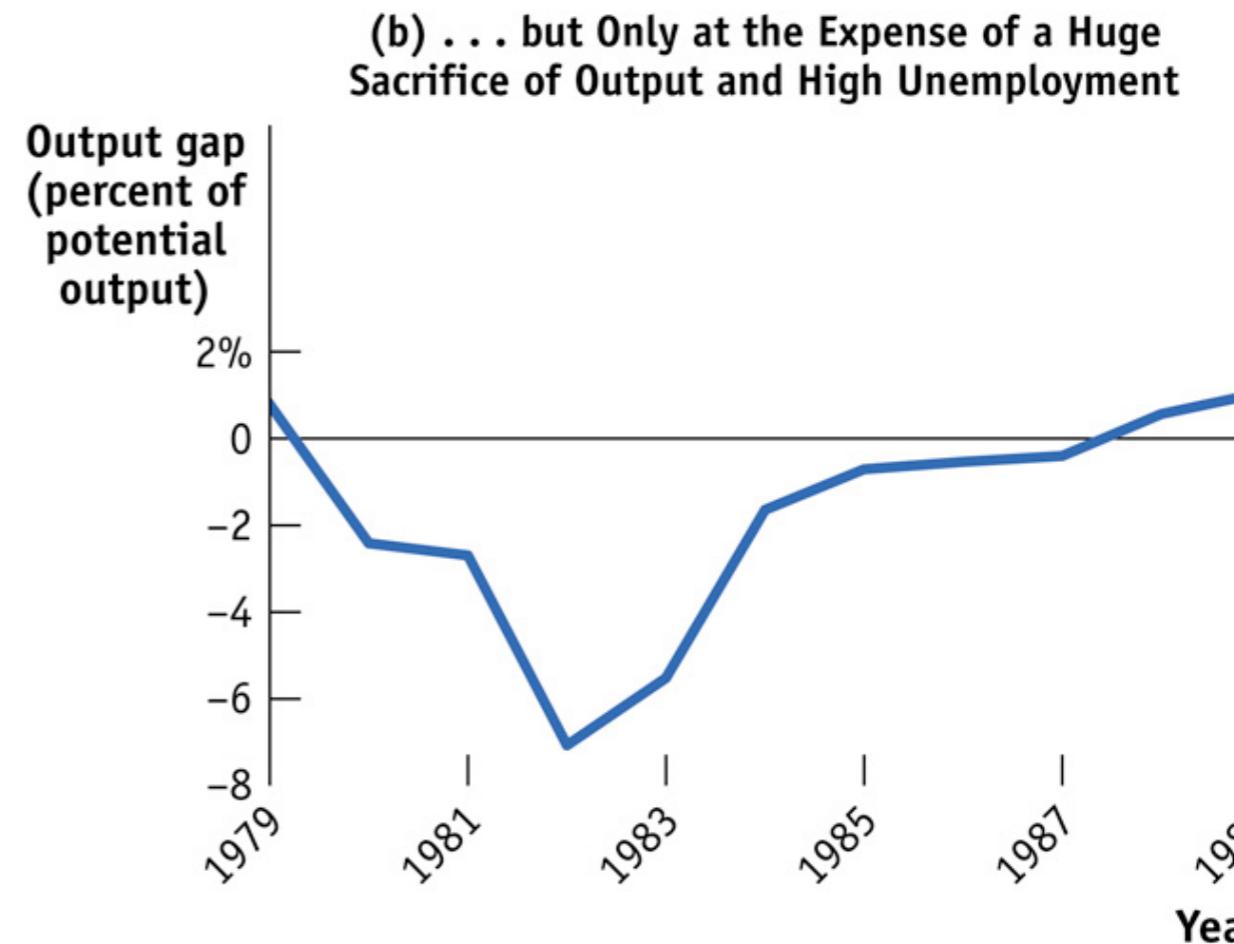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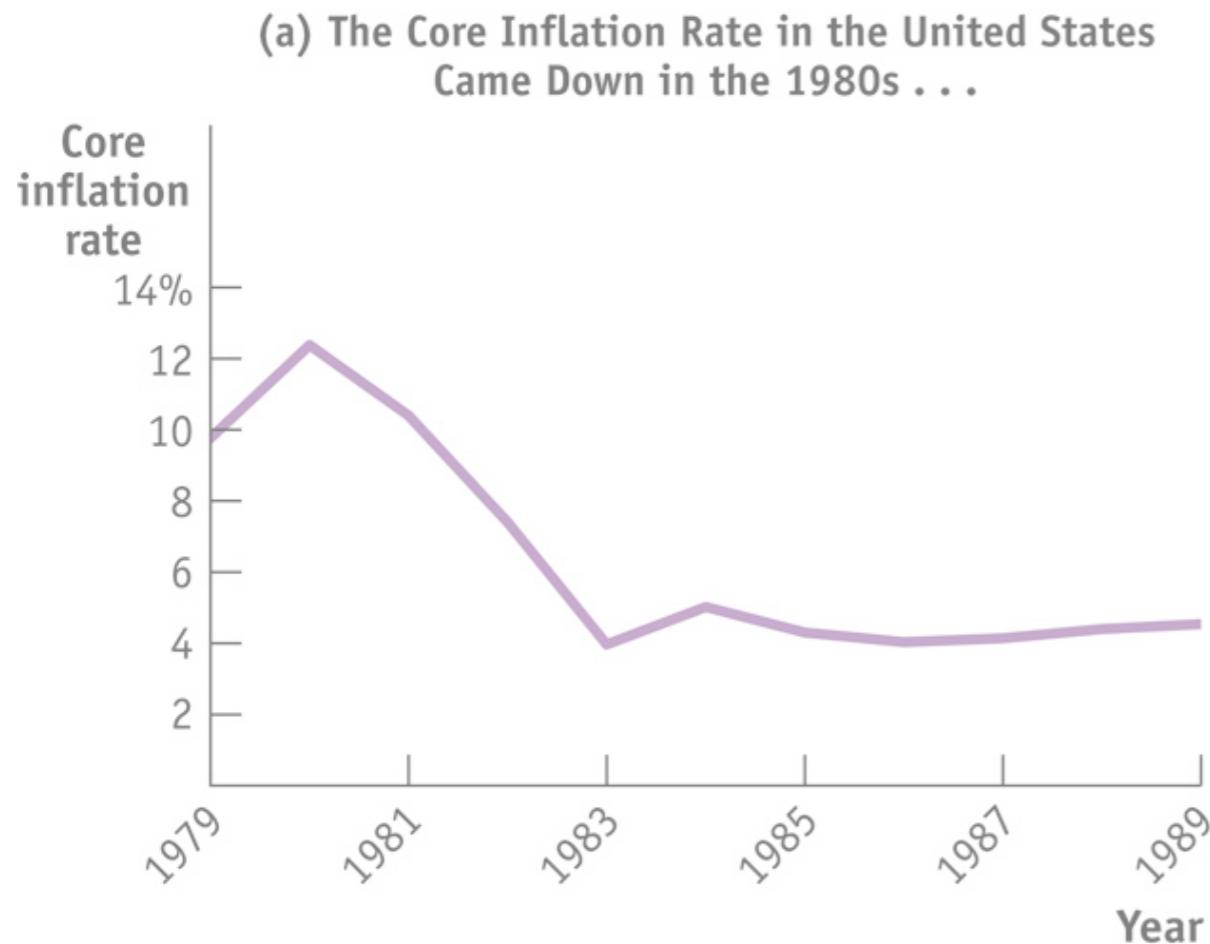
- 공급충격시: 물가++, 총생산--
- 단기거시정책은 수요곡선에만 영향력을 행사
- 부양정책: 총생산은 잡지만, 물가++++
- 긴축정책: 물가는 잡지만, 총생산-----
- 부양정책이 주로 이루어져왔으나, 1979년 미국은  
긴축정책을 선택

# Empirical case: Disinflation in US 1980s

(a) The Core Inflation Rate in the United States  
Came Down in the 1980s . . 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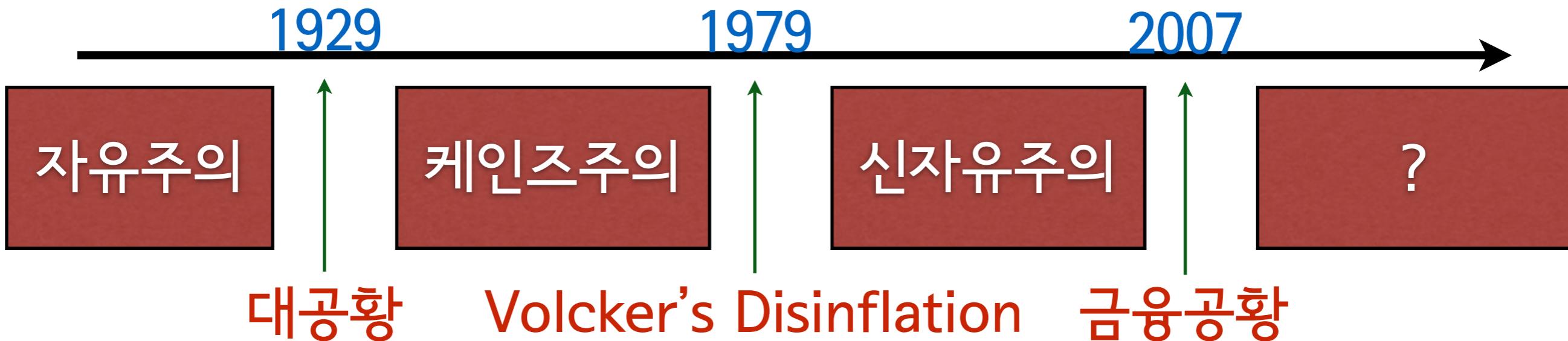
# Empirical case: Disinflation in US 1980s



# 1979년 공급충격

## Supply Shock, 197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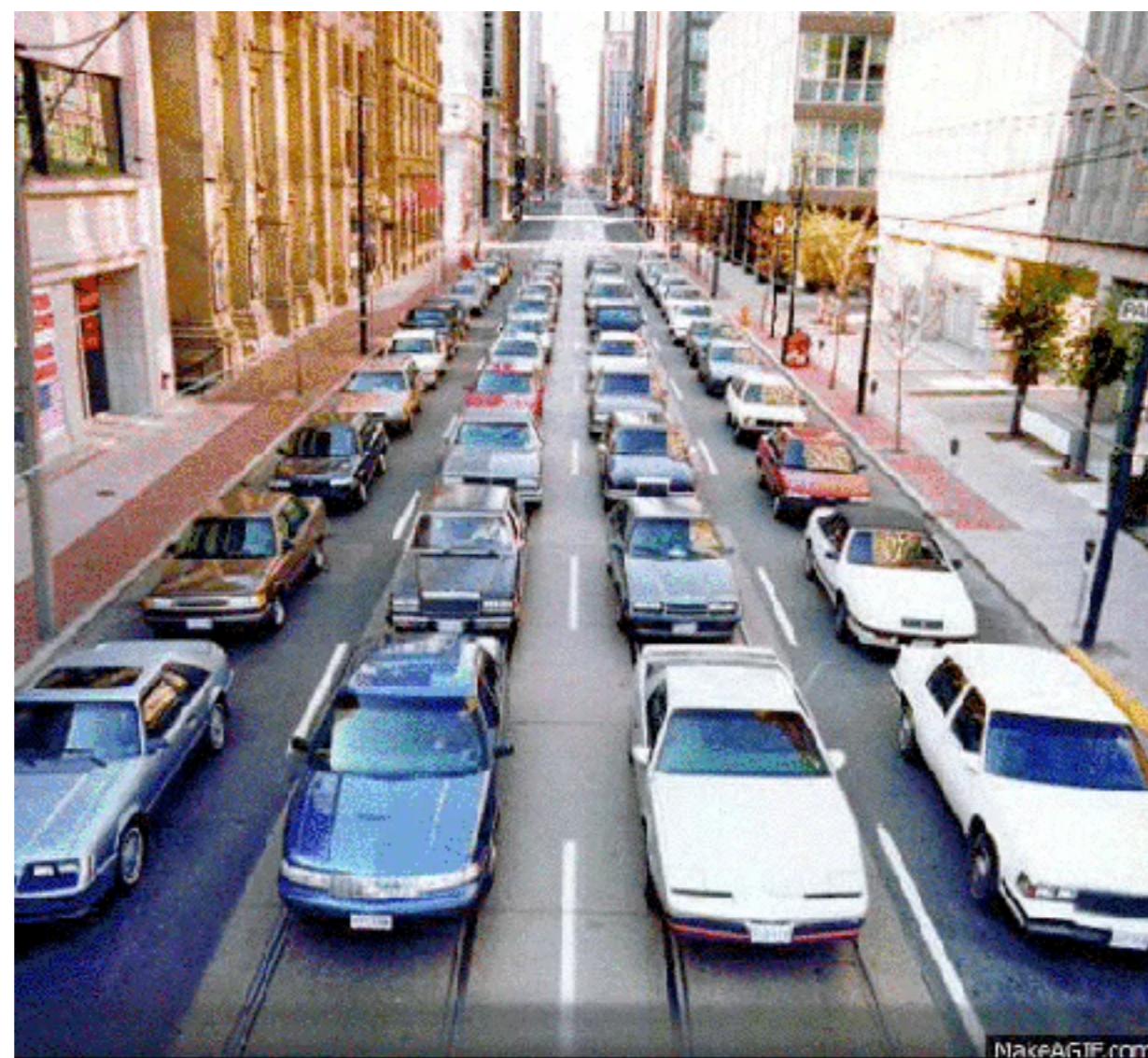
- 1979년 유가폭등의 공급충격,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거시적 이윤율 하락에 대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가안정을 택함: 거시경제정책의 대전환



# Next Topic

- 소득과 (투자)지출

# 수고하셨습니다!



# 수고하셨습니다!

